

머 리 말

매년 백만여명의 사람들이 가출을 하고, 또 다른 백만여명은 가정의 허락을 받고 집을 떠나거나 “쫓겨나서”(throwaway) 집을 떠난다. 문제의 심각성은 범죄의 희생물, 약물과 섹스로 몰들은 도시 그리고 최근 우리들에게 쇼크를 준 대량 살인사건에 의해서 명백히 밝혀졌다. 그러나 수많은 아동과 그의 가정은 이러한 가출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불안을 경험했다. 국가는 모든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도록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극심한 절망감, 욕구좌절 그리고 꿈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 무시해서는 안되며, 그것을 아무도 손댈 수 없는 부모-자녀간 스트레스의 당연한 결과라고 받아들여서도 안된다.

원조 전문직(*the helping professions*)은 가출자를 위한 긴급전화(*hot lines*), 일시보호소 그리고 집단가정(*group home*)과 같은 제한된 사후개입에만 만족할 수 없다. 가출현상이 왜 촉진되고, 젊은이의 생활 경험에서 어떻게 키워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알게 될 때까지, 우리가 근본적인 이유를 알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스트레스적 사건, 대인관계의 손상 그리고 가출 선택과 관련된 다양한 성공적·비성공적 대처기제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은 Roberts 박사의 연구에서도 제기된다. 그의 연구는 가출행위와 관련된 특정변수의 실재를 과학적으로 밝히는 비교통제 집단연구(*comparison control group study*)가 아니다. 그의 관심의 영역은 그러한 행위에 영향을 준 개인적 “속성”(attributes) 혹은 “요인”(factors)만이 아니다. 더욱 의미있게, 그는 구체적인 사건, 결정적인 상황 그리고 상호작용 변수에 초점을 둔다. 부모

와 가출과정에서 큰 의미를 갖는 사람들은 연구과정에서, 가출행위를 일으킨 상호작용적 드라마에서 신뢰도 평가 뿐만 아니라 하나의 의미있는 요소로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 진다.

Roberts 박사는 명백하고 의미있는 방식으로 그의 연구사례를 제시한다. 실무자들은 문제에 대한 그의 학문적 접근이 매우 구체적이고 실용적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위기 사건에 대한 풍부한 기술, 가출행동의 분석적 유형의 구성 그리고 적응문제에 직면한 청소년의 가출과 전통적인 대응에 대한 날카로운 비교는 우리들의 지식바탕에 크게 기여한다. 사용된 연구방법은 사회사업에서 질적 연구방법을 향상시키는데 관심있는 우리들에게 특히 교훈적이다. 끝으로 이러한 연구는 적절하고 통찰력 있는 자료를 매우 중요시하는 소년재판체계에서의 사회정책결정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필자는, 폭넓은 시각을 사용하여, 전문 사회사업과 소년재판 분야를 위한 작업에서 의미를 밝혀보고자 한다.

한 현명한 사회사업교육자는 그녀의 학생들에게,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에는 일을 멈추고, 접근 방법에서 당연한 것으로 여겨온 기본적인 가정과 정의를 살펴보라고 자주 말하였다. 비록 우리들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기는 어렵다. 우리는 어떤 한 측면만을 볼 뿐이다. 즉 우리는 통용되는 문화적 상징을 토대로 관념화되도록 교육받는다. Walter Lippman 이 그의 유명한 글에서 말한 것 처럼, “우리는 먼저 보고 다음에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정의하고 다음에 본다...” 확실히 우리가 지각하거나 간과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온 개념과 정의에 주로 달려있다. “가출아”(runaway), “무단 결석자”(truants) 그리고 “신분 이탈자”(status offenders)와 같은 낱말이나 명칭은 있지만, 반

면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부모, 교사를 지칭하는 용어는 거의 없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더욱이 상호과정 자체에 접근할 때 사용가능한 개념이 매우 적다.

사회사업교육자로서, 몇해 동안 나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개념의 레퍼토리(*repertoire*)를 확대시키고, 자신의 실무에서 가치있다고 보이는 개념을 “만들”(tailor make) 수 있는 일련의 시각을 발전시키도록 격려하는 것이었다. 나에게 있어서 사회사업 실제의 본질은 인간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사회사업가의 관심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클라이언트, 환자, 집단 혹은 가족구성원은 개별적인 개입을 위하여 그(그녀)의 대인관계망과 개념적으로 결코 분리될 수 없다. 확실히 개인이 기능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은 서비스가 주어져야만 되는 맥락이 된다. 대인관계적 상호관계, 체계적 관계 그리고 행동에 관련된 사회문화적 및 “상황적”(situational) 결정 요인에 초점을 맞춘 그러한 개념들은 사회사업가의 레퍼토리의 중요한 부분이다.

욕구좌절(*frustration*)과 실망(*disappointment*)이란 낱말은 사람들의 인간관계를 수정하기 위하여 도울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을 찾는 사회사업가와 다른 도움을 주는 전문가에게 낯설지 않다. 우리들은 과거에 개별화된 클라이언트 시점에서 사회정서적 문제를 정의하도록 유혹받았지만, 극복할 수 없는 힘이 개인을 벗어나서 항상 작용하고 있었고,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보고할 능력이 우리들에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들의 프로그램은 개인을 그(그녀)의 사회적 맥락과 분리시켜서 관심의 근원이자 변화를 위한 표적으로 삼는다.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는 것이 본질적이지만, 사회적 규범과 전통의 맥락에서 국가간 딜레마를 보고할 때 도움이 되는 기술은 여전히 매우 빈약하다.

Roberts 박사의 연구는, 가출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그것이 일어나서 사회적 법적통제의 대상이 되는 상황적 및 상호작용적 맥락에서 비추어지지 않을 때, 그 자체의 의미를 충분히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사건에 대한 쫓점, 부모-청소년 갈등의 수준에 대한 쫓점 그리고 상이한 사회적/문화적 요인에 대한 쫓점은 상호작용 현상에 대한 우리들의 지식을 키우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보다 중요한 것은 가장 문제시되는 곳에 우리가 개입을 시작할 수 있는 몇가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여기에서 발견되는 많은 것들이 후에 다양하게 다루어지거나 사회사업가에게 중요한 권고를 하게 된다. 그러나 딜레마는 존재한다: 현재의 실천, 지식 그리고 기술의 상태에서, 문제가 나타나는 상호작용망과 상황적 맥락에 쫓점을 둔 적절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가? 이것은 복잡한 영역이다. 그리고 부모에게 효과성을 키우려는 우리의 노력이 부모-자녀관계를 얼마나 강화시켰는지, 관계망집단과 가족개입을 발전시키려는 우리의 노력이 가출문제의 근원에 성공적인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한다. Roberts 박사는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몇가지 가치있는 실마리를 주고, 많은 영역, 즉 더 많은 연구를 할 가치가 있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사용된 연구방법은 전문사회사업에 또 하나의 기여를 한다. 수년동안, 사회사업가들은 그들의 업무에서 조사연구의 역할에 대해서 약간 불안해하였다. 확실히 사회사업 연구자는 지식의 기초, 이론형성 그리고 실무에 있어 방향을 제시하고 그것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한다. 마찬가지로 실무자들은 연구결과를 욕구의 사정, 프로그램 효과성의 평가, 의사결정자에게 영향을 주고, 정책을 결정하는 것 등에 활용한다. 그러나 조사변수에서 약간 추

상적이고 실무에서 비판적으로 보이는 난점은 조사방법 자체가 사회사업에 보다 잘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Roberts 박사의 “질적”(qualitative) 접근은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좋은 예이다. 행동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 대한 상세한 기술은 변수들을 이해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다. 연구되는 현상의 특성을 직접적으로 알기 위하여 구술자료(verbatim data)를 활용하는 노력은 실험적 연구에 특히 중요하고, 진실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증진시켜 준다.

물론 연구결과는 아동복지와 청소년 사법 분야에서 정책형성과 입법을 위해서 많은 함의를 가진다. 정부가 가출을 아동복지 관심의 범주에서 적절히 다루지 못하고 사적기관의 개입과 책임은 제한적이어서, “문제”(trouble) 상태에 있는 청소년을 다룰 때 경찰, 법원 그리고 교정당국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른바 신분이탈자(status offender)가 청소년법원의 관할권에 속하는 범법자(lawviolator)처럼 정의되어져야만 하는지에 대한 일련의 논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법원이 청소년법원운동에서 약속된 “사회복귀의 이상”(rehabilitative ideal)을 성취한다고 보는 사람은 이제는 거의 없다. 가출행위를 정서불안으로 정의하려는 시기도 줄어들었다. 그러나 가출자 개개인의 분석과 적절한 “처분”(disposition)을 위하여 “어항”(fishbowl)같은 곳에 끊임없이 유치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법률적 및 의료적 해결에 여전히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여기에서 발견된 사실을 살펴보면, 가출행위는 동떨어져서 법을 어긴 것이나 정신병리적 현상이 아닌 어떤 것이라는 것이 명백하다. 정말로,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온 개념들을 재검토하여 보면, 가출행위에 영향을 준 부모와 다른 사람들의 역할이 이른바 가출이란 문제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명백해진다.

청소년사범분야에서 사회정책형성가는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 우리는 어떤 의미있는 방식으로 가출에 이를 수 있고, 동시에 누가 가출행위를 재촉하는지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가? 여기에 있는 자료에서는 가출행위가 성공적이지 못한 인간관계의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것을 알려준다. 이것은 최대한도로 탐색되어지고, 경찰은 이것을 고려하도록 발전될 필요가 있다. 그러한 통찰에 비추어 볼 때 “상투적인 사업”(business as usual)을 하는 것은 점차 어렵게 될 것이다.

— Albert S. Alissi, D. S. W.

University of Connecticut, 사회사업대학 교수

I. 가출 현상

엄마는 나에게 나가라고 말했다. 나에게 고향치면서 물건을 던졌다. 엄마는 “네놈이 아빠를 죽였어”라고 계속 외쳤다. 나는 친구집으로 도망쳤다. 그집 가족들은 나를 지하실에 숨겨주었다.

— 16살 가출소년 —

나는 하루종일 야단을 맞고 학교 간호사에게 갔다. 간호사는 내가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간호사는 내 코를 만져보고, 코가 깨졌다는 것을 알았다. 간호사는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다. 나는 어떤 계집애와 싸웠다고 말했다. 간호사는 나에게 몇가지 질문을 하고는, 어린 소녀가 그렇게 세게 칠 수는 없을 거라고 말했다. 마침내 나는 눈물을 터뜨리면서 아빠가 때렸다고 말했다. 간호사는 아동학대신고센터에 전화를 걸려고 했으나, 나는 이를 국구 말했다. 내가 고발했다는 것을 알면, 아빠는 나를 죽일지도 몰랐다. 나는 어지러워서 사물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고 균형을 잡을 수 없었다. 간호사는 나를 집으로 보낸 후에 아빠에게 전화를 해서 나를 병원에 데려가도록 하였다.

— 15살 가출소녀 —

미국에서 가출자의 수에 대한 공식통계는 서로 엇갈린다; 매년 적어도 수십만명의 청소년들(12~18세)이 그들의 집을 떠난다. 몇몇 통계는 매년 청소년 가출자가 백만명을 넘어선다고 보고한다.

가출자는 흔히 두렵고, 배고프며, 외롭다. 가출자들은 흔히 먹고 자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을 살 만한 돈도 없이 집을 떠난다. 때때로 가출자는 미리, 가출후에 살 집을 계획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가출은 순간적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가출자는 주차된 차안에서, 근처 고등학교의 노천 관람석 밑에서,

친구집의 지하실이나 뒷뜰에서, 4×6피이드 밖에 되지 않는 구세군 옷 상자에서 자기도 한다. 심한 허기와 영양실조는 흔히 있다. 살기 위해서, 가출자는 친구나 친척에게 돈을 꾸기도 한다. 친척이나 친한 친구가 없는 가출자들은 먹을 것과 잠잘 곳을 구하기 위하여 결국 약물 팔기, 가게에서 물건 슬쩍하기, 구걸, 매춘, 성행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번다.” 특히 대도시에서는 수많은 가출자들이 폭행당하고, 매춘을 강요당하며, 강간당하고, 살해되기조차 한다.

가출현상은 수많은 사회성원에게 영향을 미치고, 사회규범을 파괴하며, 사회적 개입을 통하여 개선될 수 있는 조건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다(Shellow, et. al., 1967 : 1 ; 사회문제의 사회학적 정의에 대하여, Johnson, 1973, 제 1 장 ; Poplin, 1978, 제 1 장 ; 그리고 Henry, 1978 : 1~3).

최근 통계에 의하면 집을 떠난 청소년들의 수는 증가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의 전국 청소년 가출조사(1976년 11월)는 10살~17살 청소년중 허락없이 집을 떠난 청소년은 연간 733,000명이라고 한다. 국가적으로, 가출추세는 하원의 교육노동위원회의 평등기회소위원회에 Birch Bayh 상원의원에 의해서 증거로 제출되었다(1974) :

매년 약 백만명의 청소년이 집을 떠난다. 가출은 점증하는 문제이고, 점차 좀더 나이 어린 청소년, 특히 소녀들이 거리로 나서고 있다. FBI보고서에 따르면 1972년 한해동안 199,185명의 가출청소년이 체포되었다. 이러한 숫자는 1967년과 1972년 사이에 39%나 증가된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체포된 청소년의 다수가 13~14살이라는 것이다(p.159).

가출자중 다수가 부모의 방치, 귀찮게 여김, 그리고 무관심으로 인해 보고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식적 계산에서 빠지게

된다. 가출자를 백만명 정도로 추산하는 것도 적을지 모른다. Shellow, et. al. (1967)은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우리는 경찰에 보고된 가출자들이 빙산의 일각처럼 가출자 전체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경찰당국에 보여지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가출문제의 위험성은 1973년 8월에 밝혀진 Houston 에서의 대량 살해사건에 의해서, 온나라에 무시무시하며 강하게 다가왔다 (New York Times, 1973년 8월 14일 p.1). 27명의 고문당한 청소년 중 다수가 가출자로 밝혀짐에 따라(New York Times, 1973년 8월 14일 p.18, 그리고 1973년 8월 16일 p.17) Houston경찰서는 관찰지역에서 매년 약 5,000여 명의 청소년이 집을 떠난다는 것을 공포하게 되었다(New York Times, 1973년 8월 11일 p.17). 시카고 경찰서는 1973년 16,500명 가출자를 다루었다고 보고했으며 (Times, 1973년 8월 27일 p.57) 뉴욕시 경찰서는 한시점에서 16세 이하 가출자가 시내에만도 20,000명이 넘는다고 했다 (Sheppard, 1979년 8월 16 : 17 ; 그리고 Riter, 1979년 : 24).

가출현상은 대도시의 시내 중심지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교외에 사는 중산층 가정의 청소년들도 많은 수가 집을 떠나고 있다. Long Island 당국은 Nassau와 Suffolk Counties에서 매년 10,000여명의 청소년이 집을 떠난다고 한다(Neugebauer, 1979, section : 1). Washington D. C. 교외의 통계에 따르면, 풍요한 Montgomery County(Maryland주) 에서 매년 1,800명의 가출자가 생기고, Fairfax County(Virginia주)에서도 매년 1,300명 이상의 가출자가 생긴다고 한다(Mullins, 1979). 후자의 경우 경찰에 보고되지 않은 사례는 포함되지 않았다 ; 보고되지 않은 숫자는 특히 중산층과 상류층의 교외가축에서 특히 높을 것이다.

1. 가출에 대한 사회적 반응

가출은, 1960년대말 대학생 연령인 수천명의 중산층 가정출신 청소년들이 그들의 집을 떠나 hippie 생활을 할 때, 전국적 매체와 신문에 기사화되기 시작했다. 두 지역이 가출에 대한 메카처럼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San Francisco 근처의 Haight-Ashbury와 New York시에 있는 East Village이다. 십년후 가출한 청소년의 양식과 가출을 둘러싸고 있는 조건은 변화되었다. 동지애, 공동생활, 평화와 사랑을 주창한 hippie운동은 끝났다. 1970년대에는 청소년들이 가출을 한다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대중들은 최근 아동학대의 정도와 본질을 알게 되었고, 연구자들은 그러한 학대의 상당부분을 폭로해 왔다. 일부는 청소년초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비록 집을 나온 후의 상황이 보장되어 있지 못할지라도, 가정의 학대에서 벗어나려는 강한 열망에서 비롯된 것 같다.

대중들은 어린 가출자가 - 특히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에서 - 취약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청소년들은 매춘을 하도록 강요당하고, 신체적 폭력의 위협이나 폭력으로 매춘을 계속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일반대중과 연방의원들이 아동학대와 가출에 대해서 이해가 깊어짐에 따라서 두개의 전국적인 무료 직통전화(*two toll-free nationwide hotlines*)가 설치되고, 가출청소년법이 통과되었으며 전국적으로 가출청소년 보호소가 주로 연방예산으로 설치되었다.

마음의 평화전화(*Operation Peace of Mind/POM*)라고 널리 알려진 가출 직통전화는 하루 24시간 운영되는데(800-231-6946), 1973년 8월에 27명의 소년이 무참히 살해된 직후에 설치되었다.

이 직통전화는 Houston 살해에 대해서 들은 부모들이 가출한 자녀의 복지와 안전에 대해서 걱정한 부모의 열망과 고통 때문에 설치된 셈이다. 소년들의 절단되어진 변사체로 발견된 후, 미국전체, 특히 Texas에 사는 부모들은 Houston의 경찰서로 수없이 많은 전화를 했다. New York Times의 조사에 따르면 다른 도시에 서도 청소년을 잃은 수백명의 부모들이 경찰서에 빗발치는 전화를 했다고 한다(Weisman, 1973 : 8).

Texas에 위치한 전국적인 직통전화는 기부금과 자원봉사자의 연합된 노력에 의해서 설치되었다. Houston시체가 공개된 후 약 한달만인 1973년 9월 11일에 가출 직통전화의 개통되었다(Hevener, 1975 : 1). 8개월 후, 무료 직통전화의 유지되도록 연방예산이 배정되었고, 직통전화는 현재 Texas 정부의 자원봉사 사무소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가출자를 위해서 24시간 운영되는 전국규모의 무료 직통전화(800-621-4000)는 Chicago에 있는 국립 가출전화(*the National Runaway Switchboard*)이다. 이 전화는 1974년 8월 연방보조금으로 설치된 지방 직통전화이다. 이러한 직통전화의 일반적인 목적은 청소년의 비밀이야기를 부모에게 전해주고, 긴급보호소, 상담센터, 진료소 그리고 법률구조기관과 같은 지역사회 자원에게 의뢰하는 것이다.

가출자들은 텔레비전, 라디오 그리고 소문을 통하여 이러한 직통전화의 존재를 알게된다. 이러한 직통전화를 청소년들에게 알리는데 텔레비전의 효과성에 대한 일례는 1980년 5월 29일에 방영된 가출자에 대한 TV기록물이다. Texas에 있는 가출 직통전화는 텔레비전 방영직후 3일 동안에 통화 건수가 크게 증가되었다고 보고했다.

가출이란 이름의 텔레비전 기록물은 대중매체가 우리 시민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려주는 좋은 예이다. 5월 29일 목요일에 직통전화는 500건 이상을 받았고, 5월 30일 금요일에는 300건 이상, 5월 31일 토요일에는 280건 이상을 받았다. 보통 때의 하루평균 통화건수는 약 120건이다(Woodward, 1980).

흔히 가출청소년법령이라고 불리워지는 1974년 청소년사법과 비행예방법령의 Title III (*Title III of the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Act*)의 통과는 가출자 보호소와 상담서비스의 설치를 위해서 수백만 달러의 연방예산을 쓰게 하였다(Public Law 93-415, 1974). 가출자를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법안이 처음 의회에 상정된 것은 1971년이었으나 이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법안에 나타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

- (1) 부모의 허락없이 집을 떠나서 떠돌아 다니는 청소년의 숫자가 놀라운 비율로 증가되어서, 지원 없이 거리에서 사는 젊은이들이 범람하고 특히 위험에 처해있기 때문에 입법의 필요성이 있음 ;
- (2) 가출청소년의 규모와 양상에 대한 전국적인 통계가 없기 때문에 문제의 정확한 본질이 잘 정의되어 있지 않음 ;
- (3) 수많은 가출청소년들은 그들의 나이와 상황 때문에 일시보호소와 상담서비스에 대한 긴급한 요구가 있음 ;
- (4) 가출아동을 받아들이고, 보호하며, 되돌려 보내는 일은 이미 할 일이 많은 경찰서와 청소년사법당국의 책임일 수 없음 ;
- (5) 그리고 주 정부간 문제라는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전국적으로 문제를 정확히 보고하고, 법 집행구조 밖에서 일시보호의 효과적 체계를 개발하는 것은 연방정부의 책임임 (pp.20~21).

가출청소년법령의 통과에 따라서, 연방예산이 방방곳곳에 가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프로그램들은 법집행당

국과 청소년사법체계와 독립된 안전한 환경속에서 음식, 거처 그리고 상담 서비스와 같은 긴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첫 회계연도인 1975년에는 66개 보조금이 32개주, Puerto Rico, Guam 그리고 Columbia 구역에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 쓰여졌다.

이 법은 가출자보호소가 연방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도록 하였다 :

1. 가출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것 ;
 2. “최대 수용능력은 20명을 넘지 않을 것” ;
 3. 주 정부 법령에 따라 필요하다면, 청소년의 가족과 접촉할 적절한 계획을 갖출 것 ;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따라서 안전 귀가를 보장하고” ; “적절한 다른 생활조치를 제공한다.”
- 연방예산은 가출자를 위한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과 기존 서비스의 확대와 향상을 위하여 끊임없이 제공된다.

문제는 아직도 남아 있다. 많은 가출청소년들이 가출자보호소를 모르거나 그들이 사는 곳에 가출자보호소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연방프로그램의 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흔히 청소년들은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부딪히는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한다. 특히 손안에 충분히 돈이 없을 때 더욱 그렇다.

법 집행당국자는 집을 떠난 미성년자를 경계한다. 청소년 용의자에 대한 그들의 처우는 청소년을 발견한 당국자의 특성과 신분 이탈자를 다루는 주 법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가출자에게 행해지는 법적 처우의 형태는 청소년을 부모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과 같은 위기개입이나 가출보호소로의 의뢰와 같은 친절하고 사려깊은 것일 때도 있고, 거친 질책, 적대, 하나의 청소년비행으로 선고하여 수감으로 끝날 때도 있다.

갈 곳 없는 청소년들은 사기꾼, 약물팔이 그리고 포주와 같은

범죄자에게 취약한 표적이 된다. 수천명의 가출소녀들이 Boston, Minneapolis, New Orleans 그리고 New York과 같은 대도시에서 자발적으로 매춘을 하거나 포주에 의해서 매춘을 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또한 이러한 소녀들은 흔히 12살 - 16살 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매춘을 거부하면 강간당하고 두들겨 맞는다. 또 다른 소녀들은 빨리 돈벌 수 있다는 약속에 꾀임을 당하기도 하고, 새로운 포주에게 환심을 사거나 “보호”(protection)를 받기 위해서 매춘을 한다(Raab, 1977년 10월 30일 : pp.1 & 21 그리고 Raab, 1977년 11월 2일, p.B3).

가출소년도 가출소녀처럼 매춘에 빠질 위험이 있는데, 포주의 감독을 받는 경우도 있고 거리에서 스스로 살아가기 위한 돈벌이의 지름길로 택하기도 한다. 동성애 매춘을 한 이러한 소년들은 뉴스매체에 의하여 “새끼 매”(chicken hawks)라고 불리워졌다 (Vecsey, 1976 : 37). 경찰은 이러한 가출소년과 가출소녀가 처한 열악한 조건을 설명했다. 한 경찰관은 14살부터 Minneapolis에서 일한 16살 소녀에 대해서 보고했다. 그 소녀는 거리에서 일한 18개월 동안에 그녀의 포주에게 10만불 이상을 바쳤다고 했다. 포주는 그녀에게 적어도 하루밤에 150불, 일주일에 6일밤을 일하라는 할당량을 주었다. 다른 소녀는 부모에게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포주에게 했다가, 포주는 그녀의 턱을 깨고 길거리에서 계속 일하도록 강요하였다(Raab, 1977년 10월 30일 : 21).

2. 가출청소년과 비가출청소년

가출청소년들은 모든 청소년이 직면한 청소년기에의 적응에 덧붙여서, 끊임없는 언어적 학대나 신체적 학대의 희생물이었다. 따뜻한 기후에서 잠시 즐기기 위하여 Florida나 California로 온 청

소년이나, 부모를 속이고 갑자기 친구집에서 하루밤을 묵은 청소년과는 달리, 이번 연구 대상인 많은 가출청소년들은 신체적 언어적 학대가 계속 일어나는 갈등 가정에서 뛰쳐나왔다.

60명의 청소년, 그중 30명은 교외에 위치한 한 상담센터인 가칭 “가출자보호소”(Runaway Retreat)에서 상담한 가출청소년이고 나머지 30명은 비교집단으로 비가출청소년이다. 이들 모두는 18세 이하이고, 적어도 24시간동안 부모의 허락없이 가정을 떠나있는 상태였다. 비가출청소년 집단은 가칭 “교외 고등학교”(Suburban High)에서 임의로 뽑혔다. 가출청소년과 비가출청소년의 답변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출청소년의 부모 10명과 비가출청소년의 부모 12명을 면접하였다.

이 연구에는 두가지 목적이 있다. 하나는 가출청소년들이 집을 떠나기 전에 어느정도 스트레스적 사건을 겪는지를 사정하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상이한 스트레스와 가출청소년의 대처기제가 비가출청소년과 비교하여 어떤 유형으로 나타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가출청소년과 비가출청소년으로부터 개방된 면접 자료를 얻는 것이다.

3. 이 연구의 이론적 근거

사람들에게, 청소년기는 부모의 죽음, 이혼, 신체적 학대, 알콜 중독, 심한 질병, 혹은 입원과 같은 주요한 스트레스적 사건들을 다루도록 하는 심한 요구가 있는 시기이다. 이러한 사건들이 발달과정상으로 이미 갈등과 과도기의 시기에 있는 청소년에게 영향을 줄 때, 매우 위험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

Caplan(1964), Jacobson, et. al.(1965), Aguilera, et. al.(1970) 그리고 Parad(1971)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과 같은 스트레스적

사건으로 일어나는 상황적 위기를 기술하였다. 위기 이론에 따르면, 주요한 강조점이 스트레스적 사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의 반응에 주어진다. 위기상태는 무력감과 혼란감으로 나타나는 개인의 분열 그리고 기존의 대처양식으로는 긴장 해소, 문제 해결이 안되는 무능력으로 정의된다.

위기이론가들은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정상과정의 일부로서 또 다른 위기범주 - 성숙 위기(*maturational crisis*)를 말해왔다. 성숙위기는 몇해가 걸리기도 하고, 흔히 그 사람의 외모와 성격의 변화로 끝난다. 청소년기는 흔히 자신의 독특한 정체성과 긍정적인 자아상의 형성에 중요한 성숙위기단계처럼 보인다(Erikson, 1950, 1956). 청소년기는 자율성의 신장에 대한 열망, 미래의 목적 설정, 사회적·도덕적 딜레마에 직면하는 사회화의 시기라고 한다.

이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두가지의 주요한 위기유형 - 성숙위기와 상황위기 - 의 가운데에 놓여있다. 그리고 비록 이들 청소년들의 성숙위기는 사정되지 않았을지라도, 가출청소년들이 어느 정도의 상황적 위기에 있는 지를 알아내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II. 가출에 대한 연구시각

청소년가출에 대한 대부분 연구의 일차적 목적은 가출사건의 다양한 동기와 이유를 밝히려는 것이다. 그러나 교외지역 가출자라는 특정한 주제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고, 스트레스적 사건과 이에 수반되는 위기가 청소년에게 집을 떠나게 하는 정도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다.

문헌연구에 따르면 대체로 선행연구의 심각한 약점은 다음과 같다 : 공통어가 없다 ; 개념의 사용이 매우 다양하다 ; 연구자들이 사회사업학, 범죄학, 심리학, 정신병리학, 사회학 등과 같은 각기 상이한 학문에 바탕을 두기 때문에 서로 상이한 접근방법이 사용되었다. 가출문제의 복잡성과 통일된 개념들의 결여 때문에, 문헌의 통합은 극히 어렵다.

그러나 청소년 가출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에는 세가지 지배적인 문헌이 있다 : 즉 정신병리학적 이론, 상황이론 그리고 가출의 유형학이다.

1. 정신병리학적 해석

가출을 정신병리학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연구는 가출자를 낮은 충동통제, 신경증, 해소되지 않은 외디프스 콤플렉스, 심한 자기애적 인격장애 혹은 낮은 자아개념과 같은 개인적인 혼란의 한 형태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본다.

1930년대와 1940년대에 몇몇 연구자들은 가출을 청소년 개인의 정신병리학적 반응의 하나라고 주장했다. Armstrong(1937)은 전형적인 가출은,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고, 두려움, 불안 그리고

불안정을 크게 겪고 있는 저소득 소수집단의 정신신경증이라고 보았다. Riemer(1940)는 가출은 “극단적인 부정적 성격”을 반영하고 “심한 자기애적 인격장애를 구성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 사법체계 내에서 청소년가출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청소년비행과 심리적 장애 행동에 지속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Armstrong, 1937 ; Leventhal, 1964 ; Riemer, 1940 ; Robey, et. al., 1964 ; 그리고 Rosenheim, 1940).

Robey와 그의 동료들은(1964) Framingham(Massachusetts주) Court Clinic에 의뢰된 42명의 중산층 가정의 가출소녀를 연구할 때 정신분석학적 시각을 취하였다. 가족병리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들은 가출행위를 강한 외디프스적 영향과 근친상간 관계의 위협 탓으로 보았다. 즉 “혼란스런 결혼관계, 부모 자신과 소녀의 충동에 대한 부모의 부적절한 통제, 모성애의 박탈” 그리고 딸에게 어머니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압력에서 비롯된다. 어머니의 관심과 사랑이 결핍되어, 소녀는 어머니의 애정부족을 보상받기 위해 입의 만족(*oral gratification*)이라는 목적을 지닌 채 지나치게 성숙하게 된다. Robey와 그의 동료들은 소녀의 가출행위는 어머니의 역할 강요에 대한 반응이라고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치료되지 않으면 소녀의 장래는 약속될 수 없다고 한다.

Leventhal(1963)은 16명의 가출자에 대한 연구에서 참을 수 없는 가정상황과 같은 요소에 대한 일반화된 통제가 결여될 때 가출행위가 일어난다고 결론지었다. 가출자는 스스로 창피한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Leventhal에 따르면, 자신이 압력을 받고, 창피한 상태에 있는데 자신에게 이에 대한 통제력이 없다는 것을 안 개인들이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한다.

청소년법정 이외의 기관에서 나온 자료에 바탕을 둔 조사연구도 가출자중에서 낮은 충동통제, 우울, 낮은 자존감을 보고하였다

(Joos, Debuyst, 그리고 Sepulchre-Cassiers, 1970 ; Robins와 O'Neal, 1959).

2. 상황적 해석

개인의 정신병리학의 가능한 의미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몇몇 연구는 청소년의 가출을 상황적 문제의 결과로 보았다. 이러한 문제가 학교, 또래집단의 압력 그리고 가족, 학교, 또래집단 압력의 상호작용에서 일어난다는 몇가지 보고도 있지만, 이러한 문제의 장은 주로 가족이다.

Shellow와 그의 동료들은(1967) 가출자를 정신병리학적 집단과 상황적 집단 등 두 집단으로 나누었다. 그러나 그들 분석의 일차적 초점은 가출자의 환경적 상황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Shellow는 가출자의 개인적 정신병리의 결과로 “가출자는 심한 불안을 보인다”고 주장하고, 가출을 “통상적인 가족갈등이나 일반적인 경제상황에서 비롯되는, 상황적 압력에의 적응적 반응”이라고 해석한다(p.1). 가출을 하나의 적응이라고 보는 Shellow의 시각은 Outland(1938), Balser(1939), Lowery(1941) 그리고 Goldmeier와 Dean(1973)의 시각과 일치한다. Outland(1938)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반응이고 모험추구의 하나라고 결론지었다. Balser는 한번 가출한 자는 그들의 문제를 가출사건을 통하여 해결했음을 발견했다. Lowery(1941)는 참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건전한 대응방식이라고 결론지었다. Goldmeier와 Dean(1973)은 가출을 낮은 학업성적, 청소년이 가출전에 만나는 선생님과 부모에게 접근하는데의 어려움과 같은 문제에 대한 반응이라고 결론지었다.

Shellow와 그의 동료들의 연구는 Maryland에 있는 Prince

Georges County에서 10살~17살 가출청소년 731명의 표본에 바탕을 두었다. 자료는 경찰기록과 가출청소년과 부모와의 면담을 통해서 얻었다. 표본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규범과 학교 성적에 대한 가정내 갈등; 결혼 가정(48%); 이론 과목에 매우 어려움이 크고 학교 결석이 많음; 다른 비행력이 거의 없음; 시간제 아르바이트와 방과후 클럽활동에 참여가 적거나 만족을 느끼지 못함. 가출자는 두집단이 있었다: 심각한 개인적 혹은 가족적 병리가 있는 사람들은 소수집단이고, 심각한 장애가 없는 사람들이 다수집단이었다. 후자 집단에서의 가출은 가정, 학교, 혹은 또래집단에서의 순간적인 불만족을 다루는 한 수단이었다.

Shellow와 그의 동료들은 가출사건의 수에 있어서 약간의 주기적 차이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소년들은 요일별로 별 차이가 없으나 소녀들은 다른 날보다 금요일과 토요일에 가출했다; 소녀들은 오후 6시에서 한밤중에 집을 떠나지만 소년들은 낮시간에 떠나는 경향이 있었다; 대부분의 경우(51%), 가출청소년은 가정에서 맡아들이거나 만딸이었다; 전체 청소년중 52%만이 그들의 생부모와 함께 살았다; 가출청소년 부모의 2/3는 가출자녀의 성적이 문제라고 했다; 한번 가출한 자는 스스로 되돌아 오는 경향이 있고, 이를 미만인 경우가 많다(단지 28%만이 이를 이상 집을 떠났다); 가출경험이 많은 청소년은 이를 이상동안 집을 떠나는 경향이 있었다(42%는 이를 이상동안 가출했다).

Shellow연구팀은 11개 학교에서 1,350명에게 설문조사를 하여 자료를 뽑았는데, 6명 가출자중 1명만이 경찰기록에 보고되었다고 한다. 또한 가출하지 않은 학생 1/3이 가출할 것을 심각하게 고려한 적이 있었다는 것도 밝혀졌다.

D'Angelo의 조사연구는(1974) 4개 기관(Juvenile Diagnostic Center, Juvenile Detention Home, Huckleberry House 그리고 Buck-

eye Boys Ranch)에서 82명의 가출자를 뽑고, 82명의 비가출자는 Ohio 주 Franklin County에 있는 6개 고등학교에서 뽑았다. 그의 연구에서 많은 가출자는 비가출자의 경우(22%)와 비교할 때 결혼 가정에서 나왔다(39%)고 보고했다. 그들 부모가 그들 친구의 부모와 비교할 때 얼마나 사이 좋게 지내고 있는지를 물었을 때, 가출자의 25%는 “다른 부모와 비교할 때 잘 지내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비가출자의 9%와 대조가 된다”고 했다.

부모사이의 관계의 강도를 알기 위해서, 가출자와 비가출자에게 그들의 부모가 그들 친구의 부모와 비교할 때 얼마나 자주 다투는지를 물었다: “가출자의 34%는 그들 부모가 다른 부모보다 더 자주 다투다고 하여, 비가출자의 13%와 비교되었다.” 가출자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쪽 혹은 양쪽”부모의 도움을 청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조사대상자에게 “(그들이) 문제에 처해 있을 때, 가장 도움을 받고 싶은 사람 세명”의 이름을 적도록 하였다. 가출자의 49%는 부모의 이름을 적어서 비가출자의 84%와 비교되었다. 84명 가출자중 대다수인 45명이 부모와의 문제가 그들의 가출 이유라고 했다. 다른 이유도, 사랑받지 못한 느낌(6명의 가출자), 불안과 불안정(4명의 가출자)과 같이, 부모의 압력과 관련되어 있었다. 전체의 1/3이상인 34명의 가출자는 특별한 이유를 보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중 대부분인 25명은 그들이 혼란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거의 “모든 예에서, 이러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조사대상자에게 학교성적의 석차를 5분위별로 체크하도록 하였다. 가출자의 38%가 학급에서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여 비가출자의 28%와 대조되었다. D'Angelo의 연구가 철저했지만, 그 연구는 주로 몇가지 개연성있는 답변으로 구성된, 구조화된 질문으로 이루어진 조사표를 각 청소년들이 답변하도록 하여 방법론적 편견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제한점이 있다.

3. 가출의 유형화

가출을 분류하기 위한 몇가지 도구가 문헌에서 보고되었다 (Dunford와 Brennan, 1976 ; English, 1973 ; Greene과 Esselstyn, 1973 ; 그리고 Homer, 1973). 가출의 “이념형”의 기술은 흔히 청소년의 가출이유에 초점을 맞췄고, 근본적으로는 비슷한 것처럼 보인다.

세가지 가출유형은 “참을 수 없는 가족상황”을 벗어난 사람, “모험”을 추구하는 사람, “학교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끊임없이 기술되고 있다. 최근 논문의 필자들은 똑같은 가출행위 유형에 대하여 다른 이름을 붙이기도 한다 ; 가족 갈등 때문에 가출한 청소년을 Homer(1973)는 “탈출형 가출”(running from)이라고 하고, 때때로 English(1973)는 “가출”(runaways)이라고 부르며, Greene와 Esselstyn(1972)은 “불안한 가출”(the anxious runaway)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Greene과 Esselstyn의 “떠도는 가출”(rootless runaway) 소녀는 모험가이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직접적인 즐거움을 찾는 즐거움 추구자로서 정의된다. 비슷하게 Homer의(1973) 가출소녀는 “추구형 가출”(running to) 집단으로 분류되어, 가정에서 금지된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즐거움과 모험을 추구한다.

English의(1973) 4단계 가출유형은 “뜨내기”(floaters), “가출자”(runaways), “헤어진 자”(splitters) 그리고 “심각한 거리족”(hard road freaks)이다. 그는 “뜨내기”를 집을 떠나길 즐기는 청소년이라고 정의한다 ; 이들은 가출을 해도, 48시간안에 되돌아온다. 쌓인 긴장에서 해방되기 위하여 뜨내기들은 가출에 대해서 말을 함으로써 가출에 대한 생각을 시험하고 흔히 그들의 마음을 바

꾼다. “가출자”는 붕괴된 가족 상황을 떠나는 청소년, 어떤 상황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며 떠나서 도움을 받으려는 사람, 그리고 혼전임신과 같은 사적 비밀이나 말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나 발각으로 집을 떠나는 사람을 포함했다. “헤어진 자”는 작은 좌절 때문에 집을 떠난 청소년이다. 헤어진 자의 동기중 일부는 가출한 사람에 대한 또래의 긍정적 이미지에서 비롯되었다. “심각한 거리족” 혹은 거리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들의 집과는 관계가 끊어져서 방랑생활을 하는 17살~20살의 나이먹은 가출자였다.

Greene와 Esselstyn(1972 : 16~18)은 통제할 수 없는 제멋대로의 소녀를 논할 때, 3가지 유형으로 기술한다. 즉 떠도는 가출자, 불안한 가출자 그리고 놀란 가출자이다.

“떠도는 가출자”(rootless runaway)는 흔히 순간의 즐거움을 찾는 즐거움 추구자이다. 이러한 소녀는 학교를 그만두고, 한 직장 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며, 약물을 사용하고,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소녀는 아동기에 아낌없이 칭찬은 받았을지라도, 부모는 그녀에게 제한을 가하지는 않았다. 청소년기에 이러한 소녀는 흔히 우울기를 갖는데, 이것이 그녀의 가족을 놀라게 한다. 그들은 “처음으로 그녀에게 제한을 가한다. 소녀는 반항하고, 집을 떠나고, 곧 잡혀서 구금된다”. 가족이 그녀를 돕기 위해서 온 후에,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규범을 강요받기 전에는 모든 일을 제멋대로 한다. 그러다가 자기 주장을 하고, 반항하며, 다시 달아난다.

“불안한 가출자”(anxious runaway)는 복잡한 문제 가정에서 나온다. 이러한 소녀는 흔히 가정의 허드렛일을 도와야 하고, 어린 동생들을 돌보아야 하며, 가계를 걱정해야 한다.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경우, 아버지는 과음으로 인하여 그녀를 신체적으로 학대하

거나 그녀에게 잔소리를 하기도 한다. 불안한 청소년은 스스로를 위해서 혹은 가족을 위해서 도움을 찾으러 몇시간 혹은 하루밤을 달아난다. 그녀는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것을 바라고 흔히 친구의 어머니에게 이야기한다. 이러한 소녀는 기꺼이 집으로 돌아온다.

“놀란 가출자”(terrified runaway)는 그녀의 아버지나 새아버지의 성적 학대에서 달아난다. 근친상간이 일어날 때, 어머니는 “남편의 성적 요구가 자신에게서 딸에게로 옮겨가기” 때문에 이를 알아차리고는 미묘하게 딸의 가출을 부추긴다. 어머니는 결혼과 자녀가 자신의 잠재성을 실현하는 것을 막는다고 느낄 것이다. 놀란 가출자는 흔히 많은 친구를 집으로 초대하지만, 때로는 성적 학대가 이루어지기 쉬운 혼자있는 상태를 피하려고 집을 나가기도 한다. 이러한 소녀는 성적 학대를 벗어나기 위해서 공포상태에서 가출한다. 그리고 그녀는 스스로를, 피할 수 없는 가족 분열의 원인으로 보기 때문에 죄의식이 매우 크다.

Homer는(1973) 13살~16살인 20명의 가출소녀를 연구했다. 그의 연구는 가출자를 두가지 형태로 나누었다: 가정문제로부터 달아난 가출소녀, 그리고 그녀에게 성, 약물, 술, 혹은 놀이를 주는 장소나 사람에게로 달아나는, 즉 즐거움을 찾는 가출소녀이다. “탈출형 가출”(running from) 범주에서, 7명중 6명은 그들 가정 상황 혹은 한쪽 부모나 양부모를 참을 수 없다고 했다. “추구형 가출”(running to) 집단에서는 13명중 10명이 자신은 가출을 즐기고 가출중에 만난 친구를 좋아했다. 이들 10명중 2명만이 어머니가 자기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Homer는 첫번째 범주의 7명중 6명은 개별치료와 가족치료를 통해서 효과를 본 것같고 가출을 멈추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두번째 집단에 속하는 13명중 9명은 계속 가출하는 경향이 있고, “흔히 경찰에게 잡혀서 올 때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다”(Homer, 1973 :

478).

Dunford와 Brennan(1976)에 의해서 개발된 4단계 유형은 표준화척도에서 가출자의 점수에 바탕을 두어 나눈 것이다. 가출자의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 덧붙여 연구자들은 가출자의 학교성적, 자존심의 수준, 비행과 약물사용에의 관련정도를 조사하였다. Dunford와 Brennan에 따르면 청소년은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Type 1은 자만심이 강하고 제멋대로인 가출소녀이다. 부모관계가 약해서 자신의 삶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부모의 통제는 적은 훈육과 많은 방임으로 특징된다. 이러한 소녀들은 성적이 높고, 자존심의 점수가 높으며, 또래와 교사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가졌다. Type 2는 잘 적응하는 가출소녀인데 긍정적인 부모관계로 특징된다. 그들은 부모가 훈육의 수단으로 지나친 통제와 처벌을 사용한다고는 보지 않는다. 그들은 학교에 대해서 좋게 느끼고 자존심의 점수가 높다. 이러한 청소년들은 흔히 모험으로 집을 떠나거나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혼자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집을 떠난다. Type 3은 비행에 심하게 개입된 청소년으로, 부모와의 관계가 형편없고 학교에 실패한 것이 특징이다. 그들의 평균점수는 평균 “D+”이고, 부모거부, 부모의 결혼 갈등, 비행에의 개입과 약물사용의 정도가 높다. Type 4는 달아난 청소년이다. 이러한 청소년의 부모는 지나치게 통제를 하고 지나치게 높은 성취를 요구한다. 이러한 부모는 자녀의 문제를 돕거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러한 가출자는 부모거부의 수준이 높고, 자존심의 점수가 낮으며, 권리 박탈의 점수가 높다.

Shellow와 동료들은(1967) 왜 아이들이 집을 떠나는지에 대한 쟁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 바 있다.

가정에서 떠난 아이들에 대한 연구는 약 4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는 가출아에 대한 한가지 선명한 이미지를 제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윤곽을 모호하고 흐릿하게 제시한다. 왜 아이들이 가출을 하는가, 그리고 어린이, 가족 그리고 사회에 있어서 가출의 의미는 변치않는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에 따라 그 기능이 항상 변하는 듯하다(p.28).

III. 연구 설계

1. 장 소

이 연구의 자료수집은 사설 청소년상담소에 찾아온 30명의 가출청소년, 그리고 근처 고등학교에 다니는 비가출청소년과 면접을 하여 이루어졌다. 조사대상자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집단은 “가출자보호소”와 “교외고등학교”로 불리워진다. 가출자보호소는 Long Island의 북쪽 해변에 있는 New York주의 동남쪽에 위치한다. 이 기관은 백만명이 넘는, 인구밀도가 높은 교외지역에서 온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주고 있다. 기관의 서비스를 받는 청소년의 대부분은 기관에 인접한 두 마을에서 살고 있다. “가출자보호소”에서 상담을 받고 있는 청소년의 대부분은 13살~17살이다. 가출자보호소는 서로 가까이에 있는 두 시설을 운영하는데, 하나는 개별상담, 집단상담, 부모상담 그리고 가족치료를 하는 입원상담센터(drop-in-center)이고, 또 다른 하나는 8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가정이다. 이러한 입원상담센터와 보호소는 6주간 이용된다. 이곳을 찾는 대부분의 청소년은 가족갈등, 약물사용, 가출행위 등의 경험을 지니고 있다. 이들 청소년들은 위탁가정(foster home), 장기거주시설(long-term residential facility), 수정된 독립생활시설(modified independent living situation)(예컨대 한 어머니의 도움으로, 청소년들은 아이들을 돌보고 주방일을 하는 대신에 방과 식사를 제공 받는다)로 이송되길 기다리거나 혹은 일시적인 집단가정(group home)에서 산다.

2. 표 본

자료수집은 1977년 6월 14일에서 8월 30일까지 가출자보호소의 직원에게 보내진 30명의 가출자와 심도있는 면담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들 모두는 18살미만이고, 보호자의 허락없이 24시간 이상씩 집을 떠난 청소년들이었다. 그들은 접수상담원에 의해서 소개되거나, 가출자보호소의 상담센터에 있는 “안내실”(rap room)을 자주 방문하는 청소년들에 의해서 소개되었다. 33명의 청소년이 의뢰되었는데, 그중 3명만이 면접을 거부했다. 왜냐하면 연구자가 지난 여름동안 기관의 집단상담에 참여했기 때문에, 연구자는 특별 상담원으로서 청소년들과 관계를 갖고 있었다.

가출자가 말한 정보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은 가능한 한 그들 부모나 보호자를 면접하는 것이다. 가출청소년의 부모중 10명을 면접하였다. 연구자는 부모의 편의에 따라서, 낮이나 밤, 언제든지 면접을 할 수 있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가출청소년의 부모는 대부분 면담을 꺼렸다.

위기에 대한 조사의 기본적인 약점은, 특히 위기상태에 있는 가출자에 대한 조사, 위기상태에 있다고 보여지는 가출자 집단과 “보통”의 청소년이라는 비교집단과의 비교연구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비교표본에 대한 면접도 함께 실시되었다. 비교집단에 대한 면접은 1977년 6월에 실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조사목적에 따라서 고등학교에 접근하는데 있어서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학기말고사와 New York State Regents 시험이 6월에 실시되었기 때문에 비교집단을 추출하고 면접하는 것은 10월과 11월까지 계속되었다.

30명의 비교집단을 Long Island의 북쪽 해변에 위치한 한 고등

학교인 교외고등학교에서 표본추출하고 면접하도록 사전절차가 있었다. 단순무작위표본추출을 위하여 비교집단에 있는 청소년의 통계적 독립성이 요구되었다; 한 청소년의 추출은 다른 청소년의 추출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표본추출의 통계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난수표가 유용하다. 45명의 청소년이 10학년, 11학년 그리고 12학년에서 같은 수로 추출되었다. 그중 면접에 응하기로 한 30명을 선착순으로 면접조사하였다. 30명을 뽑기 위해서, 모두 41명과 접촉하였다. 면접을 거부한 11명중에서 4명은 10학년, 3명은 12학년이다. 비가출청소년의 응답과 그 부모의 응답이 일치하는지를 알기 위하여, 비가출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면접도 이루어졌다.

3. 조작적 정의

이 연구에서 두가지 조작적 정의가 이루어졌다: 가출청소년이라 함은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없이 집을 떠나서 적어도 24시간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은 18살미만의 청소년이다. 가출청소년은 “쫓겨난 자”(throw aways)도 포함한다. 쫓겨난 자는 부모가 나가라고 해서 혹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청소년이다. 위기라 함은 일차적으로 하나 혹은 여러개의 스트레스적 사건에의 직면이다. 스트레스적 사건은, 상당한 혼란과 분열을 가진 개인과 과거에 사용하던 대처기제로는 분열을 해결할 수 없는 개인에 의해서 지각된다.

4. 비형식적인 면접

비형식적인 면접은 상황에 대한 응답자의 시각, 감정 그리고 의미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에게 일반적으로 가장 적합한 것으로 인

식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했다(Nachmias and Nachmias, 1976 : 101~102). 면접은 지침의 융통성 때문에 면접조사표 보다는 면접지침을 선택했다(부록 1 참조). 면접지침의 사용으로 수용적인 응답자와는 다양한 영역을 깊이있게 탐색할 수 있었고, 반면에 인내와 관심이 없거나 다른 시간에 다시 면접하길 희망하는 사람과는 간략히 면접할 수 있었다. 몇가지 경우에는 응답자로부터 보다 철저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 면접지침의 질문순서를 바꾸기도 하였다.

가출청소년의 스트레스적 경험과 배경적 특성에 대한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 상세한 면접지침이 고안되었다. 배경정보로는 나이, 성별, 인종, 가족구조 그리고 가장 빈번한 부모의 훈육방식에 대한 것이 모아졌다. 응답자에게 스트레스와 대처, 지난 4년동안에 일어난 스트레스적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 가출행위를 부추긴 사건 그리고 부모와 청소년갈등의 유형적 범주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어떻게 인지를 하느냐에 따라서 스트레스적 사건은 잘 보상되기도 하고 줄어돌기도 할 것이다. 학교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 여가활동, 앞으로 5년내에 기대되는 생활 목표 등도 조사하였다. 가출사건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가출목적, 가출후 직면한 문제, 가출에 도움을 준 사람과 해를 준 사람에 대한 자료가 모아졌다.

5. 회고적 자료의 확인과 통제

청소년가출을 포함하여, 청소년에 대한 많은 회고적 연구는 기관기록과 관련된 조사에서 당사자에 의한 보고가 최상의 자료를 산출한다고 가정해왔다. 보고된 정보를 사정하거나 타당성을 평가하려는 체계적인 시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출청소년 표본에게는 흔히 면접전 몇일, 몇주일, 혹은 몇달전에 일어난 사건, 상황 그리고 감정을 되새기는 질문을 하기 때문에, 가출자 인식의 신뢰성을 다른 것에서 얻어진 자료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청소년의 인식과 부모의 인식의 일치정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가출청소년과 비가출청소년의 부모 또는 보호자와의 면접을 시도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했다.

기관운영자는 사생활과 비밀에 대한 응답자의 권리가 침해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흔히 조사연구에 있어 그들 클라이언트의 참여를 꺼린다. 또한 기관운영자는 기관의 업무와 클라이언트를 연구하는 “외부”(outside) 연구자에게 위협을 느낀다. 그러한 저항은 이 연구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났다.

6. 연구의 한계

이 연구에서 발견되는 사실을 다른 영역에 일반화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는 가출청소년 30명과 비가출청소년 30명으로 이루어진 60명이란 조그마한 표본에 바탕을 둔다. 가출청소년의 표본은 전문상담을 직접 찾았거나 전문상담에 의뢰된 청소년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위기상태에 있는 모든 가출청소년의 대표라고 보기는 어렵다. 표본에는 그러한 치료를 받으려고 하지 않거나, 사설 치료사를 찾아가는 사람은 포함되어있지 않다. 또한 표본은, 극히 소수의 가출청소년이 New York시에서 뽑혔기 때문에, 모든 교외지역 청소년의 대표라고 보기 어렵다. 끝으로 Long Island에서 주 경계 밖으로 나가서 되돌아오지 않는 청소년을 포함시키는 것은 불가능했다. 왜냐하면 그러한 청소년을 찾는데 필요한 청소년기록의 비밀, 여행의 비용 그리고 제한된 시간때문이었다.

Ⅳ. 청소년, 훈육, 스트레스의 지각

1. 연령과 인종

모든 조사대상자는 백인이고 중산층 가정의 출신이었다. 사회계급은 일반적으로 직업, 교육수준, 소득액 그리고 생활양식으로 측정된다. 생활양식으로 볼 때, 사회계급은 그 가족이 소비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의해서 정의된다(Horton과 Hunt, 1976 : 239). 이 연구에서 60명의 청소년은 모두가 동부 Long Island의 북부해안에 있는 동질적인 지역사회의 출신이기에 중산층처럼 보인다. 다만 4명은 부유한 개인 주택에서 살았다. 그러므로 New York시의 다양한 인구층을 연구한 것이나 Queens County를 연구한 것과 같은 다른 연구에 비추어 볼 때, 이 연구에서의 사회계급은 주요한 변수가 될 수 없다.

가출청소년 2명과 비가출청소년 2명을 제외한 모든 청소년들이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에서 살았다.

가출청소년 30명의 평균연령은 15.76살이다 ; 비가출청소년 30명의 평균연령은 16.03살이다. D'Angelo(1974)의 Ohio주 Columbus연구에서, 그는 가출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15.9살이라고 비슷한 보고를 하였다. 가장 어린 가출청소년은 13살이었는데, 가출자의 2/3는 16살과 17살이었다. 즉 16살 12명, 17살 8명, 15살 6명, 14살 3명이었다.

국가적으로 가출율을 기술하는 자료에서 13살과 14살의 어린 청소년의 가출자 수가 증가한다고 하고(Bayh, 1974 : 159) 12살에서 16살 인구층의 가출자 수가 증가한다고 보고한다(Raab,

1977년 8월 30일, 11월 2일). 그러나 이 자료는 경찰통계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해석되어야 한다. 어린 가출자의 부모는 경찰에 가출신고를 하는 경향이 있고, 경찰도 실제보다 나이가 더 들어보이는 16살과 17살 청소년보다는, 더 나이 어린 청소년을 잡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2. 성 별

가출청소년 표본에서 소녀가 소년보다 더 빈번히 집을 떠나거나 보다 도움을 자주 찾는 것 같다. 소녀와 소년의 비는 2:1이고, 소녀 20명과 소년 10명씩이다. 비슷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도 나타난다(Goldmeier와 Dean, 1973; Foster, 1962; 그리고 Myers, 1977).

비교집단의 성비는 2:1이고 소녀 20명에 소년 10명이다. 11명이 면접을 거부하였는데 그중 9명이 소년이였다. 비가출자는 소녀가 소년보다 면접에 호의적이었다. 소년들이 면접을 꺼리는 이유는 사회사업 연구에의 참여가 남자답지 못하다고 느끼거나, 그들에게 의미없는 사업에 시간을 빼앗기길 원치않기 때문이었다. 가출자중에는 3명만이 면접을 꺼려했는데 소녀 2명, 소년 1명이였다.

3. 가족구조

이 자료는 가출청소년과 비가출청소년이 흠없는 가정과 흠있는 가정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비교하기 위하여 분석되었다. 흠없는 가족은 면접당시 구조적으로 양 생부모로 구성된다. 이 연구에서, 가출청소년의 거의 반은 “결손”(broken)가정이나 재구성된 가정

출신이다. 반면에 비가출청소년은 5명중 1명만이 “결손”가정 출신이었다. 결손가정은 죽음, 이혼, 별거, 혹은 유기 등으로 분열된 경우와 결혼한 적이 없는 편부모인 경우로 정의된다. 재구성된 가정은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부모가 재혼하여 계부(계모)가정인 경우이다.

결손가정이나 재구성된 가정에서 나온 청소년은 가출청소년에게서 과도하게 나타났다. 30명 가출청소년중 거의 반수인 14명이 결손가정(12명) 혹은 재구성된 가정(4명)의 출신이었다. 결국, 생부모가족에 흠이 있을 때, 청소년가출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Shellow, et. al.의 연구(1967)와 일치한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가출청소년의 48%는 흠있는 가정 출신인데 이는 비교집단의 18%만이 결손가정이나 재구성된 가정 출신이었다는 점과 대조되었다.

4. 부모의 훈육

가출청소년과 비가출청소년의 가족관계에 대한 배경 정보를 얻기 위해서 부모의 훈육실제에 대한 정보가 모아졌다. 부모-자녀 관계의 질은 가장 흔히 사용되는 부모의 훈육양식에 대한 청소년의 보고에 의해서 어느정도 밝혀진다. 응답자에게 그들의 부모나 보호자가 가장 흔히 사용하는 훈육양식을 질문하였다. 가출집단에서는 체벌이 비가출집단에서보다 상당히 많이 사용되었다. 가출청소년의 반은 체벌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여 비가출청소년 30명중 2명과 비교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응답자의 편견 때문이라고 일부 설명될 수도 있다. 만약 어떤 청소년을, 가출청소년들이 흔히 부정적으로 낙인 찍히듯이, 부정적으로 낙인 찍지 않는다면, 당사자는 가족과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역으로

만약 어떤 가출청소년이 자신을 “나쁘다”(bad)고 인식하거나 가족문제가 있다고 인식한다면, 그들의 “나쁜”행위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배경을 보고하고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부모가 청소년들을 훈육하는지, 만약 한다면 부모가 가장 흔히 사용하는 훈육양식이 무엇인지를 물었을 때, 가출청소년의 경우 17명은 야단치기, 15명은 체벌, 7명은 “외출금지”(grounding)를 말했고, 4명은 아동보호소(childrens shelter)로 보내겠다는 위협이었다고 했다. 비가출자는 다음과 같은 훈육양식을 보고했다: “설명”(talking things out)(14명), 야단치기(13명), 비판(7명) 그리고 체벌(2명).

체벌: 체벌을 받은 15명의 가출청소년과 2명의 비가출청소년은 체벌에 대한 태도가 매우 다르다. 가출청소년은 맞는 것을 잔인한, 불공정한 그리고 마땅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했다. 학대는 편 부모가정에서 일어나거나, 학대하지않는 한쪽 부모가 학대하는 부모에게 어떤 식으로든 개입하지 않거나 제지하지 않는 가족에서 일어났다. 어떤 경우는 부모 모두가 함께 청소년을 때린 사례도 있었다.

가출청소년집단에서, 부모에 의한 신체적 학대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나는 두시간 늦게 집에 왔는데, 아버지는 나를 한 시간에 4대씩 8대나 때렸다. 나는 온 몸에 멍이 들었다.

— 15살 소녀 —

내가 기억하는 것은 크리스마스 전날 밤이었다(변절전 7개월). 아버지는 술에 취해서 나를 계속 매질했다.

— 16살 소녀 —

내가 어머니 지갑에서 10달러를 훔친 것은 15살 때였는데, 어

머니는 나를 두들겨 찼다.

- 17살 소녀 -

가출청소년 표본은 보복의 두려움 때문에 부모의 신체적 학대 행위를 당국에 신고하는데 주저하는 것처럼 보였다. 16살 소녀의 경험은 이러한 공포를 생생히 보여준다 :

나는 하루종일 야단을 맞고 학교 간호사에게 갔다. 간호사는 내가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간호사는 내 코를 만져보고, 코가 깨졌다는 것을 알았다. 간호사는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고, 나는 어떤 계집애와 싸웠다고 말했다. 간호사는 나에게 몇가지 질문을 하고는 어린 소녀가 그렇게 세게 칠 수는 없을 거라고 말했다. 마침내 나는 울음을 터뜨리면서, 아빠가 때렸다고 말했다. 간호사는 아동학대신고센터에 전화를 걸려고 했으나, 나는 이를 극구 말렸다. 내가 고발했다는 것을 알면 아빠는 나를 죽일지도 몰랐다. 나는 어지러워서 사물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고 균형을 잡을 수 없었다. 간호사는 나를 집으로 보낸 후에 아빠에게 전화를 해서 나를 병원에 데려가도록 했다.

부모가 체벌을 했다고 보고한 2명의 비가출청소년은 흠없는 가족에서 나왔는데, 한쪽 부모 - 어머니 - 가 아버지의 행동을 제지하려고 할 때 어머니를 청소년의 협력자라고 했다. 가출청소년과 달리, 비가출청소년들은 그들이 저지른 잘못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할 것으로 받아들여 체벌을 수용하는 태도를 취했다. 이러한 청소년들은 부모가 자신의 복리에 대해서 돌보고 있고, 체벌도 이러한 보호에서 비롯되었다고 인식했다.

Paul은 비가출청소년인데, 때로는 체벌일지라도 아버지의 처벌을 받아들였다.

내가 집에 한시간 늦게 들어오거나, 혹은 아빠가 잘못되었기 때

문에 말대꾸하면, 아빠는 나를 때렸다. 내가 의자 밑으로 숨어서, 사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아빠는 더욱 화가 나서 내 배를 쳤다.

그는 부모님이 엄격하지만, 자기를 보살핀다고 믿었다. 그는 “나는 부모님이 보호한다는 것을 알아요. 아버지는 나를 돕고 있다고 생각해요.”라고 말했다. 그의 어머니도 엄격하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를 때릴 때 어머니는 그의 편을 든다. 그와 부모사이의 중요한 논쟁중의 하나는 스포츠의 참여와 학교연극에서의 배역이었다. 부모는 이러한 활동이 공부에 지장을 줄 것으로 염려했다. 그는 어머니와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조정했다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예행연습, 1주일에 2번 밤에 합창단 연습 그리고 교내 연극반에 가는 것 만큼 나의 학과에도 충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비가출청소년중 때때로 체벌을 받는다는 다른 한명은 16살 먹은 Pat였다. 그녀도 아버지의 행동을 수용한 것처럼 보였다 :

지난해 나의 어머니는 내가 망나니처럼 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로 속이 뒤집혔다. 어머니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울며 소리쳤고, 아버지도 화가나서 나를 마구 때렸다.

또 다른 경우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학교시험에서 컨닝을 하다가 발각되었는데, 그것은 상당히 큰 소동이였다. 아버지는 나를 마구 때렸고 어머니는 이를 막으려고 애썼다. 나는 내가 맞을 짓을 했다고 생각한다.

외출금지 : 가출청소년의 거의 1/4인 7명은 “외출금지”가 훈육의 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했다 ; 비가출청소년중에서는 1명만이 외출금지가 훈육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했다. 외출금지는 일정기간동안 특정시간에 집에 있도록 하는 것인데, 한 사례를 제

외한 대부분의 경우에 하교 후와 주말동안을 의미한다. 가출청소년집단의 경우에, 외출금지된 사람중 한 소녀만이 친구의 방문이 허용되었다. 다른 모든 사례에서는 어떤 친구의 방문도 허용되지 않았다. 가출청소년들은 부모가 외출금지를 강요하는 방식은 상당히 다양하다고 보고했다. 4명은 며칠내지 일주일동안 외출금지되었다고 한다 ; 한명은 3주동안 금지되었고 ; 두사람은 무한정 외출금지되었다고 한다.

7명의 가출청소년중 5명은 외출금지를 효과적인 훈육형태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그들의 친구들은 “더 나쁜”(worse) 짓을 해도 외출금지된 적이 없고, 또한 부모가 철저히 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이 비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외출금지가 1주일정도 계속되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 처벌은 잊혀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 한 16살 소년은, 그의 부모가 내린 경고를 그들이 철저히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했다 :

엄마는 나에게 석달동안 외출금지를 명하고, 밤에는 전혀 외출을 못하게 하였다. 아빠는 나에게 9시까지의 들어와야 하며 2주동안 외출금지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나는 3주동안 그렇게 하였다.

한 15살 소녀의 아버지는 그녀의 활동을 하루종일 감독할 수 있도록, 학교를 그만 두게 하였다 ;

아빠는 나에게 3주일동안 외출금지 시키셨다. 전화도 못하고, 음악도 못 틀며, TV도 없이 나는 마치 돌처럼 지냈다. 아빠가 일하러 갈 때, 나도 함께 일하러 가야만 했다. 나는 그들(생부와, 같이 사는 여자친구)과 함께 식사할 수 없었다. 나는 내방에서 먹어야만 했고, 손수 설거지를 해야만 했다. 나는 아빠를 따라서 5일동안 일을 나가야만 했는데, 그가 나를 감시할 수 있도록 나는 서서 일을 해야만 했다.

대화, 설명, 그리고/혹은 훈계 : 잘못된 행위에 대한 대화가 비가출자 14명으로부터 보고된 훈육의 한 형태였다. 그러나 가출청소년의 경우는 언급조차 되지않았다. 비가출청소년의 부모는 흔히 청소년들에게 왜 그들이 속이 뒤집히고, 화가 나고, 실망하는지를 설명했다고 보고했다. 한쪽 부모가 꾸중하거나 야단칠 때, 다른쪽 부모는 청소년의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그들이 느끼는 감정을 설명한다. 한 16살 소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들은 항상 나와 이야기한다. 그들은 왜 내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Carol은 17살 소녀인데, 생부와 계모와 함께 살았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를 훈육할 때 대화만을 사용했다고 한다.

아빠는 나를 믿는다. 만약 내가 늦게 들어오고, 아빠가 미칠 지경이 되면 때로는 약간 소리치기도 한다. 그러나 보통 아빠는 그것을 이해해 주고 나와 대화로써 풀어나간다.

Freddy는 15살 소년인데, 어머니와 어린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다. 비록 그의 부모는 1년 이상 별거하고 있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와 가족을 평균적으로 1주일에 두번씩 찾아오고, 아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그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아버지의 접근방법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아빠는 나와 이야기하고 의견을 말한다. 아빠는 예를 들어 말한다. 아빠가 나에게 무언가를 말할 때는 논리적이다.

그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장차 회계사가 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려고 한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을 이해한다는 것을 느끼고, 아버지도 학교에서 잘 지내는 자신을 좋아할 것이라

고 생각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아빠는 나를 좋아한다. 아빠는 학교다닐 때 별로 공부를 잘 하지 못했다. 아빠는 공부해야할 때 게으름을 피운 것 같다. 아빠는 내가 공부 잘 하는 것을 좋아한다.

특권철회 : 부모의 특권철회 혹은 특권철회위협은 비가출청소년 중 7명에 의해서 보고되었는데, 이것은 가출청소년의 9명과 비교된다. 특권의 철회는 흔히 주말밤 TV시청시간을 제한하거나, 청소년들을 스포츠 행사나 친구집에 태워다주는 것을 거부하거나, 한 두 주일동안 용돈을 주지 않는 것을 의미했다. 중요한 행선지로 아이들을 태워다주는 것을 부모가 거부하는 것은 대중교통체계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교외지역에서는 특히 효과적인 처벌방식이 될 것이다.

비평 : 부모의 비평은 비가출청소년의 7명에 의해서 보고되었으며, 가출청소년의 1명에 의해서 보고되었다. 비평은 욕을 하는 것에서부터 청소년의 미래의 복리에 대한 현재의 관심을 깨뜨리는 것까지 다양하다. 다음 두가지 예는 부모의 비평을 예증하고 있다 :

만약 네가 숙제를 하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할 것이다. 대학 들어가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리고 :

그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내가 욕을 할 때마다, 그들은 내가 타락했고 선하지 못하다고 나에게 말한다.

Evelyn은 16살 소녀인데, 평균성적이 92점으로 매우 좋은 점수를 받았다. 그녀는 여가시간에 흔히 독서를 하고, 피아노를 치며, 그림을 그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녀의 아버지는 자신을 비평한

다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나의 아빠는 누구이든, 또 어떤 것이든간에 결코 진실된 감정을 나타내지 않는다. 아빠는 시시하고 하찮은 것을 꼬집기도 하고, 화풀이로 나를 비평하기도 한다.

그녀는 어머니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러한 관계가 아버지의 부정적인 면에 반작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침묵 : 3명의 가출청소년과 1명의 비가출청소년은 그들의 부모가 “침묵”(silent treatment)을 훈육의 한 수단으로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Lauri는 부모가 침묵을 훈육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비가출청소년인데, 그녀는 부모가 보통 그녀에게 관대했다고 느꼈다. 부모가 그녀를 훈육할 때에는, 그들은 침묵을 지키고 그녀에게 용돈을 주지 않는다. 그녀에 따르면 그녀의 어머니는 처벌의 목적을 설명하기도 했다.

나는 네가 한 것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너와 말하고 싶지 않다. 네가 책임질 수 있고, 제시간에 집에 올 수 있거나 늦은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할 수 있으면, 우리는 너와 이야기를 하고, 너에게 용돈을 주겠다.

그녀는 훈육의 결과로 부모에게 복종하지 않은데 대하여 죄책감을 느꼈다고 했다. 침묵을 사용한 가출청소년의 부모는 처벌의 목적과 처벌의 기간을 설명하지 않았다; 대신에 “이 썩을 놈아! 나는 너와 말하기도 싫다”와 같이 품위없는 말을 하였다.

V.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위기대처

지금까지 어느 연구자도 가출청소년이 놓인 위기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적 사건을 사정한 적이 없다. 이러한 위기상태는 흔히 울음, 잠자기와 같은 회피행동을 이끌기도 하고 약물사용, 음주 그리고 가출과 같은 도피행동을 이끌기도 하는 불안, 혼란, 어리둥절, 두려움, 우울 등으로 특징지워질 수 있다.

가출청소년과 비가출청소년의 생활 속에서 스트레스적 사건의 유형과 수의 비교분석: 가출청소년이 비가출청소년보다 스트레스적 사건 혹은 분열적인 사건을 더 많이 겪는지의 여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지난 4년동안 개인과 가족의 스트레스를 18가지 범주로 분석하여 자료를 정리했다. 분석한 바에 의하면, 청소년을 가출로 이끄는 것은 청소년 생활속의 독특한 스트레스적 사건이 아니라 ; 중요한 요인은 사건의 유형과 수라는 것이 밝혀졌다.

스트레스적 사건에 대한 사정이 상대적으로 가까운 과거에 제한될 지라도, 많은 청소년들은 각 사건이 그들에게 준 의미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았다. 이러한 사실은, 위기상태에 있는 클라이언트의 공통된 유형은 그들이 “무작위 기억회고”(random memory recall)를 거친다는 Hansell(1976 : 25~26)의 기록과 일치한다. Aguilera와 Messick(1974 : 67)도 위기에 처한 사람은 그러한 위기를 이끈 스트레스적 사건을 의식하지 못한다고 말하였다. 가출청소년과 비가출청소년의 인식이 선택적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인식의 타당도는 부모와의 면접을 통해서 사정되었다(제 VI 장 참조).

발견된 사실들은 가출행위를 촉진시킨 것이 어떤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고, 몇가지의 스트레스적 사건이 축적되어 청소년 가출

로 이끈다는 것을 알려준다. 특히 30명의 가출 청소년은 면접전 4년동안 총 130건의 스트레스적 사건을 경험했는데 1인당 평균 4.33건을 겪은 셈이었다. 그러나 30명의 비가출청소년은 같은 기간에 총 76건, 1인당 평균 2.53건을 경험했다. 가출청소년중 21명은 1973년에서 1977년 사이에 3가지 이상의 스트레스적 사건을 겪고, 30명의 비가출청소년중 13명은 3가지 이상의 스트레스적 사건을 겪었지만, 그들은 아직 집을 떠나지 않았다.

위기이론가들은 “위기”(crises)를 개인에게 성숙의 기회를 주거나 정서적 외해로 이끄는 전환점이라고 보았다(Caplan, 1964; 그리고 Parad와 Caplan, 1960). 위기에 처한 사람은, 긴장이 지금까지 잠재된 힘과 능력의 동원을 자극할 때, “절정이나 갑작스런 전환점”(peak or sudden turning point)에 이른다(Parad & Caplan, 1960). 스트레스적 사건 18가지 중에서 6가지 사건은 비가출청소년의 보고 건수가 가출청소년의 보고 건수와 같거나 더 많은 것이었다. 그러나 비가출청소년은 분열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 그들은 환각제나 술을 마시지 않았으며 가출을 거의 하지 않았다. 결국 위기사건은 오히려 분열적인 행위를 불러일으키기 보다는 성장을 강화시키고 통합시키기도 한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비가출청소년이 겪은 스트레스를 초래하는 사건은 분열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다. 반면에 가출청소년이 겪은 스트레스적 사건의 쌓인 결과는 분열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가출청소년에 의해서 보고된 스트레스를 초래한 사건의 비율을 분석하면, 다음의 여섯가지 스트레스는 가출청소년들만 직면하게 되었다.

1. 부모의 체벌
2. 부모의 애인이 집으로 들어옴
3. 가정에서 쫓겨남

4. 부모의 죽음
5. 청소년이 약물사용으로 체포됨
6. 청소년이 청소년 보호소에 수용됨

이러한 스트레스는 가족관계를 긴장시키고, 가출청소년의 부정적 행동을 일으킨다. 이와 대조적으로, 다음의 여섯가지 스트레스는 이를 경험한 비가출청소년에게 있어서는 부적응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다.

1. 청소년의 심한 질병이나 입원
2. 부모의 심한 질병이나 입원
3. 부모의 재혼
4. 청소년의 깨진 사랑
5. 조부모의 죽음
6. 다양한 스트레스

비록 이러한 스트레스가 비가출청소년에게 분열적인 결과를 주지 않았지만, 이러한 스트레스는 두집단에서 똑같이 나타나거나 흔히 비가출청소년에게서 더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흠있는 가정에서의 스트레스와 위기 : 가출청소년의 사례 : 부모의 상실로 인한 스트레스에는 흔히 두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상실 그 자체이고, 다른 하나는 죽음, 이혼 혹은 별거를 통하여 나머지 가족이 그러한 상실에 대처하는 방식이다. 죽음이나 이혼 후에 일어난 스트레스적 상황은 청소년에게 죽음이나 이혼 그 자체보다도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 한쪽 부모와 사별한 가출청소년과 몇차례의 면접을 통하여, 남은 부모가 죽음을 자녀의 탓이라고 비난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가족과 같은 사회체제에서 성원의 상실은 가족기능의 원할함을 변화시키고 성원간의 권력관계를 분명히 변화시켰다.

Frankie와 Mike는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어

머니가 그들을 괴롭히는 말을 함으로써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 더했다고 한다. Frankie는 아버지의 갑작스런 심장마비와 죽음으로 충격을 받았는데, 오히려 어머니는 슬픔에 쌓인 그를 위로해 주지 않을 뿐아니라 아버지의 죽음을 그의 탓으로 돌렸다고 했다 :

엄마는 항상 내가(잠시 멈춤) 아빠를 죽였다고 말한다. 아빠의 죽음은 내 탓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엄마는 아빠를 대신해서 내가 죽었어야 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들은(사회봉사부) 나를 집으로 되돌려 보내려고 한다. 그들은 그곳이 내가 보내기에 쓸쓸한 곳이라고 생각한다. 정말이지, 나는 집으로 되돌아 가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 그건 정말 끔찍한 일이다. 나는 위탁가정에 가길 바란다. 나는 집에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차라리 감옥에 가거나 자살하는 편이 낫다... 집에서 사는 것은 어차피 죽은 것과 같다. 엄마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나, 사실은 나를 가혹하게 다룬다.

Mike는 학대받은 적이 있었다 ; 그는 생후 3년동안 생부모로부터 신체적으로 학대당하였다. 8살이 될 때까지 그는 3곳의 위탁가정에서 살았는데, 그곳에서도 신체적으로 학대받고 유기되었다. 그는 비장절제수술(*spleenectomy*)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는 어린 시절에 심하게 매질을 당한 것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는 8살 반 일 때 입양되었다. 그는 양부와 사이가 좋았는데, 양부는 4년전에 간경화증으로 죽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그의 양모는 우울하게 되고 병적이 되어, 양부의 죽음을 그의 탓으로 돌리고 정서적, 신체적 폭력으로 끊임없이 그를 때렸다. 그는 알콜중독자가 되었는데, 14살에 그는 알콜중독과 정서적 문제 때문에 정신병원의 청소년실에 10개월동안 입원하였다. 퇴원후 그는 집으로 되돌아가길 원치 않았고, 정신과의사도 다른 거처가 필요하다고 추천했

다. 이 사례가 사회사업과에 의뢰되었을 때, 개별사회사업가는 그의 어머니를 만났는데, 그녀는 그를 가정에서 떠나 보내는 것에 서명하길 거부했다.

지난 17개월동안, 그는 다섯번이나 가출했다. 그는 가장 최근 경험을 이렇게 말했다.

엄마는 나에게 나가라고 했다. 고함을 치고 나에게 물건을 내던졌다. 엄마는 “네가 네 아빠를 죽였어”라고 계속 말했다. 나는 친구집으로 도망쳤다. 친구는 나를 그곳에 머물도록 해 주었다. 나는 지하실에 숨어 있었다.

그는 그의 친구집에서 5개월동안 머물렀다고 했다. 그는 친구 아버지와의 사이 좋게 지냈고 그들을 도우면서 살았다.

스트레스적 상황은 이혼 후에 지속될 수 있다. 특히 양쪽 부모가 서로 상처를 주거나 적대적일 때 그러하다. 15살 소녀인 Lisa는 아버지와 12살 남동생, 18살 오빠 그리고 아버지의 여자친구와 함께 살았다. 그녀에게는 또한 독립해서 여자친구와 함께 사는 21살인 언니가 있었다. 어느날 밤에 그녀의 어머니가 술을 먹고 찾아왔다. 어머니는 술에 취해 있었는데, 계속해서 논쟁을 하다가, 긴 식칼을 치켜들고 아버지를 뒤쫓아갔다. 그녀는 집을 나와서 언니에게로 갔다. 이것이 그녀에게는 첫번째 가출이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끊임없이 소리치고 명령만 해서 두번째 가출을 했다고 했다. 그녀는 “아빠는 나에게 매일 요리하고 청소할 것을 기대했어요”라고 말했다. 그녀의 아버지와 두번의 면접을 하였다. 두번째 면접 전에 그는 매우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았다. 그것은 18개월 동안 교제해오다 떠나버린 그의 여자친구에 대한 화풀이를 아이들에게 돌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을 이해하지만, 그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우리는 항상 그렇기 때문에 말썽이 생긴다. 우리는 서로 이해하지 못한다. 나는 부모나 다른 사람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이해하지 못한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어렸을 때 처럼.

그에게 “제멋대로 하는 요즘 애들의 태도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도 우리식으로 했다. 그러나 방식이 달랐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그래도 부모를 존경했다. 그러나 오늘날, 아시다시피 내가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화가 난다. 나는 아이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한다. 내가 무언가를 말하면, 내가 이 방식을 바라면 - 내가 옳다고 보는 방식을 바라면 - 대부분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내가 비참해지는 이유이다. 나는 가끔 내 방식이 어리석다고 생각한다. 비록 내가 내 방식을 갖지 못할지라도, 아시다시피 늘 그런 것은 아니다. 나의 여자친구가 떠난 후에, 나는 아이들을 더욱 괴롭혔다. 나는 아이들에게 화풀이를 했다. 실제로 그것은 그들의 탓이라고 말했다. 이것이 내가 아이들을 비난하는 이유이다. 나는 아이들 탓이라고 했다.

흡있는 가정에서의 스트레스 : 비가출 청소년의 사례 : Carol, Freddy 그리고 Janis는 제각기 부모의 별거와 이혼의 스트레스를 경험했고, 아울러 부모의 알콜중독, 낮은 곳에서의 이사 그리고 남은 부모나 남매끼리의 잦은 언쟁과 같은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함께 겪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은 집을 떠나지 않았다.

Carol의 어머니는 알콜중독자였다. 그녀 부모는 그녀가 8살이었던 9년 전에 이혼했다. 그녀와 언니는 아버지와 함께 살았는데, 언니와는 친하게 지냈다. 지난 2년동안 그녀는 새로 결혼한 언니와 형부와 함께 살아야만 했다. 그녀는 그러한 상황이 특히 스트레스받는다는 것을 알았다.

아빠는 집에 오지않고 그의 여자친구와 지냈다. 나는 시샘했다. 나는 형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형부는 Italy 출신인데 감각이 우리와 달라서 매우 불편했다. 나는 언니로부터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언니는 항상 형부 앞에서 나를 깔보았다.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 그녀는 참을 수 없는 상황을 벗어나서 일년동안 숙모와 살았다. 그후 숲을 끊은 어머니와 계부와 함께 5개월 동안 살았다. 그후 그녀는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아버지 집에서 약 1년 반밖에 살지 않았다. 그러나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떠났기에 가출했다고 볼 수 없다.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긴 것은 사전에 계획된 것이다 ; 모두 당사자가 옮기는 것에 동의했고, 그녀의 행동과 감정에 도망자처럼 보이는 것은 없었다.

15살인 Freddy의 부모는 몇달 전에 이혼했다. 지난 4년동안 그의 가족은 세번 이사했다. 마지막 이사는, 그의 부모가 별거한 후에 일어났는데, 이사로 인하여 친한 친구와 헤어져야 했기 때문에 그는 우울했다. 그러나 그는 약 25마일쯤 떨어져 있는 이전 동네 친구들과 자주 전화를 했다. 이혼 전에, 그와 그의 아버지는 친하게 지냈는데 이러한 관계는 별거 후에도 일주일에 2번 정도 씩 전화와 아버지의 방문을 통해서 유지되었다. 그는 그의 부모가 별거할 때 몹시 우울해져서, 평균성적이 90점에서 82점으로 떨어졌다고 보고했다. 그는 “그것은 나쁜 추억이었다. 나는 공부할 수 없었다. 나는 게으름을 피웠다”고 했다. 아버지가 떠난 후에, 그는 또한 어머니와 잘 지내기도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

나의 아빠가 떠날 때, 엄마는 울며 불며 나를 괴롭혔다. 그때 내가 딸대꾸하자 한바탕 큰 소동이 벌어졌다. 그때 엄마는 “가서 네 아빠와 살아라”고 말하였다.

그는 이혼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보다 책임있는 사람이 된 것 같

다고 느꼈다. 그에게 “집을 떠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아니요. 먹을 것과 음악 그리고 모든 것을 갖춘 안식처를 왜 떠나요?”라고 대답했다.

Janis의 부모가 별거할 때, 그녀와 남동생은 엄마와 함께 살았다. 아버지는 알콜중독자였는데, 몇주일 전에 그녀의 부모는 별거했고, 아버지의 미용사업은 파산했다. 별거 전에 그녀의 가족은 매우 멋있고 경제적으로 잘 사는 동네의 큰 저택에서 살았다. 가족이 함께 산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파산으로 생활양식을 바꾸어야만 했다. 그녀의 가족은 집을 잃고, 예전의 생활양식도 잃었으며, 어머니는 일을 나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절박한 재정적 곤란 때문에 그녀의 어머니는 아버지가 파산하기 1년전부터 전일제로 일하였다. 그녀에게 그의 아버지는 원망의 대상이었다 :

나는 아빠를 원망했다. 그후 나는 죄의식을 느꼈다. 우리는 많은 돈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현재는 없다. 그래서 원망한다. 우리는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나는 어머니가 일하는 것을 본다.

그녀는 아버지의 알콜중독에 대해서 회미하게 기억한다. 아버지가 술에 취하면, 그의 술주정은 아이들보다는 아내에게 향했던 것 같다. 왜냐하면 그녀는 아버지가 자기에게 나쁘게 대한 것을 기억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그녀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상스러운 말”(foul mouth)을 한 적이 있다고 했다. 약 1년전에, 그녀가 술에 취해서 집에 왔을 때 어머니가 화를 냈다. 그녀는 어머니가 “불같이 화를 내며, 때려서 나는 잠자러 갔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어머니가 나쁜 뜻을 가지고 그녀를 때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어머니는 화를 내며 나를 때렸다. 나의 아버지도 그렇게 술을 마시곤 하셨다. 내가 술을 마실 때 어머니가 왜 속상해 하는지 나

는 알 수 있다.

그녀는 가출을 생각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별거로 인한 어머니의 재정적 어려움은 그녀에게 예산과 돈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준 것 같다. 이혼에 대처하는 그녀의 능력은 어머니와의 밀접한 관계에 의해서 유지된 것처럼 보이고, 어머니와의 관계는 이혼 후에 더욱 강해졌다. 그녀는 어머니와 서로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좋게 느낀다.

흠없는 가정에서의 위기 : 가출청소년의 사례 : 청소년의 삶 속에서의 위기는 결혼 가정에서 일어나는 상황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Lynn, Peter 그리고 Kathy는 부모의 결혼은 법적으로 흠이 없지만 가족이 큰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가정출신의 가출청소년이었다.

17살 소녀인 Lynn은 가출한 경험이 세번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5달동안 실업자로 있다고 했다. 그녀는 첫번째 가출은 남자친구와의 관계로 부모가 그녀를 1주일 동안 외출금지 시켰기때문에 일어났다고 했다.

나의 부모는 6달동안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와 헤어지라고 했다.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은 했으나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러한 생각이 나의 마음속에 계속 있었다. 나는 그것 때문에 부모를 경멸했고, 부모에게 항상 반항하려 했다.

그녀는 귀가시간을 두시간이나 지나서 집에 돌아왔기 때문에 또다시 외출금지되었다. 그녀가 불공정한 처벌이라고 여기는 것을 부모가 강요하면, 그녀는 달아났다. 그녀는 학교 교과목중 2 과목에서 과락한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손찌검을 하자, 6주전에 또 다시 “집을 떠났다”(splitting)고 했다. 그녀에 따르면:

나의 아버지는 항상 나의 등 뒤에서 험담을 하고, 나는 부모에게 소리친다. 나는 항상 벌을 받거나 뺨을 맞았다.

Peter는 그를 떠나게 한 것은 그의 가정 분위기 — 아버지의 병환과 그에 따른 강한 종교적 신념에의 개종 — 이라고 했다 :

지난해, 아버지는 신경통 때문에 척추 수술을 받았다. 이제 그는 오른쪽 팔을 50% 정도 사용하고, 디스크에 걸려있으며, 2인치 정도 키가 작아졌다. 가족들은 예수에 미쳐 항상 기도회에 나간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아버지는 항상 나를 광신자로 만들려고 했다. 그는 항상 내 방을 살살이 뒤지고, 나를 외출금지시킨다. 나의 어머니는 나에게 내 마음을 찾으라고 말한다. — “너는 죄인이고 벌을 받아 마땅하다.”

종교적 신념에 대한 논쟁은 두명의 가출청소년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했다 ; 그러나 그의 경우, 열렬한 신자는 그의 부모였고, 그는 회의론자였다.

Kathy의 경우, 그녀는 종교에 매우 관심이 많은데 반하여 그녀의 부모들이 그녀의 진실을 의심하였다. 그녀는 끊임없는 위기상태 — 즉 끊임없는 파괴적인 갈등과 긴장으로 특징지워지는 — 에 있는 가출자 중의 한사람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New York시 경찰관으로서 많은 표창을 받은 사람이었다. 불행하게도, 그녀에 따르면, 그는 알콜중독자이고, 집에 있을 때는 늘 그녀를 비판하고 귀찮게 군다고 했다. 그녀의 학교성적은 평균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그녀가 게으르다고 늘상 말했기 때문에, 그녀는 “세뇌당한”(brain washed) 것처럼 느꼈다. 한번은 가족이 친척을 방문했을 때, 그녀는 부모가 친척들에게 그녀는 게으르고 “성질이 지랄같다”(throws temper tantrums)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녀는 6남매중에서 맏인데, 그녀가 보기에 그녀와 부모사이에 갈등의 근

원은 다음과 같다고 했다 :

아버지는 책을 읽는 나를 비웃는다. 아버지는 고등학교를 중퇴했다. 나의 학업 성적은 좋다... 아버지는 내가 그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열등감을 느낀다. 모든 자식들이 Little League에 서명을 하였으나 나는 결코 서명하지 않았다. 모두들 아버지와 함께 가라데 훈련에 간다. 아빠가 한다면 모두들 따라서 할 것이다. 나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부모는 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 나는 종교반에 참석했다. 부모는 내가 이웃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종교반에 나간다고 생각했다. 부모는 신앙심 없이 단지 체면 때문에 교회에 나갈 뿐이다.

그녀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서 느끼는 화를 딸인 자신에게 화풀이를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스트레스를 느꼈다. 그녀에 따르면;

아버지는 어머니를 추한 노파라고 부르고, 그녀를 떠나보내고 싶다고 말한다. 아버지는 때때로 여자친구를 사귄다. 몇년전에 아버지는 나에게 Macy 백화점에서 일하는 그의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준 적이 있었다. 어머니는 내 뺨을 치거나 때리곤 했다. 지난번에는 어머니가 구두로 내 머리를 때렸다. 나는 마루에서 일어나서 어머니를 발로 차고, 때린 후에 달아났다.

맨 처음 가출때, 그녀는 여자친구 집에서 하루밤을 잤다. 약 두 달후에 그녀는 또가출을 하였는데, 다른 친구집으로 갔고, 그 다음날 스스로 집으로 되돌아왔다. 그녀와 부모 사이에 언쟁은 계속되었다. 끝으로 그녀는 학교 상담원에게 갔는데, 상담원은 그녀를 지역 청소년상담센터로 보냈다. 센터에서도 이틀동안 일시 위탁가정에서 지내게 하고, 부모와 함께 살도록 그녀와 부모를 설득하였다. 일주일안에, 그녀의 부모는 그녀를 할머니와 함께 살도록 New Jersey로 보냈다; 그녀는 그곳에서 16개월동안 살았다. 먼

집 당시 그녀는 부모의 허락을 받고, 8개월 동안 그녀의 친구집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녀와 어머니는 같은 진료소에서 함께 정신치료를 받았다. 아버지는 치료에 참여하길 거부했다. 그녀는 생활속의 많은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

나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려 했다. 나는 즐거웠던 날만을 생각하려 했다 — 새로운 친구를 사귀거나, 누군가와 영화를 보러가고 정말로 즐거웠던 날. 부모가 나에게 싸움을 걸려고 하면, 나는 그것을 피해 나와서 친구와 이야기했다. 때로는 나는 싸우거나 기탄없이 얘기하려 했다. 어머니가 나를 꾸중하고 때리면, 집을 빠져 나와서 친구집으로 갔다.

그녀의 가족갈등은 대부분의 비가출청소년의 가족갈등보다 강도가 심한 것처럼 보인다 ; 그렇지만 그녀의 대처기제는 스트레스에 쌓인 비가출청소년의 대처기제와 크게 다르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그녀는 부모가 그녀를 학대할 때 친구집에 머무르면서 가족갈등과 긴장을 일시적으로 누그러뜨려왔다. 그녀와 비가출청소년과의 주된 차이는 애초에 부모의 허락없이 하루밤을 보냈다는 것이다. 결국 그녀는 할머니집과 친구집에 오래 있을 때에는 부모의 허락을 받았다.

강한 스트레스속에 있는 흠없는 가정의 비가출청소년의 두가지 사례 : JoAnn과 Sheila는 매우 말 많은 소녀였는데, 집에서 온갖 스트레스들을 겪고도 가출하지 않고 환경에 적응했던 것을 상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16살 소녀인 JoAnn은 많은 스트레스에 대처해야 한다. 그녀는 3남매중 막내인데 모두 함께 살고 있다. 언니는 21살이고 근처에 있는 대학교의 4학년생이고, 그녀와는 매우 친하다. 오빠는 30살

이고, 정신지체이며 수위로 일하고 있다. 그녀의 어머니는 네차페의 심장발작을 일으켰다; 처음의 심장발작은 그녀가 10살 때였는데, 그녀는 두달 동안 아주머니와 살아야만 했다. 가장 최근의 발병은 1976년 여름에 일어났다. 약 3년반 전에 어머니는 머리속의 “혹” 때문에 입원해야 했는데, 후에 피덩어리로 진단되었다.

그녀는 어머니가 신경질적이고 잔소리가 많다고 느꼈다. “코오트 입고 밖에 나가라. 코오트 가지고 가라. 열쇠 잊지 말아라. 열쇠 챙겼니?”

그녀는 심한 편두통의 병력이 있는데, 2년전에 2주일동안 입원해서 힘든 진단검사(예를들면, 뇌파검사, X-레이 검사, 척수액 검사)를 받았다. 그녀는 그중 하나는 정말 참기 어려웠다고 회상한다:

나는 시약을 참을 수 없었다. 그들은 나에게 붉은색 시약을 먹게 했다. 나는 어지럽고 메스꺼웠다. 그들은 나를 침대에 눕게 했고, 다음날도 다시 하도록 했다.

검사결과가 나빴다. 그녀는 여전히 편두통으로 고생하고 있다.

그녀와 언니와의 관계는 그녀가 mononucleosis병 때문에 수업을 많이 빼먹게 되었을 때 더욱 가까워졌다. 그녀의 역사선생님은 그녀가 성적이 나쁘고 결석이 너무 잦아서 역사과목은 낙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때 그녀의 어머니는 입원중이었는데, 언니가 학교에 가서 역사선생님과 교장선생님에게 그녀의 사정을 이야기하여 낙제를 면하게 하였다.

그녀에 따르면, 그녀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스스로 “그 문제를 분석했다.” 그녀는 결코 가출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스트레스에 대한 그녀의 반응은 스트레스를 내면화시키면서 결국 편두통으로 발전되었다; 다른 청소년들은

그들의 문제로부터 벗어남으로써 긴장을 외면화시킨다. 몇몇 임상 전문가들은 편두통을 부정적인 정서와 스트레스에서 야기되는 정신신체적 상태로 간주하여 왔다(Lachman, 1972 : 85 ; 그리고 McQuade & Aikman, 1974 : 39~40).

Sheila는 17살 소녀인데, 그녀의 어머니는 궤양으로, 수술받아 위와 비장의 일부만 지니고 있다 ; 어머니는 5주동안 입원했었다. 아버지의 사업은 약 3년전에 파산했고, 약 7개월전부터 실업상태에 있다. 1년전에 그녀의 한 친구가 오토바이 사고로 죽었다. 모든 가족이 할머니가 암 때문에 그녀의 집으로 요양하러 왔을 때 스트레스에 휩싸였다. 가족들은 할머니의 건강상태가 점차 악화져 가는 것을 보았고, 결국 2년전에 할머니는 돌아가셨다.

그녀는 어머니와 자주 다투는데 주로 그녀의 남자친구 때문이라고 했다. 그녀는, 어머니가 “내가 하는 것은 모두 남자친구인 Steve 탓으로 돌린다”라고 느꼈다. 어머니도 또한 그녀와 Steve 간의 성관계에 대해서 속상해하고 딸에게 “나가서 Steve와 살아라”하고 말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그녀의 부모는 그녀가 더 많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고, 남자친구와 헤어지길 바란다. 그녀는 부모와 언쟁을 벌일 때, 부모의 반응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부모는 나를 잘못 키웠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내가 타락했다고 말한다.

그녀는 어머니가 자신을 “못살게 굴기” 때문에 집을 떠날까도 생각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가솔은 “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내가 되돌아온다 해도 문제는 항상 그곳에 남아 있을 것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한다. 욕구좌절과 스트레스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녀는 다음과 같이 시도한다고 말했다 :

스스로 생각한다 ;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다가 결국은 지쳐버린다. 그러나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를 것이라고 다짐한다.

그녀는 또한 남자친구를 믿고, 학교활동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갈등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한다. 그녀는 또한 1주일에 몇일은 지방 슈퍼마켓에서 계산원으로 일했다.

1. 대처기술

사람은 일상적인 행동유형을 사용하여 내적 긴장과 외적 스트레스간의 균형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에 직면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스트레스는 이미 학습된 다양한 문제해결 방법과 대처방법에 의해서 해결된다. 어떤 사람이 이미 학습된 대처방법에 의해서 해결할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때, 그 사람은 급속히 위기상태에 빠지게 된다.

대처는 잠재적 위협, 도전 혹은 만족을 포함한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적응행동의 과정이라고 여겨질 수 있다(Coelho, et. al., Lazarus, Murphy, 그리고 White). 대처는 개인이 자신의 자원에 대해서 잠재적으로 위협적이고 부담된다고 생각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떤 개인에 의해서 행해지는 문제해결 노력”이라고 정의된다(Lazarus, et. al., 1974 : 250~251).

가출청소년과 비가출청소년이 스트레스적 또는 위협적인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대다수의 비가출청소년들은 안정상태나 균형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처기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가출청소년들은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문제해결 방법을 성공적으로 사용했다. 그들은 가까운 친척,

윗 형제 혹은 전문적인 상담원과 같은 의미있는 다른 사람과 대인 관계적 친밀성을 유지했다. 결국 그들은 코카인, PCP 그리고 LSD와 같은 약물을 사용하지 않았다.

가출청소년 30명에게 물었다: “당신이 스트레스적 상황이나 어려운 문제에 처할 때, 당신은 스스로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모든 가출청소년이 “있다”라고 대답했다. “당신은 어떤 방식으로 스스로를 도울 수 있습니까?”라고 물었는데, 대부분(25명)은 약물이나, 알코올을 택하거나(9명), 일시적으로 집을 떠나거나(4명), 울부짖거나(4명), 자살을 시도하거나(2명), 잠자기(2명), 잊어버리기(2명) 그리고 가출(2명)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고 대답했다. 5명만이 그 문제를 다른 사람과 이야기함으로써 위협적인 상황에 대처하려고 한다고 했다.

가출 청소년들은 다음과 같이 부정적인 도피행동을 묘사했다:

나는 아스피린 한 병을 먹고 몽롱한 상태에서, 파티에 나갔고,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손목을 베었다.

— 15살 소녀 —

나는 집을 나와서 취하도록 술을 마셨다.

— 16살 소년 —

나는 스스로 취하게 한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침착해진다.

— 15살 소년 —

한 소년은 LSD(acid)를 먹고 “기분 좋게 취하기”(turn on)도 하고 150번 “환각경험”(trips)을 했다고 한다. 그는 매주 몇번이나 대마초를 피우고, 한때는 코카인을 빨고 Darvon을 “마시기”도 했다고 했다. 그 소년은 Darvon 캡슐을 열어서, 3~4개를 알코올 음료에 넣어서 마신다고 설명했다.

가출청소년 표본의 경우, 83%가 스트레스를 다룰 때 부적응적

수단을 사용했는데, 반대로 비가출청소년의 80%인 24명은 문제 해결과정의 방법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한다고 했다. 비가출청소년들은 “철저히 생각하기”(8명), 생각해 본 후에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와 대화(4명), 친구와 대화(6명), 어머니와 친구와의 대화(1명), 어머니와 대화(1명), 형(오빠)과 대화하고 심사숙고하기(11명), 글쓰기(3명) 등을 했다.

비가출청소년들이 스트레스적 상황에서 사용한 긍정적이며 적응적인 문제해결 과정은 다음과 같다 :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한다. 그리고 스스로 문제를 명확히 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함으로써 일을 처리하려고 한다. 그들이 말하는 것을 경청해야 한다.

나는 모든 일을 일기장에 쓴다. 불행하거나 슬픈 감정을 발산시킬으로써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다.

문제에 따라서 단순히 혼자 있으며 생각하고 때때로 글로 씌으로써 도움이 된다. 그러나 큰 문제에 처할 때는, 누군가에게 상황에 대한 나의 참된 감정을 말함으로써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한 16살 가출소녀는 문제에 부딪힐 때, 어머니나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느꼈다 :

그들이 들어만 주어도, 이야기하고 생각만 해도,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

가출이 하나의 적응적인 대처방법인지 부적응적인 대처방법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질문이 필요하다 : 가출청소년은 그들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극단적이지 않은 방법을 시도해 보지 않고, 충동적으로 뛰쳐 나왔는가? 그들은 먼저 이미 학습된 대처 방법으로는 문제해결을 시도했으나 후에 성공하지 못하였는가?

가출청소년들이 가출전에 사용한 대처기제는 비가출청소년에 의해서 성공적으로 사용된 적응방법과 대조적이다. 가출청소년의 다수 - 17명 - 는 철퇴, 반항, 혹은 일시적으로 집을 떠나기 등 일시적으로 문제를 피하거나 심사숙고, 친구와의 이야기 등과 같은 긍정적인 문제해결을 시도하였다. 가출청소년중 11명은 가출전에 부적응적인 도피형태의 행동을 사용했다. 11명중 2명은 자주 약을 먹거나 심하게 취해서 손목을 베어서 자살을 시도했다. 다른 9명도 자주 약을 먹거나 심하게 술을 마셨다. 가출청소년중 2명은 단 하나뿐인 대처방법이 가출이라고 보고했다.

가출청소년과는 달리 비가출청소년은 대처의 한 형태로서 자살 시도나 가출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단지 한사람만이 맥주를 마시고, 흥분제와 LSD를 먹은 적이 있다고 했다. 이러한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가출청소년과 비가출청소년은 모두 처음부터 혹은 독점적으로 가장 격렬한 대처양식만을 쉽게 취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 그들은 모두 이미 알고 있는 대처기제를 먼저 시도하곤 했다.

2. 촉발사건

가출청소년은 모두 한쪽 부모와 양쪽 부모에 대한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가출했다고 했다.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에 대해 설명하면서, 가출청소년들은 그들이 집을 떠나도록 방아쇠를 당겼다고 느끼는 “결정적인 사건”(last straw)을 말해 주었다. 촉발사건에는 부모로부터 불공정한 처우, 구타, 꾸중, 모욕 그리고 쫓겨남 등이 있었다.

30명의 가출청소년중 10명은 부모로부터 불공정한 처우를 받았다고 했다. 12명은 부모와의 끊임없는 말다툼과 갈등으로 가출하

였다고 했다. 부모들은 흔히 자녀를 꾸중한다. 또한 아이들의 옷을 마루바닥에다 집어던지고, 벽에 걸린 자녀의 그림을 찢어버리며, 자식들이 개인적으로 애지중지하는 레코드나 테이프를 깨뜨려 버렸다; 한 경우에는 어머니가 딸 면전에서 “문을 탕 닫았다”고 비난 받았다. 6명의 “결정적인 사건”은 신체적 학대의 고통이었고, 나머지 2명은 또 구타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가출했다고 했다.

3. 신체적 학대

가출청소년의 반은 그들의 부모가 흔히 때리면서 훈계를 한다고 했지만, 부모의 매질 때문에 가출했다는 사람은 6명에 불과했다. 신체적 학대의 역사는 모든 가출청소년을 가출하게끔 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출청소년은 신체적 학대를 의식하지 못하거나 말하지 않았다. 몇몇 청소년은 부모가 했던 매질의 빈도와 양을 과장하기도 했는데, 가출청소년들은 신체적 아픔 보다 감정적 고통을 못참았다.

14살 가출소녀인 Catherine은 위탁가정에서 살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얼마나 자신을 학대해 왔는지 다음과 같이 말했다 :

내가 11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는 나를 성적으로 학대하기 시작했다. 내 생각으로는 어머니의 고혈압 때문이라고 본다. 남동생 Joey는 소리를 쳐서 나를 도와주려 했고 도와도 주었다... 아버지는 나에게 흥분제를 억지로 먹였다. 어머니는 알지 못했다. 어머니는 밖에 나가 있었다. 아버지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면 나를 죽이겠다고 했다. 나의 학교 성적이 나쁘면 아버지는 나를 밤새도록 못자게하고 때렸다. 아버지는 나의 배를 쳤다.

그녀는 집에서 뛰쳐 나와서 한 친구집에 머물렀다. 그녀에게 가

출은 생존을 위한 길처럼 보인다.

15살 소년인 Johnny는 2년동안 아버지와 살았다. 부모는 이혼했고, 알콜중독자인 아버지는 그를 마당으로 쫓아내서 까무라칠 때까지 쫓아다니게 시켰다. 주정뱅이 아버지의 신체적 학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는 가출했다. 거리를 방황하는 동안에, 그는 밤에 세탁실, 자전거 보관소, 빈 차 등 눈에 띄는대로 일시적인 거처에서 잠을 잤다. 아버지가 간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의 어머니는 자기와 함께 사는 것에 동의했다.

15살 소녀인 Allison은 무기한의 감금과 함께 신체적 학대의 두려움 때문에 가출했다고 했다. 그녀의 부모는 8년전에 이혼했다. 이혼 전에 아버지는 아내를 때린 죄로 체포되었다. 그녀는 4남매 중에서 맏이었다. 그녀를 제외한 3남매는 모두 재혼한 생모와 함께 살고있다. 그러나 별 이유없이, 그녀는 어머니와 새아버지의 집에서 함께 살길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가, 그녀가 18살이 될 때까지는 남자친구와 데이트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두번 가출한 적이 있다고 했다. 그녀는 처음 두번은 집을 뛰쳐 나와서 친구집으로 갔는데, 그때마다 아버지가 2~3일 안에 찾아냈다. 아버지는 그녀를 집으로 데려가서, 매질을 하여 훈계하고 그녀의 방에 감금시켰다.

그녀의 세번째 가출은 학교에서 두명의 학생이 그녀가 대마초를 피운다고 교감선생님에게 고자질 했을 때 일어났다. 교감선생님은 그녀를 교감실로 불러서, 지갑을 뒤져서, 대마초를 찾아냈다. 그리고 교감선생님은 집으로 전화를 해서 그녀의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아버지의 여자친구에게 그녀를 데려가도록 했다. 아버지가 직장에서 돌아오자, 아버지는 예전처럼 그녀를 때리고; 무기한 감금시켰다. 그녀는 그날밤 2시 30분에 도망쳐 나왔다. 그녀의 세번째이자 마지막 가출은 더 많은 매질과 계속된 외출금지의

두려움 때문에 일어났다. 그녀는 집단가정에서 살고 있었다.

불공정한 처우: 가출청소년은 흔히 부모의 “불공정한 처우”를 말했다. Melissa는 언니의 생활에서 압력을 느꼈다 :

18살인 언니 Connie와 어머니는 사이가 좋다. 언니는 뛰어난 운동선수인데, 농구, 필드하키, 풋볼, 트랙팀에서 활약한다. 언니는 일등을 한다. 언니는 어머니가 모든 점에서 그녀에게 관심을 갖게 한다. 학교성적은 우수하지만, 어머니와 아버지는 나의 태도를 좋아하지 않는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안내인이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바라는 모든 것에 동의한다. 어머니는 나에게 운동을 시키려고 한다. 나는 혼자 있길 좋아해서, 어머니를 꺼린다. 어머니는 더이상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나를 아동 보호소(*children's shelter*)로 보내겠다고 위협했다. 어머니는 나에게, 내가 모든 사람을 불편하게 한다고 말했다. 뛰어난 선수인 언니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녀는 부모가 자신과 언니사이의 경쟁에 관심이 없고, 사랑받고 싶다는 그녀의 욕구를 무시했다고 생각한다. 그녀의 첫번째 가출은 부모가 주말에 집을 떠났을 때 일어났다. 그녀는 부모에게 학급여행으로 New Jersey주 Wildwood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에 그녀는 기차를 타고 New York시로 갔는데, 그곳에서 “진정제”(downers)를 너무 많이 먹었다고 했다. 그녀는 경찰에 발견되어,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곳에서 약 1주일 정도 머물렀다. 집에 되돌아온 후에는 어머니와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그녀는 어머니가 자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딸이 약물을 소지하고 있으므로 경찰에게 신고하겠다고 위협했다고 말했다. 이 위협 때문에 그녀는 이웃에 있는 친구집으로 도망갔다. 친구 어머니는 그녀의 어머니에게 그녀의 소재를 알려주었다. 그후 그녀는 가출행동과 약물문제 때문에 상담을 받기 위해서 단기 집단가정

에 수용되었다.

Donna는 그녀의 부모가 자신의 자유를 극심하게 제약하고 친구 만나는 것까지 규제한다고 했다. 아버지는 알콜중독에서 벗어난 사람으로써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단주동맹 모임(*Alcoholics Anonymous*)에 가거나 밤새 친구와 어울린다. 어머니는 매우 뚱뚱한데, 시간제 일이 끝나면 절식동맹 모임(*Overeaters Anonymous*)에 간다고 한다. 15살 소녀인 그녀는 거의 매일밤과 주말에 여동생 한명과 두명의 남동생을 돌보아야 한다. 어머니는 그녀가 아이들을 돌보는 동안 친구를 불러 들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

부모님은 사이가 좋지 않았대요. 부모님은 나를 새장속에 가두어 두려했고 나는 담을 뚫 수 없었대요. 그래서 나는 뛰쳐 나왔대요.

말다툼 : 청소년이 부모와 하는 말다툼은 가정마다 크게 다를 수 있다. 이전의 말다툼의 성질과 횟수 그리고 기질에 따라서, 새로운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가치관의 차이와 부모의 긴 실업기간이 다음 두 경우에 말다툼을 심화시켰다.

Tom에 따르면, 그의 가족과의 말다툼은 여자친구와의 관계에 관한 것이었다 :

나는 유태인인 Rochelle와 사이좋게 지냈대요. 부모님은 모든 유태인을 저주했대요... 아버지는 나를 집 밖으로 못나가도록 했대요. 아버지는 술을 마시고 나를 마구 때려서 나는 아버지를 때렸대요. 아버지는 경찰을 불러서 내가 거칠게 굴었다고 나를 고소하겠다고 했대요. 경찰은 고소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대요. 나는 아버지를 아동학대로 고소하겠다고 말했대요. 경찰은 원한다면 우리가 가정법원으로 가야만 한다고 말했대요. 아버지는 가지 않겠다고 했대요. 나는 아버지와 밤새 다투었대요.

다음날인 토요일 오전 8시 30분에 그는 집을 떠났다.

Rita의 아버지는 거의 2년동안 실업상태에 있었다. 사춘기 소녀인 그녀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화를 내고 아버지를 무시하는 것을 보아왔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어머니는 나에게 좋은 옷을 입으라고 소리쳤다. 왜냐하면 우리 집을 보러온 사람들이 내가 가난뱅이처럼 옷을 입고 있으면 우리 집을 사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부잣집 출신이어서 사치스럽게 살았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늘 싸웠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남자라면 가족을 돌볼 수 있어야죠.” 가계의 어려움 때문에 가정에서 긴장이 매우 컸다… 나와 어머니는 싸웠고, 어머니는 “이 집에서 살고 싶지 않으면 나가버려”라고 말했다. 나는 New York시에 있는 사촌 집에 가서 2주일 정도 지냈다… 한주일 후에 삼촌이 사촌을 만나러 와서 내가 그곳에 있는 것을 알고 부모님께 알려주었다. 어머니는 전화로 사과하고 집으로 돌아오도록 권유했다. 나는 사흘 후에 되돌아 왔다.

4. 부모—청소년 갈등 연속체

이 연구에서, 30명의 가출청소년은 공통적으로 세가지 경험을 했다 : 가출청소년은 가족관련문제를 가졌다 ; 가출청소년은 낙제, 수업 빼먹기, 무단결석 그리고 정학 등으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학교에서 실패를 경험했다 ; 가출청소년은 흔히 약물을 “남용”(wasted)하거나 술을 마셨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약물에서 가출청소년의 문제 정도는 30사례 중에서 부모—청소년 갈등의 연속체로 파악된다.

〈표 1〉은 5점척도에 따른 가출청소년의 정서적 갈등연속체를

나타낸다 ; 각점의 한계는 선택적이고, 이 연구의 표본집단에서 얻은 자료에 제한된다.

〈표 1〉 부모-청소년 갈등 연속체의 형성

0	1+	2+	3+	4+
비가출청소년	가출 탐험가 & 가출 사고추구자	가출 조작자	가출 피난자	위기에 처한 가출청소년

0에서 1단계 - 비가출청소년은 부모와 청소년자녀간에 갈등이 크지 않았고, 어떤 갈등이 일어나도 청소년이 가출하지 않고도 해결된다. 어떤 청소년은 자신의 독립을 과시하기 위해서 혼자 혹은 친구들과 여행하길 바란다. 그러나 비가출청소년은 부모와 상의하여 여행을 떠나고, 독단적으로 집을 떠나지는 않는다. 상의하는 방법은 청소년의 연령에 크게 좌우되고, 청소년의 능력과 성숙에 대한 부모의 인식에 따라서 달라진다. 17살 청소년의 부모에게 수용되는 것이 13살 청소년의 부모에게는 수용되지 않을 지도 모른다.

이 연구에서, 비가출청소년중 14명은 부모와 여행계획을 상의한 적이 있다고 했다. 보통 부모는 청소년자녀가 여행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간제일로 벌도록하며 ; 번돈을 여행경비로 쓰는 것에 동의했다.

또한 부모는 청소년자녀가 보호자(Chaperon)가 있는 가운데에서 독립심을 느낄 수 있는, 지도자가 있는 집단여행에 참가하도록 권장한다. 부모는 청소년자녀가 “청소년 여행”(Teen Tours)에 가거나, 학교, 청소년센터, 교회 청년부 등이 주관하는 여행에 참가하도록 지원한다. 청소년들은 한명이나 더 많은 친한 친구와 여행을 계획하기도 하는데 부모의 허락을 받고 여행한다.

때때로 부모는 청소년자녀가 스스로 시외에 있는 친척집을 방문하도록 주선하거나, 온가족이 여행을 떠나서, 그중 일부시간은 청소년들이 자유스럽게 지역을 탐방하도록 한 후에 저녁식사 시간에 온가족이 모이거나 밤에 숙소에서 모이도록 한다.

1+ 단계 - 가출 탐험가와 가출 사교추구자 : 탐험가의 특성은 가출을 촉발시킨 요인이 부모의 불공정한 처우라고 말한 두명의 가출청소년의 면접에서 나타났다. 더 많은 정보는 이 연구의 표본인 한 소녀의 남자친구에게서 얻었다. 이 친구는 집을 떠나서 성공적으로 Florida로 온 탐험가이다. 그러나 그는 가출보호소에 의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사연구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탐험가는 모험심 때문에 그리고 독립을 과시하기 위하여 혼자 혹은 때때로 친구와 함께 여행하고자 갈망한다. 흔히 청소년은 부모에게 여행의사를 알리지만, 부모는 자녀가 그런 일을 하기에는 너무 어리다고 느끼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면 청소년은 허락받지 않고 집을 떠난다. 일반적으로 탐험가는 자신이 떠난다는 메로를 부모에게 남기거나, 떠난후 24시간에서 48시간 안에 전화를 걸어서 부모에게 안부를 전하고 안심시킨다. 경찰은, 가출청소년 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동차에 편승하는 청소년을 늘 주시한다. 경찰에게 발견되지 않거나 곧장 부모에게 되돌아가지 않으면, 탐험가는 일반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스스로 부모와 연락을 하여 집으로 되돌아온다.

사교추구자 : 사교추구자의 특성은 이 연구에서 4명의 가출청소년과의 면접에서 추출되었다. 사교추구자는 흔히 소녀인데, 그녀는 어떤 소년과의 데이트, 이른 토요일밤의 귀가시간, 특별한 행사에 가지 못하도록 하는 외출금지와 같이 어떤 중요한 문제에서 부모와 갈등을 겪는다. 갈등이 있기 전에는 흔히 소녀는 부모와 상대적으로 사이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소녀는 스스로의 길을 결심한다. 일반적으로 사교추구자는 집을 살짝 빠져나오거나 친구를 만나러 가는 체하여 집을 나와서 부모가 말렸던 바로 그 활동에 참여한다. 그리고 나서 침실로 슬그머니 되돌아오거나 잠깐동안 친구집에 머무른다. 친구집에 있을 때는, 소녀는 밤늦게 혹은 새벽에 지난 일들을 설명하기 위하여 부모에게 전화를 건다.

사교추구자로 성격 지워진 4명의 가출청소년은 적어도 24시간 이상동안 집을 떠나있었다. 그러나 비가출청소년의 표본에서도 2명의 소녀는 사교추구자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2명 모두 어떤 사교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부모의 허락없이 집을 나갔다. 그러나 부재한 시간이 24시간 미만이었다. 그중 한 소녀는 부모의 눈에 띄이지 않고 집에 되돌아올 수 있었다. 다른 한 소녀의 부모는 딸이 없어진 것을 알고, 그녀를 찾아서, 집으로 데려왔다. 두 소녀는 집에 없었던 시간이 24시간 미만이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취한 가출청소년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

첫번째 가출에 대한 부모의 반응과 미래의 갈등을 다루는 가족의 방법에 따라서, 가출은 더욱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는 가출조작자라고 생각할 수 있다.

2+ 단계 - 가출 조작자 : 가출조작자에게는 부모와 청소년자녀간의 갈등이 많은 면에서 있다. 4명의 가출청소년은 부모와 유사한 유형의 갈등을 끊임없이 겪었다. 즉 청소년의 태도에 대한 비판과 언쟁, 가정에서의 책임소재 그리고 친구의 선택과 관련된 갈등이 대표적이었다. 가출조작자는 다른 형제와 친구는 자신과 차이나게 대접받고 더 나은 대접을 받고 있다고 인식한다. 가출조작자는 일시적으로 집을 떠나서, “냉각기”(cooling off period)를 갖게되면, 부모는 걱정을 하게 되고 자신의 뜻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희망으로 집을 떠난다. 이 연구에서 4명의 가출조작자는 모두 홈

없는 가정출신이고, 그들의 학교성적은 평균 또는 그 이상이었다. Shellow, et. al.(1967 : 29)도 교묘히 조작하는 가출을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

『가출행위』는 부모를 다루는 계산된 책략일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관계를 거부하기보다는 관계를 변화시키려고 시도되었다.

3+ 단계 - 가출 피난자 : 가출피난자는 가출조작자가 직면한 갈등보다도 강한 갈등으로부터 충동적으로 달아난 12명의 가출청소년의 특성에 기초한다. 한쪽 부모 혹은 양쪽 부모와 잦은 언쟁이 일어나서 고향을 치고, 때로는 때리고 청소년에게 물건을 던지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 12명의 가출피난자중 7명은 결손가정 출신이었다. 대부분은 한가지이상의 학교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 가출피난자들은 적어도 한학기에 낙제했고, 정학을 당하며, 혹은 유급당했다. 가출피난자들은 가출하기 전에 대마초를 점차“남용”하거나, 거의 매일 술을 마심으로써 도망자의 행위를 한다.

4+ 단계 - 위험에 처한 가출청소년 : 부모와 위험에 처한 가출청소년간의 습관적인 갈등은 청소년을 부모와 새부모 - 흔히 취중에 일어나지만 - 에 의한 신체적 학대나 성적 학대의 희생물로 하여 끝난다. 이 연구에서 30명 가출청소년중 8명이 4단계의 갈등수준을 경험했다. 8명중 6명은 학교문제를 안고 있었다. 대부분의 경우 가정에서 부모가 알콜중독자 또는 알콜중독회복자였다. 위험에 처한 가출청소년 모두는 암페타민, LSD, 코카인 혹은 메스칼린 등 환각제를 규칙적으로 사용했고 ; 또한 절반은 음주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8명 모두 신체적 학대의 희생자였고, 그중 2명은 성적학대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위험에 처한 가출청소년이 집에서 나왔을 때, 그것은 구타 때문인데, 즉 최근에 맞았거나 어떤 실질적 혹은 상상적 잘못으로 또 맞을지도 모른다는 위협 때문

이다.

대처기제의 성공적인 사용과 적은 갈등에 덧붙여서, 비가출청소년은 인정과 애정 영역에서 만족스런 유형을 나타냈다.

5. 학교에 대한 태도

가출청소년집단의 절반은 학교의 긍정적인 측면을 전혀 찾을 수 없다고 하는데 반하여, 비가출청소년집단은 어느 한사람도 그러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가출청소년중 13명과 비가출청소년중 15명은 학교는 일차적으로 친구와 함께 사회화하는 곳이라는데 근본적으로 동의했다. 그러나 비가출청소년중 9명이 학교의 가장 좋은 면은 배움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데 반하여 가출청소년은 1명만이 이에 동의했다. 비가출청소년들의 의견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었다 :

“가장 좋은 것은 배움이다.”

“내가 관심을 갖는 것은 사물을 배우는 것이다.”

“학습영역을 넓히는 것이다.”

“다양한 것에 대한 학습으로 전문을 넓혀준다.”

“내가 배우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난 기쁘다.”

“내가 원하는 과정, 예를 들면, 더 많은 수학과목을 택할 수 있는 것이다.”

“미래의 연구과정, 모두 미래에 관한 것이다 - 미래의 충격과 미래의 일”

학교의 “가장 나쁜” 측면을 물었을 때, 가출청소년중 2/3이상(21명)은 숙제나 공부(7명), 학교의 모든 것(6명), 규율과 규제(5명) 그리고 교사(3명) 등을 말했다. 30명 비가출청소년중에서, 단지 3명만이 숙제와 공부를 싫어하고 4명은 아침 일찍 등교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했다. 가출청소년(2명)보다 훨씬 많은 비가출청소년(7명)은 학교에서 “가장 나쁜” 측면은 찾을 수 없다고 했다. 비가출청소년이 말한 가장 빈도 높은 형태의 대답은 수업내용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었다. 비가출청소년이 싫어하는 것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되었다 :

“나의 교육에 더이상의 도움을 주지 못하는 수업에 들어가는 것이다.”

“가치없는 수업”

“같은 날 너무 많은 시험”

“잘 해야된다는 압력과 단조로움이 나를 피곤하게 한다.”

“성적을 위한 경쟁”

비가출청소년은 거의 모두 평균 성적이 75점에서 95점 사이이고 전체 평균은 85점이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대부분의 가출청소년은 지난 학년도에 한학기이상 실패했고, 지난 2년동안 평균점수는 67점에서 70점 사이였다.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실은 비가출청소년은 가출청소년보다 학습과 학교에 대해서 상당히 더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6. 여가활동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록 더 많은 가출청소년이 3가지 이상의 스트레스를 경험했지만, 가출청소년과 비가출청소년의 대부분이 스트레스와 위기를 경험했다. 그러나 비가출청소년은 여가활동을 통하여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거나 해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가출청소년의 대부분은 팀스포츠와 같은 많은 건설적인 대인관계 활동에 참여하는데 반하여 가출청소년은 소수만이 이러한 활

동에 참여했다. 이러한 활동은 공유된 책임감을 증진시키고, 다른 사람과의 조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켜 준다.

가출청소년과 비가출청소년의 방과후 학교와 주말 여가활동에 대한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거의 모든 청소년들이 음악듣기를 즐긴다. 가출청소년중 20명과 비가출청소년 모두는 매일 음악을 듣는다고 했다. 일부 가출청소년과 일부 비가출청소년은 악기를 연주하거나, 텔레비전을 보고, 스포츠에 참여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을 즐기는 가출청소년의 수는 비가출청소년보다 적었다. 14명의 비가출청소년이 악기를 연주하는데 반하여, 가출청소년은 9명뿐이었다; 그리고 비가출청소년중 17명이 개인스포츠와 팀스포츠에 참여했는데 가출청소년은 8명이었다. 예상과 달리, 가출소년의 2/3는 텔레비전 시청에 흥미가 없다고 말했고, 그들중 일부는 텔레비전의 가출소년 고발물에 화를 냈다.

두 집단간의 차이는 그들의 학문적 관심에서 매우 컸다. 비가출청소년중 6명은 여가활동으로 독서를 즐기는데 반하여, 가출청소년중에서는 1명만이 독서를 즐겼다. 비가출청소년중 14명이 여가 시간에 숙제나 학과공부를 하는데 반하여, 가출소년의 경우는 두명에 불과했다.

가출소년은 흔히 약물을 “남용”하거나(20명), “떠돌아 다니거나”(15명) 그리고 파티에 참석했는데(10명); 비가출청소년은 약물을 “남용”하거나(2명), “떠돌아 다니거나”(2명) 그리고 주말에 파티에 참석하는 일(4명)이 거의 없었다. 많은 수의 비가출소년은 규칙적으로 대마초를 피웠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는 청소년들이 가장 흔한 종류의 여가활동으로 지각한 것을 반영하고 있다.

비가출소년은 가출소년이 언급하지 않은 여가활동과 취미를 25가지나 말했다. 특별활동은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1. 글쓰기, 사진, 춤, 연극, 은세공, 그림 그리기, 조각과 같은 창조적 관심 ; 2. 자전거 타기, 가라데, 역도, 체조, 데이트, 응원, 걷기 그리고 쇼핑과 같은 열정적인 활동 ; 3. 동전수집과 우표수집, 모형차 만들기, 혹은 자전거와 차 조립과 같이 인내, 조직, 특별한 설비, 혹은 기술이 요구되는 관심. 결국, 가출청소년들은 비가출청소년 만큼 여가 역할기대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한 것 같다.

7. 미래의 목표

가출청소년과 비가출청소년에게 “여러분은 5년후에 무엇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라고 물었다. 가출청소년 중에는 거의 반수(13명)가 미래의 목표가 없다고 말했다 ; 그러나 비가출청소년 중에서 미래의 꿈이 없는 사람은 단 2명이었다. 청소년들의 미래에 대한 열망은, 비가출청소년이 가출청소년(5명)보다 거의 5배나 많은 수(24명)가 대학에 가거나 대학원에 진학하여서 전문직을 준비하겠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결과는 비가출청소년의 학업성적의 상승으로 나타난다 ; 비가출청소년은 돈을 벌고 독립하는 즐거움을 몇년 동안 늦출 의향이 있다 ; 그리고 비가출청소년은 대학다니는 동안 재정지원은 부모에게 의지할 것이라고 한다.

미래의 목표가 없다고 말한 13명의 가출청소년은 5년후의 자화상을 다음과 같이 그렸다 ;

모르겠다. 그렇게 먼 날을 예측할 수 없다.

— 16살 소년 —

여전히 친구들과 모여서 놀고 어영부영 떠돌아 다닌다.

— 17살 소녀 —

아무도 날 원하지 않고 갈 곳도 없기 때문에 나는 죽을지도 모른다.

— 15살 소년 —

학교에 다니거나 죽을 것이다.

— 17살 소녀 —

미래의 꿈이 없다고 말한 두명의 비가출청소년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

“나는 정말 모르겠다.”

“알 바 아니다.”

비가출청소년중 5명은 대학원에서 법학과 경영학을 전공할 계획을이라고 했다. 그러나 가출청소년중에서는 1명만이 학사과정을 마치고 의과대학에 가겠다고 했다.

7명의 가출청소년과 3명의 비가출청소년은 학사학위가 요구되지 않는 직업적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두 집단은 일반적으로 고교졸업후 어떤 기술교육이나 특별한 교육을 요구하는 직업에 흥미를 가진 것 같다. 가출청소년들은 각기 법률서기, 미용사, 자영이발사, 모델, 경마기수, 자동차 수리공 그리고 에어컨디셔너 수리공에 관심이 있었다. 비가출청소년은 각기 경찰관, 이발사 그리고 전문 연극인과 무용가가 되길 바랬다.

8. 가출을 생각해본 비가출청소년

많은 청소년들이 가출을 생각하지만, 이를 실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비가출청소년중 상당수(30명중 14명)는 가출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Shellow, et. al.(1967 : 27)는 공립학교 표본조사에서 응답한 청

소년 1,327명 중에서 1/3은 가출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지만, 실행하지는 않았다고 보고했다. 이 결과, 이들 연구자는 “가출한 사람과 가출하지 않은 사람 사이의 차이를 너무 분명하게 나누는 것에 반대한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었다. 이 연구에서, 왜 잠재적인 가출청소년이 집을 떠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았다.

스트레스적 사건 때문에 가출을 생각한 14명의 비가출청소년중 7명은 가출이 부모와의 관계에 가져올지도 모르는 잠재적인 부정적 결과 때문에 집을 떠나지 않았다고 했다. 결국, 일부 청소년들은 가출청소년과는 대조적으로, 가출하기 전에 가출의 결과를 현실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그들의 판단은 다음 이야기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나는 가출로 아무 것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 사실 사태를 악화시켰을 것이다.”

“가출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가출은 나와 부모의 마음만 아프게 할 뿐이다.”

“나는 부모님을 생각했다.”

“나는 가출을 해보려고 생각한 적이 있는데 가출은 바보짓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나는 내 자신에게 말했다. ‘어디로 갈 것인가? 너에게는 너를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 의견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차이점은 기본적으로 나쁘지 않다.’ 나는 가출로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 친구들을 보았다. 한 소녀는 이층 창 밖으로 오르다가 발을 부러뜨렸다. 다른 친구들도 더욱 더 악화되었다.”

다른 일곱명의 잠재적 가출청소년들은 가출하지 않는 이유로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다. 2명은 가출에는 용기가 필요한데 그들은 그 용기를 가지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들은 “꿈무너를 뺐다” 즉 “나는 어렸다”라고 말했다. 2명은 무슨 일이 일어났고,

어떤 상태인지 분명하지 않았다. “나는 그냥 하지 않았다”와 “기억나지 않는다.” 또 다른 2명은 스트레스가 완화되었거나 갈등이 해소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나는 바로 그것을 극복했다” 그리고 “나는 내 방으로 가서 잠을 자고 다음날 잊어버렸다.” 마지막 한 사람은 집을 떠나려는 그녀의 충동을 통제하는 것을 하나의 도전이라고 보았다. “나는 스스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려고 했다. 내가 그것 - 나 자신과의 문제 - 을 다룰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아는 것은 하나의 도전이었다.”

이들 잠재적 가출청소년들은 가출과 같은 충동적인, 위협스러운 행동의 부정적인 결과를 예견하고 대안적 행동을 함으로써 그 즉시 즐거움을 바라는 그들의 욕망을 통제하는 능력을 보였다; 그 능력은 도덕적 발달을 나타낸다.

VI. 부모의 인식과 지각

청소년가출과 청소년비행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청소년의 자기보고행동과 부모의 지각 사이에서 일치의 정도를 평가하지 않는다. 특히 회고적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확인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부가적 자료원을 갖는 것은 유익하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30명 가출청소년과 30명 비가출청소년의 부모중 가능한 한 많은 수와 면접하려고 하였다. 가출청소년의 부모 10명과 비가출청소년의 부모 12명인 하위표본은 가출을 촉발시킨 사건, 연령, 가족구조, 스트레스적 사건 그리고 자녀에게 가장 흔히 사용되는 훈육양식 등에 대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 면접되었다.

가출청소년의 부모는 일반적으로 면접을 꺼려했다. 가출청소년의 부모중 일부는 거의 집에 없었고, 가까스로 전화 연결이 되어도 면접에 관심이 없다고 했다. 가출청소년 부모와의 면접중 8건은 1번~3번의 전화통화후에 이루어졌고, 면접은 주로 부모의 집에서 이루어졌다. 다른 2건의 경우, 부모들은 면접하기에 너무 바쁘다고 말했다. 하나는 작업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2가지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결국 한 건은 어느 날 저녁 아버지의 집에서 면접이 이루어졌고, 다른 한 건은 큰 가구가게의 간이사무실에서 어머니를 면접하였는데 면접하는 동안 다른 판매원이 그녀를 대신하여 일을 했었다. 8건은 어머니와의 면접이고 2건은 아버지와의 면접이었다.

부모와의 면접결과는 가출청소년의 보고에 경험적 지지를 해주었다. 각 쌍 — 가출청소년과 그(그녀)의 부모 — 의 회고분석은 다음 사항에서 완전히 일치했다: 연령, 가족구조, 부모의 훈육양식 그리고 스트레스적 생활사건. 각 쌍의 가출 촉발사건에 대한 회고

분석은 7쌍에서 일치되었다. 이러한 요인에 대한 가출청소년—부모 일치여부는 각 부모의 회고가 자녀인 가출청소년의 회고와 완전히 일치하는지 아니면 불일치하는지로 분석되었다. 가출청소년—부모 일치의 횟수는 위 다섯가지 각각에 대한 부모—가출청소년 일치지표를 통하여 합계된다.

비가출청소년의 부모는 일반적으로 가출청소년의 부모보다 협조적이었다. 12명 비가출청소년의 부모와의 면접은 모두 어머니와 이루어졌다. 이들 비가출청소년의 부모는 가출청소년의 부모보다 면접하는 동안에 여유있는 것처럼 보였다; 12명중 3명은 청소년이 가출하는 것은 부모의 탓이라고 했다. 이들 3명의 부모는 아이들이 온종일 어디에 있는지를 안다고 자신있게 말했는데, 그 이유는, 이웃이나 다른 어머니가, 항상 그들의 아이들이 자리를 옮길 때 “자원봉사 운전수”(volunteer chauffeur)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비가출청소년—부모 쌍 각자의 일치여부는 나이, 가족구조, 부모의 훈육양식 그리고 청소년의 삶에서 최근의 스트레스적 사건에 대해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에 따르면 연령과 가족구조에 있어서는 12쌍이 모두 일치했다; 최근의 스트레스적 사건에 대해서도 거의 완전히 일치했고, 부모의 훈육양식에서는 12쌍중 7쌍만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현재의 가족구조에 일치된 의견을 보였지만, 한 소녀는 생모와 계부와 함께 산다고 했으나 그녀의 어머니는 유아때 그녀를 입양했다고 했다. 그 소녀는 자신이 아는 어머니가 한사람 뿐이고 그녀를 “생부모”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것 같다. 그 소녀는 입양은 사생활 정보라고 생각했거나, 혹은 그녀의 입양은 현재의 태도, 기술 그리고 행동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1. 촉발사건 : 가출청소년 - 부모 쌍

자녀의 가출 사건에 대한 부모의 회고는 촉발사건에 대한 자녀의 지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 연구는 개인이 지각하는 스트레스 그리고 가출행위를 촉발시킨 관련된 사건에 일차적으로 관심을 가졌다. 그러므로 자녀의 가출이유에 대하여 부모가 동의하는지의 여부의 문제가 아니고 ; 관심을 갖는 것은 부모와 자녀가 동일한 사건을 청소년이 집을 떠난 촉발사건이었다고 회고하는지의 여부였다.

결과적으로 가출청소년 - 부모 10쌍중 7쌍은 최초 가출사건을 촉발시킨 사고를 똑같이 회고했다. 예를들면, 한 어머니와 딸은 가출로 이끈 갈등과 긴장에 대하여 동의하였다(일치된 사례) :

가출청소년 : 나의 학교생활은 엉망이었다. 낙제하고, 퇴학당했다. 어머니는 나를 외출금지시켰다. 어머니와 나는 이 문제로 언쟁을 벌였다. 어머니는 “내 규칙을 따르지 않으려면, 나가. 네 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으면 찾아가라”라고 말했다.

어머니 : 나는 딸에게 나는 널 싫어하니까 가서 네 아버지와 살라고 말했다. 딸은 아버지가 잘 보호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아버지는 딸을 일주일에 한번정도 보는 것도 많다고 생각했다.

한 아버지와 아들은 촉발사건에 대해서 일치되지 않았다 : (불일치된 사례)

가출청소년 : 나는 부모님이 나를 올바르게 치우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아버지는 내가 밤에 나가고, 술을 마시며, 파티에 참석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내가 죄인처럼, 하루종일 집안일을 하고 매일 밤에는 곁에 앉아서 이야기하길 바랬다.

아버지 : 아들은 거짓말이 심하고, 모든 것을 감춘다. 아들은 하지말라는 것만 골라서 했는데, 흡연, 학교결석, 동물같은 옷차림, 지각 그리고 밤늦게까지 쏘다닌다...

또 한 소년은 술에 취해서 집에 왔을 때, 어머니는 아버지가 죽은 이유를 자신의 탓이라고 비난했다고 했다. 아들과 어머니의 보고중에서 어떤 부분은 일치되었다 ; 두 사람 모두 어머니가 냉장고 문을 잠그고, 화를 내며, 아들에게 물건을 던졌다고 기억했다. 그러나 아들은 그의 어머니가 아버지의 죽음을 아들의 탓이라고 되풀이해서 비난했다고 했다. 어머니는 자신이 그렇게 비난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

가솔청소년 : 나는 술이 취해서 집으로 왔는데 어머니는 나에게 냉장고의 열쇠를 주지 않으려고 했다. 어머니는 나에게 고향을 치고 물건을 던졌다. 어머니는 내가 알콜중독자라고 생각했다. 아버지는 알콜중독으로 죽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죽음을 내탓이라고 했다.

어머니 : 아들은 파괴적이고 거짓말을 한다... 아들은 어느날 밤 술에 취해서 돌아왔다. 아들은 나를 똑바로 노려 보았다. 아들은 주먹으로 냉장고를 치기 시작했다. 음식을 먹으려고 했고, 텔레비전을 보려고 했다. 아들은 내 차를 세차하지 않으면 음식을 줄 수 없다고 부엌에 쓰여진 글귀를 보았다. 나는 결코 그 녀석에게 다시는 먹을 것을 주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 녀석이 다시 나가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오, 절대 안돼”라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문을 잠궜두었다. 그 녀석은 이곳을 계속 왔다갔다 하면서, 나를 괴롭혔다. 이것은 Mike가 좋아하는 일 중의 일부이다. 그 녀석은 괴롭히기를 좋아했다. 나는 “안돼”라고 말했는데, 그 녀석은 이 곳을 뛰어넘어 문을 열었다. 나는 미칠 지경이 되었고 물건을 마구 던졌다. 나는 누가 말하던 신경쓰지 않는다. 한번은 남편을 때린 적도 있다... 그래서 그는 나가 버렸고, 다시는 오지 않았다. 그렇게 그는 가버렸다. 나는 그것을 경찰에 신고했다. 나

는 나를 꾸짖는 어느 누구도 되돌아 오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바로 나가 경찰에게 신고한 것이다.

또한 어머니와 아들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다른 정보를 주었다. Mike는 아버지가 간경화로 죽은 알콜중독자라고 보고했다; 그의 어머니는 남편이 폐렴과 신장병으로 죽었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결국 남편이 알콜중독자였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녀는 남편이 죽던 당시는 술 마시는 것을 자제했었다고 했다. 더욱이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전혀 슬퍼하지 않았다고 느꼈다:

나는 전화를 해서 Mike를 집으로 불렀는데 그는 울었다. 그는 며칠 동안 울었으나 곧 장례식을 하나의 큰 파티로 생각하고 - 온종일 술을 마시며 취해 있었다.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어머니와 아들간의 의사소통의 결여와 오해는 분명했다. 그는 아버지의 죽음에 크게 위축되어서 슬픔을 달래기 위해서 약물과 술에 의존했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아들의 행동을 파티를 갖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잘못 이해했다.

그가 아버지의 입원과 죽음에 대처하는데 정서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그가 “악운”(jinx)이 있다고 느낀다는 것을 어머니와 아들이 모두 말함으로써 분명해졌다. 어머니에 따르면 그의 이모 한명이 가슴앓이로 입원했는데 어머니는 그가 이모를 문병하길 바랐다. 어머니는 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그는 자신에게 악운이 있다고 말한다... 그는 병원에 가길 원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병원에 가면 그 환자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한다. 그가 환자를 문병하면, 환자는 죽을 것이다. 그가 아버지에게 병문안 한 다음날 아버지는 죽었다. 그는 또한 이모를

문병했는데 그녀도 죽었다. 나의 형부도 죽었다. 그리고 Mike는 그를 보지 않았다.

어머니는 아들의 생각을 가라앉히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반대로, “그 녀석이 바라는 것은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다… 그 녀석은 항상 나를 괴롭혔다.”라고 말함으로써, 아들에게 악운이 있는 것 같다고 보았다.

2. 부모의 훈육 : 가출청소년 — 부모 쌍

가출청소년과 부모는 10쌍 모두 가장 흔히 사용하는 부모의 훈육양식을 동일하게 회고했다. 한 15살 가출소녀는 자신은 “꾸중 듣고, 방으로 끌려들어 오고, 뺨을 맞았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딸의 말에 동의했다 :

두차례 정도 남편은 자제력을 잃고, 1년에 한번 정도, 딸을 호되게 꾸짖는 적이 있었다. 딸은 두들겨 맞지는 않았다. 그것은 꾸짖는 정도였다. 때때로 정신 차리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뺨을 때린다. 우리는 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길 바라지만, 딸은 말하려 하지 않는다. 나는 큰 소리를 치고, 때때로 남편은 딸이 가지 않으면 그녀를 방으로 끌고 가야만 했다. 딸은 다정한 아이가 아니었고 불임성 있는 아이도 아니었다.

14살 가출소년은 꾸중을 듣고 두들겨 맞으면서 훈계를 받았다 고 했다. 아버지는 전기기술자였는데 8달동안 실업상태에 있었다. 그동안 아버지에게 알콜문제가 생겼고, 술에 취할 때마다 아들을 때렸다. 훈육양식에 대해서 아버지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

내가 정신을 잃고 속이 뒤집히면 — 나는 성질이 급한데 — 아들을 꾸짖는다. 사실 그는 항상 맞는 것은 아니고 맞을 짓을 한다.

아들은 아버지가 밤에 집에 없다는 것을 알아서, 밤늦게 집에 돌아오면 부모는 말다툼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때때로 아버지는 아들 방으로 뛰어들어와서 아들을 두들겨 패기도 하는데 아버지는 아들이 연주하는 음악의 종류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결국 소년은 침실 창문을 넘어서 도망쳤는데 몇달 동안 친구집에서 숨어지냈다.

대부분 다른 경우에,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부모의 훈육방식은 가출청소년에게 충고를 하기 위한 말로 묘사되었다. 말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는 부모가 자녀보다 사용된 처벌에 대해서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 때문에 생겼다.

3. 스트레스적 사건 : 가출청소년 - 부모 쌍

가출청소년 - 부모쌍은 가출청소년 삶에서 일어난 특별한 스트레스적 사건을 회고하는데 완전히 일치했다. 가출청소년의 부모는 가정내에서 성인들에게 영향을 준 스트레스적 사건이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특히 어려운 것처럼 보였다. 단 한가지의 스트레스 - 학교에서의 실패 - 만이 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부모에 의해서 명백하게 인식되었다.

어떤 가출청소년은 부모의 이혼과 같은 스트레스적 사건에 이르게 된 상황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부모보다 더 상세히 설명했다. 다른 경우에는, 부모가 스트레스적 경험을 겪은 그들의 자녀들보다 더 상세히 설명했고 부모 자신이나 그들의 배우자가 경험했던 질병이나 수술을 설명할 때나, 실직을 설명할 때는 자녀보다 부모가 더 상세히 이야기했다. 가출청소년의 스트레스적 사건은 가족관계의 맥락에서 청소년과 부모에 의해서 인식된 스트레스를 살펴봄으로써 이해될 수 있다.

일치된 사례 : 한 17살 소녀는 갑작스런 어머니의 병환과 입원에 직면하게 되었다. 어머니가 퇴원한 후에, 소녀는 어머니의 과보호를 지각하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딸이 어머니의 입원기간 동안에 갑자기 “대리모” 역할을 하도록 되어있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것 같다. 딸은 어른의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강요받은 후로는, 어린이처럼 처우당할 때 화를 내었다.

어머니는 골절질환으로 석달 동안 입원하였다. 그 병 때문에 그녀가 항상 즐겨해왔던 보석상을 그만두었다. 어머니는 골수염의 고통과 집에 있어야만 하는 고통이란 이중의 아픔으로 크게 스트레스를 받았다. 어머니는 그때 딸이 요리도 하고, 어린 동생들도 돌보면서, 매우 착했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그 경험이 딸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딸을 보다 책임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한 방법이라고 느꼈다.

딸 Amy는 동생들을 돌보고, 보통 늦게까지 일하다가 집에 돌아와서 남은 음식을 먹는 아버지를 위해서 요리를 하는 것은 쉬웠다고 말했다. 주말에는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나서 어머니를 보러 병원에 가곤 했다. 그녀는 어머니가 퇴원할 때까지 스트레스를 경험하지 않았다고 느꼈다. 어머니가 집에서 회복하고 있는 몇달 동안에, 어머니는 그녀가 남자친구와 데이트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집안을 깨끗하게 하도록 요구하기만 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대마초를 피웠다. 그러나 어머니는 딸이 담배를 피운다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무시해 왔다고 말했다. 경찰이 집 근처 공원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있는 그녀와 그녀의 친구를 붙잡았을 때, 가족연쟁이 일어났다. 그녀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부모는 나를 한 병원(집 근처에 있는 낡은 주립 정신병원)에 넣려고 했다. 부모는 내가 미쳤다고 생각했다. 부모는 나를 집에 가두어 두었다. 어머니는 나를 외출금지 시키고 어머니가 가는 곳마

다 나를 데리고 다녔다.

15살 소녀인 Donna의 아버지는 알콜중독회복자였고, 어머니는 그녀의 보고와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

내가 한 것은 잘못이다... 딸이 나에게 원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고 언제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것은 항상 잘못이다.

그녀는 어머니가 체중조절모임에 열심히 참여할 때, 자기는 무시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

어머니가 체중조절모임에 가입하기 전에, 어머니는 매우 뚱뚱하고 몸관리를 하지 않았다... 지금은 어머니가 체중조절모임 활동에 너무 빠져있다.

그녀의 아버지가 알콜중독자였을 때도, 그녀는 어머니가 그녀에게 “아버지가 좋아지면, 모든 일이 잘 될거야”라고 말했다고 말한다. 아버지는 그의 음주문제를 극복했다. 그러나 그녀와 어머니의 관계는 더욱 더 악화되었다 :

아버지가 알콜중독에서 회복되면서 아버지와 나는 정말 가까워졌다. 그러나 나와 어머니는, 우리는 그냥... 나는 어머니에게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다. 나는 어머니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는다. 심지어 “안녕”,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셨어요”란 인사조차 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어머니가 먼저 나에게 말을 건넨다. 어머니가 나에게 질문을 하면 그것은 벽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녀의 아버지는 술을 마시던 시절에 그가 그녀와 어린 자식들을 다루는 방식을 다음과 같이 간략히 말했다.

완전히 무시한다. 그들이 하는 일은 단지 나의 술심부름(*gofers*) — 맥주사러 갔다와라, 이것 가져와라, 저것 가져와라(*go for a*

beer, get me this, get me that) - 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현재의 가족문제는 아내와 Donna 사이에 특히 눈에 띄이는 의사소통의 부족이라고 느꼈다.

아내는 Donna와 이야기 할 시간을 내지 않는다. Donna는 딸일 뿐만 아니라 한 인간이다.

부모가 자녀의 가출 사실을 알았을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물었다. 반응은 화냄에서 무관심까지 다양했다. 부모의 반응에 대한 회고는 다음과 같다 :

“깜짝 놀람, 화냄, 노여움 그자체”

“나는 정말 화가 났다.”

“나는 그녀가 떠난 것을 그려 보았다.”

“나는 가출을 예상했다. 그는 나에게 떠난다고 말했다.”

“가출은 상대적인 일이었다. 나는 그녀를 내쫓았다.”

“나는 쓸모없다고 느꼈다.”

“나는 매우 걱정했다.”

“나는 그녀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도시에는 10대소녀를 쫓는 포주가 있었다. 나는 미칠 것 같았다. 우리는 경찰에 신고했다.”

4. 부모의 훈육 : 비가출청소년 - 부모 쌍

연구된 요인중에서 부모-자녀의 일치정도가 가장 낮은 것은 훈육에 관한 것이었다. 가장 자주 사용되는 훈육양식에 대한 보고에서 비가출청소년 - 부모 12쌍중 7쌍만이 일치하였다. 두명의 비가출청소년과 한명의 부모는 치거나 뺨때리기가 때때로 사용되는 훈육양식이라는 것을 잊어버렸거나 말하지 않았다 ; 2명의 청소년은 부모가 전화사용이나 특별한 행사에 차를 태워주는 것과 같은

특권을 철회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실제로 철회함으로써 처벌한다는 것을 잊어버렸거나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다섯 가지 예는 뺨때리기, 외출금지, 특권철회와 같은 처벌이 매우 드물게 사용되기 때문에 청소년이나 부모는 그것들은 “가장 자주 사용되는” 부모의 훈육양식이라고 보지 않은 것 같다. 또한, 훈육을 할 때 죄의식을 느끼는지, 특히 신체적 처벌은 청소년 마음보다 부모의 마음에서 죄의식을 느끼게 하였다.

일치된 사례 : 15살 소녀는 부모가 처벌을 할 때 꾸중을 하고 때때로 치고 뺨을 때린다고 했다. 어머니도 이에 동의한다 :

나는 큰소리로 야단친다. 남편은 매우 스트레스가 많은 사업(카페트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 남편은 나보다 자주 폭발한다. 딸은 어렸을 때 더 자주 맞았다. 나는 약 한달전에 딸을 때린 적이 있는데, 그때 딸은 “저도 15살이에요. 어머니도 저에게 이러면 안 돼요”라고 말했다.

한 15살 소년은 텔레비전을 너무 많이 본다고 하여 새아버지가 텔레비전 시청 시간을 제한했다고 했다. 소년의 어머니에 따르면 아들이 모든 과목에서 90점을 넘지 못하면 “특정시간 이후에 텔레비전을 보지 못하는 것”이 벌이라고 하여 일치된 의견을 보인다.

한 16살 소녀는 부모는 관대해서 문제를 그녀와 의논한다고 했다. 어머니는 딸의 귀가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문제가 생기면, “큰 파티가 있어요. 밤 2시까지 못들어 올 것 같아요. 양해해주세요”라고 말할 것이라고 했다.

불일치된 사례 : 한 15살 소년은 어머니가 큰소리로 꾸중을 하며 훈육시킨다고 했다. 그 어머니는 꾸중할 뿐만 아니라 특권을 철회한다고 했다. 어머니는 아들의 긴 머리와 긴 발톱을 싫어했는데, 아들이 동전수집광이기 때문에, 그 특권을 주지 않겠다고 위

협했다. 어머니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

네가 발톱을 깎으면, 동전전시회(대중교통수단이 없고 12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너를 데리고 가겠다.

발톱을 깎으라는 부모의 성화에 화가 났지만, 그는 동전전시회에 가고 싶어서 어머니의 뜻에 따랐다.

한 16살 소녀는 부모가 꾸중을 하거나 그녀를 그녀방으로 보내서 훈육을 시킨다고 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다음과 같은 훈육양식을 이야기했다 :

꾸중, 전화사용 금지와 같은 특권의 철회 그리고 가끔 때리거나 뺨을 때림.

또 한명의 16살 소녀는 어머니가 꾸중하고 비난한다고 했다. 대조적으로 그녀의 어머니는 꾸중하고 비난하는 것과 함께 외출 금지시키거나 특권을 철회한다고 했다. 딸이 처음 수학시험을 망치자 어머니는 중간시험에는 주의하라고 경고했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

나는 그 주일 동안 밤에 딸의 외출을 금지시켰다. 어떤 경우는 그녀가 받은 용돈을 일부만 주기도 했다.

5. 스트레스적 사건 : 비가출청소년 - 부모 쌍

청소년이 최근에 겪은 스트레스적 사건을 회상할 때 비가출청소년 - 부모 12쌍 중에서 11쌍은 일치되었다. Steve만이 일치되지 않았다.

15살 소년인 Steve는 스트레스적 사건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

나 어머니는 아들에게 매우 스트레스적 사건이 있었다고 했다. 1년전 그가 9학년 때, 그는 대마초를 조금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이틀간 유기정학을 받았다. 어머니는 사건의 경위를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

Steve는 거리에서 한 아이로부터 대마초를 샀기 때문에 이틀동안 정학을 당했다. 학교에서 대마초를 가지고 있던 다른 아이들도 붙잡혔다. 학교는 그것을 나쁜 방식으로 다루었다. 학교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다. 그는 정학이 끝난 후에 학교에 가서, 수업이 끝나고 각 선생님에게, 자신도 똑같은 사람이고 착한 학생이며 이에 대해서 토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의 선생님들은 매우 이해가 깊었다. 선생님들은 그가 여전히 힘든 아이라고 했고, 그들도 젊었을 때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장선생님은 그를 경찰서로 넘겨버렸고, 나는 경찰서 소년부에 가서 그를 데리고 와야만 했다. 남편은 직장에서 불려다녔고 집에 돌아와서 화를 내며 그의 레코드판을 부수어 버렸다. 나는 속상했지만, 우리는 그에게 충실하자고 얘기했다. 즉 Steve는 우리 아들이고 이 일은 그가 대마초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학습 경험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서로 일치된 11사례의 경우에 한 16살 비가출소녀는 세가지의 힘든 스트레스를 보고 했다 : 인접 도시에 있는 작은 집으로의 이사 ; 아버지 사업실패의 여파 ; 그리고 깨진 애정. 소녀의 회고는 다음과 같다 :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했다. 우리 식구는 집으로 몰려온 사람들로부터 위협당했다. 아버지는 우울증에 빠졌다. 어머니는 일을 해서 우리를 부양했다. 한 소년이 뒷문으로 들어와서 아버지와 싸웠다. 놀라운 일이었다... 나는 내가 사귀는 한 소년과의 관계를 끊으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나는 내가 만족하고 있다는 착각속에서 살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우리들의 관계가 꿈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 우리는 환상속에서 살았고 나와 그의 어리석음 때문에 끝내야만 했다. 그후 나도 우울증에 빠졌다. 나는 자존심이 약해졌고, 나의 이상은 실현될 수 없다고 보았다. 사실 나는 우리들의 관계가 특별해지길 바랬다. 그러나 나는 가장 할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 상처를 주었다. 나는 그만큼 죄의식을 느꼈다... 우리들의 관계는 항상 나의 가족과 같이, 현실로부터 떨어져 있었다. 나는 가족중 누구와도 그것을 의논하지 않았다.

그 소녀의 어머니는 남편이 파산해서 1년반 정도 실업상태에 있었다고 말했다. 아버지의 소득이 적어져서 그들은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고 그녀는 직업을 가져야만 했다. 어머니는 그 상황에 당황한 것 같았고 상세히 설명하려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딸의 사랑이 깨진 것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어머니가 딸의 사랑이 깨진 것을 모르는 것이 두 사람의 의견일치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딸은 가족중 누구에게도 그 일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일치된 사례중 3건에서, 비가출청소년의 부모는 그 자녀보다 가족의 심한 질병의 성질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했다.

A여사는 비가출아들이 받았던, 2년전의 10일 동안 입원을 요했던 등수술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아들의 등이 “경련을 일으켰을”때, 그녀는 곧 아들의 삼촌인 정형외과 전문의와 상의해서 병원으로 갔다. 아들의 등문제는 뼈에 장애가 생긴 것으로 진단되었다. 의사의 진료를 받고, 아들은 회복되었다고 그녀는 말했다. 그녀는 부목을 부착할까봐 불안했으나, 다행히 부목을 달 필요는 없었다고 했다.

B여사와 C여사와의 면접에서도, 어머니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비가출청소년의 의붓누나의 중추신경계통의 질환인 히폴란다우 증후군 그리고 어머니의 대장염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위의 사례에서, 스트레스의 구성요인은 각 쌍 안에서 일치되었다.

VII. 가출경험

교외지역에 사는 가출청소년들은 그들의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떠났다. 가출청소년 30명중 22명은 집으로부터 반경 10마일안을 벗어나지 못했다. 14명은 친구집으로 갔고 ; 6명은 지역내에 있는 공원이나 학교로 갔으며 ; 그리고 2명은 시내에 있는 친척집으로 갔다. Massachusetts의 가출청소년을 보고한 Bonee는 대부분의 가출청소년은 주 밖으로 나가는 것보다 “흔히 친구들이 있는 지역사회에 머무른다”고 했다(Bonee, 1974 : 360). Shellow, et. al. (1967 : 14)는 Montgomery County 가출청소년중 3/4은 Washington, D. C.의 “대도시권을 결코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교외지역 가출청소년중 8명만은 New York이나 주 밖으로 떠났다. 그 중 4명은 Florida로 갈 계획이었고, 한 명은 자기의 옛집이 있는 Missouri로 가려했다. New Jersey나 Delaware로 가는 자동차에 편승하는 동안에 다섯명 모두 경찰에게 붙잡혔다. 가출청소년중 3명만이 New York시로 가려했다는 것은, New York시가 시골에서 올라온 가출청소년의 목적지로서 널리 알려진 사실을 고려할 때,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Manhattan으로 들어온 청소년중에서 New York 대도시권의 일부인 Long Island에 사는 청소년들은 이 대도시에 익숙해져 있다는 사실로써 설명될 수 있다. 그러므로 New York시는 먼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가질지도 모르는 “신비한” 매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표본의 경우에는 접근의 용이도로 설명된다.

가출청소년의 생활속에서 스트레스의 양과 지역내 대 지역밖으로의 가출사이에는 관계가 없는 것 같다. 지역내로 가출하는 사람도 지역 밖으로 가출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3가지 이상의 스트

레스를 겪고 있었고, 긴장의 양은 가출의 목적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다.

자기의 가출 경험을 기술한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가정에서 가까운 은신처를 찾고자 하는 바램을 나타낸다 :

나는 Joe에게 이야기 했고, 그의 부모는 내가 그 곳에서 머물도록 해 주었다.

— 17살 소년

나는 새벽 2시 30분에 집을 빠져나와서 친구 집으로 갔다. 아버지는 나를 찾아 헤매다가 토요일 밤에야 나를 찾았다.

— 15살 소녀

나는 자동차에 편승해서 친구 집으로 갔다.

— 16살 소년

아버지의 차에서 잤다(나를 학대하는 아버지의 차는 아파트 옆에 오랫동안 주차되어 있었다).

— 15살 소년

나의 사촌이 고등학교의 야외의자 밑에 있는 나를 발견했다.

— 16살 소녀

1. 가출에 도움을 준 사람

가출청소년들은, 가출 중에 도움을 준 사람은 다른 누구보다 1~2명의 친구라고 했다. 친구의 도움에 의존한 경우는 전체의 반 이상(17명) 이었다. 친구는 침실을 같이 쓰거나, 깔끔한 지하실을 제공하거나, 뒷뜰이나 아버지의 차를 은신처로 제공해서 가출청소년을 도와주었다. 친구는 또한 가출청소년에게 음식과 우정을 나누어 주었다. 친구 집에서 사는 조건은 친구의 부모가 가출청소년

이 그 집에서 사는지를 아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다. 친구 부모가 그 상황을 아는 12사례에서는, 가출청소년은 친구 가족이 받아주는 상태였다. 가출청소년은 친구 가족과 식사를 같이 하고 집에 자유스럽게 드나들었다. 1사례는 친구와 그의 어머니만이 알고 아버지에게는 비밀로 했다. 그래서 친구의 아버지가 없을 때에만 자유롭게 지낼 수 있었다. 저녁식사는 아버지가 식당에서 식사한 후에야 가출청소년에게 몰래 들여보내졌고 초라한 거처에서 지내야 했다. 가장 어렵고 불편한 경우는, 부모가 알면 당장 가출청소년의 부모에게 알릴 것을 두려워하여, 가족에게 알리길 꺼리는 친구 혼자만이 가출청소년을 도와준 4사례이었다. 부모가 집에 있을 때는, 가출청소년은 차고, 뒷뜰 혹은 지하실과 같은 제한된 곳에 있는 “은신처”에 가만히 있어야만 했다. 눈에 띄지 않도록, 가출청소년은 친구가 주방에서 몰래 가져온 음식만을 먹었다. 먹을 것이 부족하여 때때로 가출청소년은 낮시간에 잠깐동안 외출해서 동네 식품가게에서 슬쩍 훔친 것으로 보충했다.

5명의 가출청소년은 음식과 거처를 친척에게 의존했다. 3명은 사촌에게, 1명은 숙모에게, 또 한 명은 자기 집이 있는 언니에게 의존했다. 5명의 가출청소년은 화물차 운전수, 상담원 그리고 낯선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했는데, 보통 이동할 때나 보호소에서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도움을 받았다. 5명의 청소년은 가출 기간 동안에 아무도 자신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고, 완전히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 남았다고 느꼈다. 한 소녀는 자신을 병원으로 데려온 경찰에게 감사한다고 했다. 그녀는 “환각상태”에 있었는데, 이름이나 어떤 개인 정보도 경찰에게 말하길 거부하며, “난폭하게” 굴었다.

2. 가출청소년에게 해롭다고 지각된 사람

가출청소년중 22명에게 친한 친구나 친척에 의해서 잠자리와 먹을 것이 제공되었기 때문에, 가출청소년중 6명만이 가출해 있는동안 그들에게 해롭게한 사람이 있다고 느낀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은 자신의 가출을 방해했다고 느낀 사람들 — 삼촌, 형제, 친구 혹은 경찰관 — 에 대해서 화를 냈다. 두 명의 청소년은 경찰의 체포 대상이 되는 상태에 대해서 불평했다. Diana 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주 경찰은 우리를 시멘트 방으로 데려갔다. 시멘트 의자, 시멘트 화장실, 시멘트 싱크대. 그 곳은 얼음처럼 찼고 우리는 매우 피곤했다. 벤치가 너무 딱딱해서 우리는 잠을 잘 수가 없었다.

3. 가출청소년이 직면한 문제

가출해 있는 동안 청소년들이 직면한 문제는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은 의식주의 기본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문제였다고 했다. 아무도 자기를 괴롭히거나 공격했다고는 하지 않았다. 6명의 가출청소년은 돈이 한 푼도 없었다고 하고 ; 8명은 경찰에 붙잡힐까봐 두렵다고 말했으며 ; 4명은 먹을 것이 불충분했다고 하고 ; 3명은 잠잘 곳을 찾을 수 없었다고 했다.

17살 소녀인 Maryann은, 비참한 장소로 유명한 New York 시립구치소에 그녀를 넣겠다는 위협을 당한 것 등 그녀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털어놓았다.

나는 친구 Kathy와 도시로 돌아왔다... 우리는 기차를 타고 갔다. 일요일날 우리는 흥분제를 3대씩 맞고 48번가를 배회하였다. 내 손에는 맥주병이 있었는데 우리는 한잔씩 한 상태였다. 경찰은 우리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했다. 그녀는 경찰에게 신경질을 내며 욕설을 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15살이었고, 자기에게는 경찰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경찰들은 우리를 배회하고 가출한 혐의로 경찰서로 데려갔다... 그녀의 부모는 그녀를 데려가며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이라고 나를 비난했다. 경찰은 나를 Spofford 구치소에 수용하려고 했다. 그들은 나에게 그곳에 가면 갇단에게 강간당하고 쥐가 우글우글해서 추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삼촌이 그 도시에서 경찰로 일했기에 나를 빼내 주었다. 삼촌은 경찰에게 이야기해서 나를 집으로 데려왔다.

Doug는 New Jersey주 Newark 근처에 있는 조그마한 보호실에 6시간 반 동안 경찰에 의해서 수감이 채워져 있었다고 했다.

나는 Florida로 가려고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주 경찰관은 자동차에 편승하려는 우리를 잡았다. 경찰은 우리 모두에게 수감을 채우고 경찰서로 데리고 갔다. 3시 30분에서 10시까지 수감이 채워져 불편하게 지냈다 - 아버지가 언제 나를 데리러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Judy는 6주동안 두번째이자 마지막인 가출을 했다. 아버지가 PINS 청원에 서명을 해서 그녀는 아동보호소(Childrens Shelter)에 4일동안 유치되었다.

그 곳은 무덤 같았다 - 물론 회색 투성이었다. 천장도 회색이고 바닥도 회색이었다. 그 곳에는 침대 1개, 담요 1장 그리고 구석에 철제 책상이 1개 있었다. 나는 내 팔목을 자를까를 생각했다. 나는 내 목을 조였다... 변기는 넘쳐 흐르고, 나는 벌레가 침대 밑에 있다고 생각했다.

15살 소녀인 Barbara와 친구는 가출해 있는 동안 먹을 것을 구하기가 어려웠다. 두 사람은 학교 운동장에서 “배회하면서” 열한두살쯤으로 보이는 한 소년에게 다가갔다. 그녀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나는 한 꼬마에게, 집에 가서 빵 한조각이라도 좋으니, 먹을 것 좀 갖다줄 수 없냐고 물었다. 그 꼬마는 가게에 가서 빵 한 개와 도나츠 한 상자씩 사서 우리에게 주었다.

16살 소녀인 Betty는 친구집의 뒷뜰에서 석 달동안 잠을 잤다. 가장 큰 문제는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먹을 것을 동네 슈퍼마켓에서 훔쳐서 충당했다고 한다.

VIII. 결 론

가출청소년의 삶 속에서 스트레스적 사건의 조사는 가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적인 수단을 제공한다. 자료에 따르면 스트레스적 사건은 청소년의 삶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트레스는 비가출청소년보다 가출청소년에게서 더 많이 일어나는 경향이 있으며, 특정 생활양식은 가출청소년에게서 더 많이 눈에 띄이고 그것이 그들의 가출에 영향을 준 것 같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부모-청소년 갈등 연속체로 가출을 개념화하는 방법이 제시되었다. 그것은 가출청소년에는 몇가지 유형이 있고, 각 유형은 다른 유형과 구분되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 부모-자녀 갈등의 4가지 유형은 분명히 가출 행위에 선행하였다. 첫번째 유형의 청소년은 - 가출 탐험가와 사교추구자로 구성되는데 - 부모와 작은 갈등을 일으켰다. 갈등이 일어나는 일차적 영역은 자기 귀가의 강요처럼 청소년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느끼는 단일 쟁점이었다. 두번째 유형이 - 가출 조작자 - 겪는 문제는 많은 종류의 부모행동에 대하여 부모와의 잦은 갈등으로 특징지어진다. 조작자에 대한 갈등원인은 청소년의 태도, 행동 그리고 친구 선택에 대한 의견 차이의 결과일 수도 있다. 조작자는 논쟁이 된 쟁점에서 부모의 의지를 누그러뜨리려는 한 방법으로 가출을 사용했다. 세번째 유형은 - 가출 피난자 - 심한 갈등 상황을 경험했다. 언쟁은 부모의 매질, 뺨때리기 혹은 자녀에게 물건 던지기 등을 수반했다. 피난자들은 약물에 “크게” 의존하고, 가출하기 전에 거의 매일 술에 취하곤 했다. 끝으로 네번째 유형은 - 위험에 처한 가출청소년 - 반복된 신체적 그리고/혹은 성적 학대가 부모나 새

부모에 의해서 자행되는 습관적인 갈등을 경험했다. 이러한 가출 청소년들은 가정 상황속에 있는 신체적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가출했다.

이 연구는 가출 현상에 대한 일차적 설명을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1. 가출은 3가지이상 스트레스적 사건을 겪은 후 이에 대한 한 반응이다. 가출자 면접자료는 대부분의 경우에 3가지 이상의 스트레스적 사건이 청소년에 의해서 보고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2. 가출은 청소년들이 스트레스적 사건을 경험하고 전통적인 대처양식으로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성공하지 못할 때 일어난다. 많은 비가출청소년들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부모나 친척의 도움을 찾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출청소년들은 부모의 도움을 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스트레스의 원천이라고 생각한다. 의미있는 타자의 유무는 가출 현상을 설명할 때 중요하다. 대부분의 가출청소년들은 약물사용이나 음주와 같은 부정적인 대처방법을 사용했다.
3. 가출청소년은 비가출청소년보다 생활속에서 훨씬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30명의 가출청소년은 지난 4년동안 총 130건의 스트레스적 사건(평균 4.33건)을 경험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30명의 비가출청소년은 같은 기간동안에 총 76건(평균 2.53건)을 경험했다.
4. 가출청소년은 위기속에서 그들의 위기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적응양식을 가지고 있지않다. 적응양식은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그리고 여가활동에서 나타내는 지적 기술과 정의적 기술을 살펴봄으로써 보여질 수 있다. 비가출청소년들은 특징적으로 학교에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고 거의 실수를 하지

않는다. 또한 비가출청소년들은 농구, 야구 그리고 테니스와 같은 건설적인 여가활동에 자주 참여한다. 그러나 가출청소년들은 자주 학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표시하고, 학과 성적이 나빠며, 여가를 “허비하거나” “무의미하게” 보내버린다.

1. 가출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적 쟁점

전 미국을 통하여 가출청소년을 다루는 전통적인 방법은 구금이었다. 가출청소년은 무단 결석자, 교정할 수 없는 청소년과 함께 오늘날 신분이탈자라고 알려진 범주를 구성한다. 신분이탈은 소년비행과 구분되며, 청소년에 의해서 저질러질 때 불법인 행위라고 정의된다.

각 주 입법부가 신분이탈을 다른 청소년 비행과 구분하기 위하여 소년법을 수정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부터였다. New York주가 1962년에 “감독을 필요로 하는 사람”(person in need of supervision/PINS) 법률 입법하여 선구자적 역할을 하였고, 그 후로 많은 주에서 비슷한 법률을 채택했다.

여러 주에서의 신분이탈자에 대한 입법은 이런 청소년에 대해서 주마다 조금씩 다른 용어를 만들었다. 그 용어는 이러한 청소년을 일컫는데 사용된 약어에 의해서 쉽게 확인된다. 귀절의 첫 단어는 “사람”, “소년”, “약자” 혹은 “어린이”이지만, 나머지 4 단어는 일반적으로 동일한 “감독을 필요로 하는”이다. 결과적으로 약어는 PINS, JINS, MINS 그리고 CINS가 된다.

일부 주에서는 소년법이 바뀌지 않아서, 법정 출두를 기다리는 가출청소년들이 합법적으로 감방에 유치되며, 일부 소도시와 시설이 모두 찬 대도시에서도, 소년법원의 처분을 기다리는 가출청소

년이 성인 범죄자가 유치된 감옥에 유치될 수도 있다. 판결 후에는 일부 소년은 여전히 남아빠진 소년원에 보내져서 1년 이상씩 구금되기도 한다 .

감독을 필요로 하는 신분이탈자를 위하여 PINS법을 입법한 주에서는, 단순한 입법만으로 현존하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PINS가 소년비행과 다른 독립된 법적 범주로 인식될 때, PINS가 법정 과정에 포함되는 정책은 잘못이라는 인식이 높아가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청소년에게 해로울 뿐만 아니라, PINS 사례가 불필요하게 법정의 잔무를 늘리기 때문이다. 어떤 가출청 소년이 그 사회가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나쁘다고는 인식하지만, 죄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을 때, 가출청소년에게 법적으로 PINS라고 부르는 것은 “비행소년”이라는 낙인만큼 가출청소년에게 오명이 된다.

대부분의 경우에 주 의회에 의한 법률의 통과로 신분이탈은 청소년 비행에 대한 제재를 받지않게 되고, 구금대신 사회사업기관에 의한 도움을 받게 되었다. PINS를 위한 사회적 서비스가 적절하지 못할 뿐 아니라, 1972년과 1975년 사이에 수행된 몇몇 연구 (Sarri, 1974 ; Cohen, 1975 ; New York State Council of Voluntary Child Care Agencies, 1975)는 신분이탈자가 때로는 비행소년보다 심한 처벌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많은 경우에 가출청소년은 소년비행이라고 유죄 선고를 받았다.

알콜중독자인 새아버지로부터 매를 맞고 집을 뛰쳐나온 한 청소년은 지지적 치료 환경이 필요하다. 그러한 청소년을 단기간이라도 구금하는 것은 완전히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 될 것이다. 신분이탈자라고 이름붙은 가출청소년은 PINS에 의해 소년법원 기록에 남게된다. 주의 법이 신분이탈자를 비행소년과 함께 유치하지 않도록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자동차 도둑, 폭행

그리고 강도와 같은 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청소년들이 있는 소년원에 유치된다. 죄 없는 청소년을 구급하여 생긴 나쁜 결과는 잘 기록되어 있다. 명백하게 사회적 서비스와 지역사회 집단가정에 입소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 신분이탈자에게 구급이외의 대안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만약 이 연구가 나타내듯이, 수많은 가출청소년이 위기속에 있고, 구급이 또 다시 위기를 초래한다면, 지역사회에 기초한 프로그램이 이러한 청소년에게 위기개입, 음식, 거처, 의료 서비스 그리고 적절한 의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실시될 필요가 있다. 몇가지 응급 서비스와 거처가 가출청소년에게 유용하다. 그러나 가출청소년 보호소(“Runaway Retreat”) 지역과 다른 지역에서 집단가정에 들어가기까지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하기때문에 가출청소년을 위한 더 많은 자원 개발과 적당한 자원봉사 가정을 개발해야 한다.

세가지의 사회적 서비스가 전국 가출청소년과 그 가족에게 유용해져야 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위기속에 있는 가출청소년이 제때에 개입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되고 수행될 필요가 있다.

1. 가출한 동안에, 청소년들이 흔히 음식, 숙소 그리고 상담을 하루 24시간 내내 제공되는 입원상담센터(a drop-in center)나 가출청소년보호소를 찾도록 한다. 연방정부는 현재 이러한 보호소에 재정을 지원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청소년, 그들의 가족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공공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공표되어야 한다. 협조적인 기관간 의뢰가 가출청소년과 관련된 사람들 - 경찰관, 학교 사회사업가, 교사, 상담원, 보호관찰사, 소년법원 판사 그리고 병원 응급실 직원 - 사이에서 활성화되어야만 한다.
2. 집에 돌아온 후에, 가출청소년과 가족은 끊임없이 개인, 집

단 그리고 가족치료를 제공하는 사회사업기관의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한다.

3. 청소년이 그들의 가족이나 친척과 계속 살 수 없을 때, 사회사업기관은 위탁부모가 있는 대안적 생활시설, 치료지향적 집단가정 혹은 정신의학적 사회적 서비스가 수행되는 거주 치료센터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장단기 프로그램

단기 프로그램은 음식, 거처에 대한 가출청소년의 기본욕구를 충족시키고, 위기개입, 의료 서비스, 개인·집단 그리고 가족 상담 서비스와 의뢰를 실시하도록 하루 24시간 내내 운영되어야만 한다. 단기 프로그램은 “긴급 피난처(*crash pads*)”, 가출보호소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집 등 여러가지가 있다.

한 가출청소년이 단기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청소년 사업가는 부모에게 통지할 법적 의무를 가진다. 부모의 바람과 주 법에 따라서, 그 청소년은 “감독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고받기 위해서 법정에 출두하도록 조치될 수도 있다. 초기의 개별사회사업과 가족상담은 많은 가출청소년 사례에 실질적이며 실현가능한 치료목표인 가족 재통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러나 갈등이 있는 사례에서 청소년이 집으로 되돌아가길 거부할 때나 부모가 자녀를 받아들이려하지 않을 때, 대안적인 생활의 장소를 탐색해야만 한다.

가장 일반적인 장기 생활 조치는 위탁가정보호(*foster family care*)와 집단보호 가정(*group care homes*)이다. 위탁보호에서, 전통적으로 한명 혹은 많아야 두명의 청소년이 위탁 “대리”부모에게 주어졌다. 만약 사회사업, 교육 혹은 정신의학 서비스가 필요하

면, 그러한 서비스는 그 지역사회안에서 얻어졌다. 그러나 전통적인 위탁보호는 흔히 “낮은 식비와 부적절한 개별사회사업적 지도”가 주어져서, 좋은 위탁가정을 감소시켰고, “낮은 질의 위탁가정 보호”를 지속시켰다(Gula, 1964 : 2~3). 그 결과, 전문위탁가정인 집단위탁가정이 나타났다. 위탁부모는 그들의 집에서 살면서, 일반적으로 일반위탁보호의 경우보다 더 많은 지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문제”청소년을 4~6명씩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식비를 받는다.

그러한 집단위탁보호가 유행될 쯤, 집단보호가정은 치료 공동체를 강조하는 작고 개별화된 주거시설로 발전될 것이다. 전문 사회사업가와 심리학자에 의한 개인, 집단 그리고 가족치료는 집단가정프로그램에서 기본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전문위탁가정이나 전문집단가정에 적용 가능한 서비스의 질을 일반화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치료의 질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양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용어도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 왜냐하면 전문 위탁가정과 전문 집단가정의 목적과 기능이 중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두가지 종류의 가정을 구분하여 주는 3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다 : 1. 한 시점에서 같이 살고 있는 청소년의 수 ; 2. 책임을 맡은 어른이 청소년을 데려와서 자기 가정에서 사는지의 여부, 혹은 정부나 민간기관이 시설을 감독하고 그 곳에서 함께 살면서 일할 사람을 고용하는지의 여부 ; 3. 지역이나 주 정부가 행정하는 감시의 정도와 자격증의 양식.

집단가정은 가출청소년이 장기간 살 수 있는 처치이다. 한 집단가정은 흔히 큰 집 하나에서 살거나 서로 인접한 여러 아파트에서 7명~12명의 청소년이 산다(Gula, 1973 : 14). “집단가정의 부모”(houseparents)는 때때로 청소년사업가나 아동보호사업가로 불리워지기도 하고, 전일제나 시간제로 일하는 전문인력과 함께 긴급

한 상황에서 이용되는 전문인력이 첨가되기도 한다. 기금의 부족이 집단가정 관리자에게 가장 큰 문제이다. 기금의 수준은 집단가정에 위탁된 가출청소년이나 다른 청소년의 보호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또한 기금은 입소 과정을 어떻게 전문화할 것인가 그리고 서비스가 어떻게 제공될 수 있는가에 영향을 준다 — 즉 서비스가 같은 문제를 가진 소규모 청소년에게 주어질 것인가 혹은 다른 문제를 가진 대규모 청소년에게 주어질 것인가?

가출청소년은 대처할 수 없는 문제로부터 도망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위탁부모와 집단가정 관리자는 시설로부터 도망칠지도 모르는 청소년을 수용하는 것에 소극적일지도 모른다. 자원이 특히 부족한 지역에서, 때때로 가출청소년을 받아들이는 시설이 하나뿐일 경우, 그들이 도망치기 어렵도록 시설의 문을 잠궈두기도 한다. 문이 잠궈진 시설에서, 가출청소년은 구금되어 통제당한다; 치료적 개입이 없으면, 청소년을 가출로 이끈 문제는 지속될 것이다. 아마도 집단가정은 가출청소년을 이해하고 그들의 행위를 다룰 수 있는 전문인력과 함께, 직원은 한 밤중에도 가출청소년과 신속한 위기개입상담을 할 수 있도록 24시간 근무해야 한다.

이 연구결과는 가족치료사에게 청소년들이 위기에 대처하도록 도우며 청소년에게 적절한 대처기술을 가르칠 방법을 개발하도록 하는 훈련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모든 사회적 서비스는 가출청소년의 가정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이 연구에서 대부분의 청소년은 가정 상황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집을 떠났다. 사회사업가는 직접 개입을 통해서나 가족치료, 아동학대 서비스, 직업평가, 훈련 그리고 고용 등과 같은 특별한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여, 가족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훈련과 경험을 쌓는다. 가족구성원 각자가 전문치료 프로그램에 의뢰되었을 때, 사회사업가는

전반적인 치료계획의 다양한 측면을 조정해야만 한다.

끝으로 지역 긴급전화와 일시보호소는 부모와 함께 살고있는 청소년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이 예약없이도 사회사업가에게 전화하거나 방문할 수 있도록 일주일 내내 그리고 밤까지 운영되어야만 한다. 낮에만 개방되는 기관이나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저녁만 개방되는 기관은 스트레스속에 있는 청소년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

3. 연구과제

스트레스의 경험과 가출간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큰 표본을 대상으로 한 장기연구가 계획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는 수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져야만 하고, 똑같은 표본에 대한 여러 차례의 면접이 필요할 것이다. 장기 연구가 청소년의 사생활 보호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구자는 표본집단을 추적 면접조사할 때 윤리적 쟁점과 법적 쟁점을 사려깊게 고려해야 하고, 그것이 윤리적이고 실현 가능할 때에만 시도되어야 한다.

미래 연구는 스트레스적 사건이 가출에 미친 단기 효과와 장기 효과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가출 전과 가출 후 2년안에 스트레스를 경험한 10대 가출청소년과 더 이상의 위기를 경험하지 않은 가출청소년간의 차이를 측정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앞으로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연구하는 것이 좋겠다.

1. 만성적인 가출은 흔히 흠있는 가정의 청소년에서 나타날 때, 가출을 촉진시킨 것은 결손가정 자체인가, 결손에서 비롯된

가족갈등인가, 아니면 상호작용의 요인인가?

2. 가출청소년의 인종, 종교, 사회경제적 계급, 가족구조, 형제 순서, 거주지역의 인구밀도, 성격 유형, 혹은 자아개념 수준에 따라서 최근 스트레스적 사건의 성질과 수에서 차이가 있는가?
3. 가정에서 불공정하게 대우를 받아서 가출했던 청소년이 부모가 신체적 혹은 성적으로 학대해서 가출한 사람들보다 후에 능력있는 성인이 될 것인가? “능력”이란 부모와 독립적으로 살고, 3년, 5년 그리고 10년 후에 지속적으로 일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4. 비가출청소년은 가출청소년에 비해 3년, 5년 그리고 10년 후에 유능하고 독립적으로 살 것인가?
5. 흠없는 가정에서 알콜중독인 부모와 사는 청소년은 흠있는 가정에서 알콜중독인 부모와 사는 청소년보다 가출하는 경향이 큰가?
6. 부모가 별거한 후에, 어떤 유형의 스트레스적 사건이 청소년 가출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가?
7. 한번 가출해서 그때 스스로 상담센터로 갔던 청소년은 다시 가출할 것인가?
8. 한번 이상 가출한 청소년은 상담센터에서 돌아온 후 1년안에 다시 가출할 것인가?
9. 어떤 가족 상황이나 환경하에서 첫번째 가출과 재가출이 계속되지 않고 그칠 것인가?
10. 가출청소년은 비가출청소년에 비교할 때 그들에 대한 부모의 훈육이 보다 처벌적이라고 인식하는가?
11. 부모의 의사전달과 태도가 가출행위의 형성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12. 어떤 청소년이 부모가 자신을 지지해주지 않으며 편견을 갖고 있다고 인식할 때, 청소년이 가출할 가능성은 유의미하게 증가되는가?
13. 청소년의 이성경험이 가출행위를 촉진시키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모든 청소년이 학교에서 실패함으로써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좌절을 하고, 약물이나 알콜을 사용하며, 무단결석자나 가출청소년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일부는 부모, 형제 혹은 의미있는 타인의 도움과 지지를 찾는다. 일부는 부모, 교사 그리고 상담원과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건설적인 대처기제를 통하여 스트레스를 다루려는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그들의 좌절과 공격성을 학문적 추구나 취미로 돌리기도 한다.

스트레스적 사건에 대한 청소년의 반응도 청소년의 성격, 긍정적인 대처기제를 사용하는 능력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반응에 달려 있다. 이 연구는 일부 청소년은 그들이 삶속에서 일찌기 겪은 스트레스와 장애를 긍정적이고 성장 - 강화적 수단으로 극복하는 것을 배운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다른 일부는 약물과 알콜에서 은신처를 찾기도 하고, 또 일부는 행동화 대신에 반사회적 및 비행 행동을 하기도 한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복돋아줌으로써 일차적으로 예방을 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 1. 아동양육, 부모교육 그리고 가족생활 교육과정에 있어서 교육자와 부모를 연관시킴. 2. 거친 감정을 자유스럽게 그리고 징계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한 사람 이상의 “의미있는 타자”와의 관계를 발전시킴. 이상적으로 한 쪽 부모는 의미있는 타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불가능하면, 그 역할은 다른 믿을만한 상담자에 의해서 채워질 수 있다. 보통 할아버지나 할머니, 아주머니나 아저씨, 사촌, 형이나

언니, 상담원 그리고 목사 등과 같이 더 나이들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 의미있는 타자가 된다. 청소년기는 청소년이 아동에서 어른으로 성숙되어감에 따라 일어나는 격변과 혼란으로 특징지어지는 시기이다. 신뢰관계의 강한 기초는 초기에 놓여질 수 있고, 청소년은 자신의 문제가 자유스럽게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3. 아동과 청소년들이 수영, 역도, 체조, 자전거 타기 등 개인 스포츠와 야구, 농구, 축구, 발리 등 단체 스포츠에 몰두하게 함. 4. 창작에 몰두함으로써 행복한 감정과 즐겁지 않은 감정을 표출하도록 부추김 : 시쓰기, 일기쓰기, 악기연주, 학교나 지역사회의 연극반에 참여, 그림과 만들기에 관심갖기 등.

청소년 개개인은 부모, 교사, 상담원 그리고 이웃사람들에 의해서 독특한 개인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며, 자신의 속도로 긍정적인 목표에 다다를 수 있도록 북돋아주어야 한다. 청소년 각자는 끝없는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 오늘날 청소년의 자아실현과 복리가 실현성 있는 꿈이냐에 대한 여부는 관련자들의 반응에 달려있다.

부 록 I : 청소년 면접 지침

୦।୩ :

महः :

면접장소 :

면접일시 :

— 들어가는 말 —

이 연구의 내용은 비밀로 다루어집니다. 응답자의 이름과 주소는 알 필요도 없고, 이 연구에서는 가명이 사용됩니다. 이 연구에서는 가출청소년과 비가출청소년에 대해서 가능한 한 많이 알고자 합니다. 청소년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의 경험, 이에 대한 태도 그리고 느낌에 대해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솔직한 대답이 필요합니다. 응답자에게 많은 질문이 주어질 때, 만약 대답하기 거북하다면 반드시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하게 될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가장 좋은 대답은 응답자가 진실로 느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거의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러나 시작하기 전에 이 면접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물어 보십시오.(면접자는 응답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좋아요, 이제 시작합니다.

1. 평소에 음악을 좋아합니까?
 〈그렇다면〉 어떤 음악을 즐겨 듣습니까?
 평소에 악기를 연주합니까?
 〈그렇다면〉 어떤 악기입니까?
2. 취미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취미입니까?
 일주일에 약 몇시간 정도 취미생활을 합니까?
3. 스포츠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스포츠를 가장 좋아합니까?
 일주일에 약 몇시간 정도 스포츠를 관람하거나 직접 참가합니까?
4. TV 시청을 좋아합니까?
 〈그렇다면〉 가장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3가지는 무엇입니까?
 매일밤 약 몇시간 정도 TV 시청을 합니까?
5. 나이는 몇살입니까?
6. 누구와 함께 삽니까?〈가출보호소에서 살고있는 가출청소년에 대한 질문 : 가출할 당시 누구와 살았습니까?〉
 생모
 새어머니
 위탁모
 할머니
 생부
 새아버지
 위탁부
 할아버지
 여자자매/몇 명

새 여자자매/몇 명

남자형제/몇 명

새 남자형제/몇 명

이모, 고모, 숙모

삼촌

사촌

하숙인

친구

기타

7. 〈만약 청소년이 양친부모와 함께 살지 않았다면〉 부모는 이혼, 별거, 모의 사망 혹은 부의 사망 때문에 헤어졌습니까?
8. 〈만약 청소년의 부모가 함께 살지 않았다면〉 부모는 재혼했습니까?
〈그렇다면〉 몇번 했습니까?
9. 지난 5년 동안에 이사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도시나 군에서 살았고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는지, 현재 사는 곳에서 시작해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10. 학교에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11. 학교에서 가장 나쁜 것은 무엇입니까?
12. 학교생활은 어떻습니까?
13. 지난해 일어난 일 중에서 불행하거나 실망스러운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무슨 일이었습니까?
14. 〈적용될 수 있다면〉 그로 인한 실망은 학교 성적에 영향을 주었습니까? 상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15. 〈적용될 수 있다면〉 그로 인한 실망은 가족관계에 영향을 주었습니까? 상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16. 〈적용될 수 있다면〉 그로 인한 실망은 자신에 대해 느끼는 방식에 영향을 주었습니까? 상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17. 지난 4년 동안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무슨 일이었습니까?
18.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위기상황에 처할 때, 스스로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스스로를 어떤 식으로 도울 수 있습니까?
19. 문제가 있을 때, 이야기할 상대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20. 집에서는 누가 직업을 가지고 있고, 일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21. 어머니, 아버지(혹은 보호자)가 일자리를 잃었다면, 누가 실업중이고 얼마나 오래 되었습니까?
22. 가족이 본인을 이해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문제는 무엇인지 간략히 얘기해줄 수 있겠습니까?
23. 부모중 어떤 한 사람이나 또는 둘 다 심한 질병으로 고생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병으로 얼마동안 아팠습니까?
24. 응답자는 심한 질병으로 입원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병으로 얼마동안 입원했습니까?
25. 부모중 어느 한 사람(혹은 둘 다)은 술을 지나치게 마십니까?
〈그렇다면〉 어머니/아버지는 술을 마셨을 때 응답자를 평소와 다르게 대합니까?
〈적용될 수 있다면〉 어머니/아버지는 어떻게 다르게 대합니

까?

26. 부모가 혼육합니까?

〈그렇다면, 부모가 다양한 혼육양식을 사용하는지를 묻는다〉 어떤 혼육양식이 부모에 의해서 가장 자주 사용됩니까?

27. 친구중 가출한 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가출한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적용될 수 있다면〉 친구중 몇 명이나 가출했습니까?

28. 응답자는 가출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몇번이나 됩니까?

29. 〈28번에 '아니오'일 경우〉 가출을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적용될 수 있다면〉 그런데, 왜 가출하지 않았습니까?

〈다음 질문은 청소년이 가출했던 경우에만 해당한다. 만약 그 청소년이 한번 이상 가출한 경우에는 각 행위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

30. 가출의 계기가 된 “결정적인 사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31. 가출하도록 이끈 사건을 설명해 주겠습니까?

32. 가출하기 전에 가출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누구에게 이야기 했습니까?

33. 가출한 후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문제였습니까?

돈문제

잠잘 곳이 없음

음식이 충분하지 못함

경찰문제

기타

34.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해 주겠습니까?

35. 가출한 동안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도움을 주었습니까?

친구

친척(어떤 관계)

교사

목사

청소년사업가

경찰관

기타

36. 가출한 동안에 누군가가 해를 주었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해를 주었습니까?

친구

친척(어떤 관계)

교사

목사

경찰관

청소년사업가

기타

37. 다음중 어떤 약물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얼마나

자주 사용했습니까?

맥주

알콜음료

대마초

THC

LSD(*acid*)

“흥분제”

“진정제”

코카인

헤로인

기타

38. 지금부터 5년후에 무엇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39.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부 록 II : 부모 면접 지침

1. 집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2. 혼인 상태는?
3. 결혼을 몇번이나 했습니까?
4. 지난 5년동안 이사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도시나 군에서 살았고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는지, 현재 사는 곳에서 시작해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5. 집에서는 누가 직업을 갖고 있고, 하는 일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6. 집에서 누군가(응답자 자신을 포함하여) 실업한 적이 있다면, 누가 약 얼마동안 실업당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7. 자신이나 배우자가 심한 질병으로 입원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질병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입원했습니까?
8. 자녀가 심한 질병으로 고생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질병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아팠습니까?
9. 가정에서 술을 지나치게 마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술을 마셨을 때 평소와 다르게 행동합니까?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10. 부모는 자녀를 훈육할 때 다양한 훈육 양식을 사용합니다. 때때로 어머니가 훈육자가 됩니다 ; 다른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훈육자이기도 합니다. 응답자의 가정에서는 누가 훈육자입니까? 어떤 훈육 양식이 가장 자주 사용됩니까?
11. 아들/딸이 가출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들/딸이 가출하게 된 사건을 설명해 주십시오.
응답자는 아들/딸이 떠난 것을 안 후에 어떻게 느꼈습니까?

참 고 문 헌

- Aguilera, Donna C. and Messick, Janice M. *Crisis Intervention : Theory and Methodology*. St. Louis : Mosby Co., 1974.
- Aichorn, A. *Wayward Youth*. New York : Viking Press, 1935.
- Ambrosino, Lillian. *Runaways*. Boston : Beacon Press, 1971.
- Armstrong, Clairette P. A psychoneurotic reaction of delinquent boys and girl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October, 1937, 32, 329-342.
- Balser, Ben H. A behavior problem - runaways. *The Psychiatric Quarterly*, July, 1939, 13, 539-557.
- Bard, Morton and Ellison, Katherine. Crisis intervention and investigation of forcible rape. *The Police Chief*, May, 1974, 41, 68-73.
- Bayh, The Honorable Birch. Testimony at the Hearing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Subcommittee on Equal Opportunities of the Committee on Education and Labor. Ninety-third Congress, second session. Reported in the proceedings of the above titled :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and Runaway Youth*. Washington, D. C. :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4, 159-164.
- Bloom, Bernard L. Definitional aspects of the crisis concept. In Howard J. Parad (ed), *Crisis Intervention : Selected Readings*. New York : Family Services Association of America, 1965, 303-311
- Bloom, Martin, *The Paradox of Helping : Introduction to the Philosophy of Scientific Practice*. New York : John

- Wiley and Sons, Inc., 1975.
- Bobbit, O. P. (Director, Operation Peace on Mind). *Personal Correspondence*. October 3, 1977.
- Bonee, John L. III. Runaway children. *Connecticut Bar Journal*, 1974, 48, 360-389.
- Brecher, John. Wanted : 500 volunteers to help children just be their friends. *The Miami Herald*, October 2, 1975, Section B, 1-2.
- Calhoun, Lawrence G., Selby, James W. and King, H. Elizabeth, *Dealing with Crisis*. Englewood Cliffs, N. J. : Prentice-Hall, Inc., 1976.
- Caplan, Gerald. A public health approach to child psychiatry. *Mental Health*, 1975, 35, 235-249.
- . Preparation for the healthy parenthood. *Children*, 1954, 1(5), 171-175.
- . Patterns of parental response to the crisis of pre mature birth. *Psychiatry*, 1960, 23, 365-374.
- . *An Approach to Community Mental Health*. London : Tavistock Publications, 1961.
- . *Principles of Preventive Psychiatry*. New York : Basic Books, 1964.
- Caplan, Gerald, Mason, Edward A., and Kaplan, David M. Four studies of crisis in parents of prematures.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Summer, 1965, 1, 149-161.
- Christensen, Harold T. *Handbook of Marriage and the Family*. Chicago : Rand McNally and Co., 1964.,
- Clarke, Eleanor. Round-the-clock emergency psychiatry services. In Howard J. Parad (ed), *Crisis Intervention : Selected Readings*. New York : Family Service Association of America, 1965, 261-273.

- Clark, Ted and Jaffe, Dennis T. Change within youth crisis center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1972, 42 (2), 675-687.
- Clarke, J. An analysis of crisis management by mental welfare officers.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1971, 1(1), 27-37.
- Cobb, Charles. Runaway youth center opens doors. *The Florida Times-Union*, May 17, 1974, p.7.
- Coelho, George V., Hamburg, David A., and Adams, John E. (eds). *Coping and Adaptation*. New York : Basic Books, 1974.
- Cohen, Lawrence E. *Pre-adjudicatory Detention in Three Juvenile Courts :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Factors Related to Detention Decision Outcomes*. Albany, N. Y. : Criminal Justice Center, 1975.
- Collins, Marilyn. *Personal Communication*, June 2, 1980.
-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Nondelinquent children in New York : the need for alternatives to institutional treatment. 1972, 8, 251-265.
- Conti, Anthony P. A follow-up investigation of families referred to outside agencie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1973, 11(3), 215-223.
- D'Angelo, Rocco. *Families of Sand : A Report Concerning the Flight of Adolescents from Their Families*. Columbus, Ohio : School of Social Work, The Ohio State University, 1974.
- Darbonne, Allen. Crisis : a review of theory, practice and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iatry*, 1968, 6 (5), 371-379.
- Decker, J. B. and Stubblebine, J. M. Crisis intervention and

- prevention of psychiatric disability : a follow-up study.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972, 129(6), 725-729.
- Duckworth, Grace L. A project in crisis intervention. *Social Casework*, 1967, 48(4), 227-231.
- Dunford, Franklyn W. and Brennan, Tim. A taxonomy of run-away youth. *Social Service Review*. September, 1976, 457-470.
- Easton, K. J. Volunteers critically needed to aid wayward juveniles. *Lake Worth Herald*, September 25, 1975, page 1.
- El-Guebaly, Nady and Offord, David R. The offspring of alcoholics : a critical review.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977, 134(4), 357-365.
- English, Clifford J. Leaving home : a typology of runaways. *Transaction*, 1973, 10(5), 22-24.
- Erikson, Erik H.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 W. W. Norton and Co., 1950.
- , Growth and crisis of the healthy personality. In Clyde Kluckhorn and H. Murray (eds). *Personality in Nature, Society and Culture*. New York : Alfred Knopf, 1956, 185-225.
- Finley, John. "Shelter house : for runaway youths, it's the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Louisville Courier-Journal*, March 4, 1979
- Gula, Martin. *Agency Operated Group Homes*. Washington, D. C. :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Children's Bureau, 1964.
- . Community services and residential institutions for children. In Yitzhak Bakal (ed). *Closing Correctional Institutions*. Lexington, Mass : Lexington Books, 1973, 13-18.
- Halpern, Howard A. The crisis scale : a factor analysis and re-

- vision.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1976, 11(3), 295-319.
- Hansell, Norris. *The Person-in-Distress : On the Biosocial Dynamics of Adaptation*. New York : Human Sciences Press, 1976.
- Hart, James A. and Manella, Raymond L. The runaway youth act. *Juvenile Justice*, 1975, 26(4), 3-6.
- Heilig, Sam M. Klugman, David J. The social worker in a suicide prevention center. In Howard J. Parad (ed). *Crisis Intervention : Selected Readings*. New York : Family Service Association of America, 1965, 274-283.
- Helfer, Ray E. *A Self-instructional Program on Child Abuse and Neglect*. East Lansing, Mich. : Department of Human Development, Michigan State College of Human Medicine(no date indicated).
- Henry, Kenneth (ed). *Social Problems : Institutional Interpersonal Perspectives*. Glenview Illinois : Scott, Foresman, 1978.
- Henvener, Phil. What kind of place is this? *The Houston Post*, February 9, 1975, pages 1 and 3a.
- Hiatt, Catherine and Spurlock, Ruth E. Geographical flight and its relation to crisis theory.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1970, 40(1), 53-57.
- Hildebrand, James A. Why runaways leave home, *Journal of Criminal Law, Criminology and Police Science*, 1963, 54(2), 211-216.
- Hill, Reuben. *Families under Stress*. New York : Harper and Bros., 1949.
- Hill, Reuben. Generic features of families under stress. *Social Casework*, 1958, 39(2&3), 139-150.

- . Social stresses on the family. In Marvin B. Sussman (ed). *Sourcebook in Marriage and the Family*, second edition. Boston : Houghton Mifflin Co., 1963, 303-314.
- Hill, Reuben and Hansen, Donald H. The identification of conceptual frameworks utilized in family study. In Marvin B. Sussman (ed). *Sourcebook in Marriage and the Family*, second edition. Boston : Houghton Mifflin Co., 1963, 494-507.
- Homer, Louise E. Community-based resource for runaway girls. *Social Casework*, 1973, 54(8), 473-479.
- Horton, Paul B. and Hunt, Chester L. *Sociology*, fourth edition. New York : McGraw-Hill Book Co., 1976.
- Howell, M. C., Emmons, E. B., and Frank, D. A. Reminiscences of runaway adolescent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1973, 43(5), 840-853.
- Jacobson, Gerald F. *Crisis theory and treatment strategy : some sociocultural and psychodynamic considerations*.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965, 141(2), 209-218.
- Jenkins, Richard L. The runaway reaction.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971, 128(2), 168-173.
- . Deprivation of parental care as a contributor to juvenile delinquency. In Albert R. Roberts (ed). *Childhood Deprivation*. Springfield, Illinois : Charles C. Thomas, 1974, 116-135.
- Jenkins, Richard L. and Boyer, Andrew. Types of delinquent behavior and background factor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Psychiatry*, 1967, 14(1), 65-76.
- Jenkins, Richard L. and Glickman, Sylvia. Common syndromes in child psychiatry : deviant behavior traits.

- Th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1946, 16(2), 244-254.
- Jenkins, Richard L. and Stahle, Galen. The runaway reaction : a case stud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1972, 11(2), 294-313.
- Johnson, Elmer H. *Social Problems of Urban Man*, Homewood, Illinois : Dorsey Press, 1973.
- Joos, J., Debuyst, C. and Sepulchre-Cassiers, M. Boys who ran away from home : A Belgian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1970, 14(2), 98-104.
- Kaplan, David M. Observations on crisis theory and practice. *Social Casework*, 1968, 49(3), 151-155.
- Kaplan, David M. and Mason, Edward A. Maternal reactions to premature birth. *Th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1960, 30(3), 539-552.
- Karp, H. Neil and Karls, James M. Combining crisis therapy and mental health consultat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1966, 14(5), 536-542.
- Kaufman, Joshua, Allen, James R. and West, Louis Jolyon, Runaways, hippies and marijuana,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969, 126(5), 717-720.
- Kehoe, Charles J. and Freer, Richard. Cooperative services for runaway youth. *Juvenile Justice*, 1977, 28(1), 35-39.
- Keiffer, Elisabeth. Please... ask my mother if I can come home. *Good Housekeeping*, September, 1975, pages 85, 134 & 136.
- Kerns, Elizabeth. Planned short-term treatment, a new service to adolescents. *Social Casework*, 1970, 51(6), 340-346.
- Klaber, Jane K. Persons in need of supervision : is there a

- constitutional right to treatment? *Brooklyn Law Review*, Winter, 1973, 39, 624-657.
- Koury, Michael Anthony. Crisis : identity. *Adolescence*, Summer, 1971, 6, 229-234.
- Kritzer, H. and Pittman, F. S. Overnight psychiatric care in a general hospital emergency room. *Hospital and Community Psychiatry*, 1968, 19(10), 303-306.
- Lachman, Sheldon J. *Psychosomatic Disorders : A Behaviorist Interpretation*. New York : John Wiley and Sons, 1972.
- Langsley, Donald, Pittman, F. S., Machatka, P. and Flomenhoft, K. Family crisis therapy : results and implications. *Family Process*, 1968, 7(2), 145-158.
- Langsley, Donald and Kaplan, David M. *The Treatment of Families in Crisis*. New York : Grune and Stratton, 1968.
- Latina, Jane C. and Schembera, Jeffrey L. *Volunteer Homes for Status Offenders : An Alternative to Detention*. Tallahassee, Florida : Division of Youth Services, October, 1975, mimeographed.
- Lester, Daniel and Brockopp, Gene W. (eds). *Crisis Intervention and Counseling by Telephone*. Springfield, Illinois : Charles C. Thomas, 1973.
- Leventhal, Theodore. Control problems in runaway childre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1963, 9(2), 122-128.
- . Inner control deficiencies in runaway childre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1964, 11, 170-176.
- Lindemann, Erich. Symptomatology and management of acute grief.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944, 101 (2), 141-148.

- Looney, Lt. Pat. Commanding Officer, Juvenile Aid Bureau. Nassau County Police Department. *Personal Communication*. April, 1977.
- Lovitt, Robert, Psychological consultation to a police training academy : problems and opportunities.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1976, 12(3), 313-319.
- Lowery, Lawson G. Runaways and nomad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1941, 11(4), 775-783.
- McQuade, Walter and Aikman, Ann. *Stress*. New York : E. P. Dutton and Co., 1974.
- Margolin, Michael H. Styles of service for runaways. *Child Welfare*, 1976, 40(3), 205-215.
- Martin, Christopher A. Status offenders and the juvenile justice system : where do they belong? *Juvenile Justice*, 1977, 28(1), 7-17.
- Merton, Robert K. and Nisbet, Robert (eds). *Contemporary Social Problems*. New York :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1971.
- Moos, Rudolf H. (ed). *Human Adaptation : Coping with Life Crises*. Lexington, Mass. : D. C. Heath and Co., 1976.
- Morgan, Ted. Little ladies of the night. *The New York Times Magazine*. November 16, 1975, pp. 34-50.
- Myers, Cynthia (Executive Director, National Runaway Switchboard). *Personal Correspondence*. November 17, 1977.
- Mullin, Sue. How officials meet problems of runaways. *Washington (D. C.) Star*, February 5, 1979 pp. B5-6.
- Nachmias, David and Nachmias, Chava, *Research Methods in the Social Sciences*. New York : St. Martin's Press, 1976.

- National Council on Crime and Delinquency. Board of Directors. Jurisdiction over status offenses should be removed from the juvenile court : a policy statement. *Crime and Delinquency*, 1975, 21(2), 97-99.
- National Runaway Switchboard. *First Year Report*. Chicago : Metro-Help, Inc., 1975. mimeographed.
- . *Annual Report 75-76*. Chicago : Metro-Help, Inc., 1976. mimeographed.
- Neugebauer, William. Kids run away from woes. *Daily News (New York)*, February 11, 1979, Brooklyn Section, pp. 1 and 3.
- New York State Council of Voluntary Child Care Agencies. Ad Hoc Committee on the Court Related Child. *Report on PINS and Related Issues*. February 25, 1975, mimeographed.
- New York Times*. Texan said to admit role in 25 killings. August 10, 1973, pages 1 & 44.
- . Too many persons missing each year to rouse suspicion. August 11, 1973, page 17.
- . Police in Houston explain procedure on runaways. August 14, 1973, page 18.
- . Midwest teenagers tell of forced vice. November 15, 1977, page 29.
- New York University Law Review*. Runaways : a non-judicial approach. April, 1974, 49, 110-130.
- Opinion Research Corporation. *National Statistical Survey on Runaway Youth, Part I*. Final report on a study conducted for the Office of Youth Development,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Princeton : Opinion Research Corporation, June, 1976.

- . *National Statistical Survey on Runaway Youth, Part II*, Final report on a study conducted for the Office of Youth Development,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Princeton : Opinion Research Corporation, November, 1976.
- Outland, George E. The federal transient program for boys in southern California. *Social Forces*, 1936, 14(3), 427-432.
- . Determinants involved in boy transiency. *Journal of Educational Sociology*, 1938, 11(6), 360-372.
- Parad, Howard J. and Caplan, Gerald. A framework for studying families in crisis. *Social Work*, 1960, 5(3), 3-15.
- Parad, Howard J. (ed). *Crisis Intervention : Selected Readings*. New York : Family Service Association of America, 1965.
- Parad, Howard J. and Parad, Libbie, A study of crisis-oriented short-term treatment. *Social Casework*, 1968, 49(6&7), 346-355 and 418-426.
- Parad, Howard J. Crisis intervention. In Robert Morris (ed). *Encyclopedia of Social Work*. Volume I. New York,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1971, 196-202.
- Pasewark, Richard A. and Albers, Dale A. Crisis intervention : theory in search of a program. *Social Work*, 1972, 17(2), 70-77.
- Paul, Louis. Crisis intervention. *Mental Hygiene*, 1966a, 50(1), 141-145.
- . Treatment techniques in a walk-in clinic. *Hospital and Community Psychiatry*, 1966b, 17(2), 49-51.
- Paulsen, James A. Runaway girls from suburbia.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1967, 37(2), 402-403.
- Pawlak, Edward J. *The Administration of Juvenile Justice*.

- University of Michigan, Ph. D. dissertation, 1972.
- Paykel, Eugene S., Myers, Jerome K., Dienelt, Marcia N., Klerman, Gerald L., Lindenthal, Jacob J., and Pepper, Max P. Life events and depression : a controlled study.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1969, 21(6), 753-760.
- Polsky, Howard W. Vision and process : the quality of life in community group homes. In Yitzhak Bakal (ed). *Closing Correctional Institutions : New Strategies for Youth Services*. Lexington, Mass. : Lexington Books, 1973, 59-66.
- Poplin, Dennis E. *Social Problems*. Glenview, Illinois : Scott, Foresman, 1978.
- Porter, Robert A. Crisis intervention and social work models.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1966, 2(1), 13-21.
- Raab, Selwyn. Pimps establish link to the midwest. *New York Times*, October 30, 1977, pages 1, 21.
- . City plans new strategy to deal with prostitutes under age of sixteen. *New York Times*, November 2, 1977, page B3.
- Raphling, D. L. and Lion, J. Patients with repeated admissions to a psychiatric emergency service.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1970, 6(4), 313-318.
- Rapoport, Lydia. The state of crisis : some theoretical considerations. *Social Service Review*, 1962a, 36(2), 211-217.
- . Working with families in crisis : an exploration in preventive intervention. *Social Work*, 1962b, 7(3), 48-56.
- . Crisis-oriented short-term casework. *Social Service Review*, 1967, 41(1), 31-42.
- . Crisis intervention as a mode of brief treatment. In Robert W. Roberts and Robert H. Nee (eds). *Theories of So-*

- cial Casework*.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0, 267-311.
- Rector, Milton G. PINS cases : an American scandal. *Social Issues Resources Series*, November, 1974, 1, 1-6.
- _____. Juvenile justice issues and priorities. Paper read at the First Anniversary Luncheon, New York State Council of Voluntary Child Care Agencies, May 9, 1975.
- Reinherz, Helen and Griffin, Carol Lee. The treadmill of failure : early school failure and later academic and vocational aspirations and achievement in Henry Wechsler, Helen Reinherz and Donald Dobbin. *Social Work Research in the Human Services*. New York : Human Sciences Press, 1976, 208-235.
- Rhine, M. W. and Mayerson. P. Crisis hospitalization within a psychiatric emergency servic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971, 127(10), 1386-1391.
- Riemer, Morris D. Runaway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July, 1940, 10, 522-526.
- Ritter, Father Bruce, The Adolescent Runaway : A National Problem. *U. S. A. Today*, March, 1976, 24-28.
- Roberts, Albert R. Suicide and suicide prevention : an overview. *Public Health Reviews*, 1973, 2(1), 3-30.
- _____. (ed). *Childhood Deprivation*. Springfield, Ill. : Charles C. Thomas, 1974.
- _____. Police social workers : a history. *Social Work*, 1976, 21 (4), 294-299.
- Robey, Ames, Rosenwald, Richard J., Snell, John E. and Lee, Rita E. The runaway girl : a reaction to family stres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1964, 34(4), 762-767.

- Robins, Lee N. and O'Neal, Patricia. The adult prognosis for runaway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1959, 29(4), 752-761.
- Rode, Alex. Perception of parental behavior among alienated adolescents. *Adolescence*, 1971, 6(21), 19-38.
- Rosenheim, Frederick C. Techniques of therapy.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July, 1940, 10, 651-659.
- Rosenwald, R. J. and Mayer, J. Runaways girls from suburbia.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1967, 37(2), 402-403.
- Sarri, Rosemary C. *Under Lock and Key : Juveniles in Jails and Detention*. Ann Arbor, Michigan : National Assessment of Juvenile Corrections, University of Michigan, December, 1974, mimeographed.
- Selye, Hans. *The Stress of Life* New York : McGraw-Hill, 1956.
- Shaw, Clifford R. *The Jack-roller*,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30.
- Sheehy, Gail. *Passages : Predictable Crises of Adult Life*. New York : E. P. Dutton and Co., 1976.
- Sheilds, L. Family crisis intervention. *Journal of Psychiatric Nursing and Mental Health Services*, 1969, 7(5), 222-225.
- Shellow, Robert, Schamp, Juliana R., Leibow, Elliot and Unger, Elizabeth. *Suburban Runaways of the 1960'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1967, 32(3), 1-51.
- Sheppard, Nathaniel Jr. With 20,000 runaways in city, police are confident that chances for a mass tragedy are slight. *New York Times*. August 16, 1973, page 17.

- Sifneos, Peter E. A concept of "emotional" crisis. *Mental Hygiene*, April, 1960, 44, 169-179.
- Spector, Gerald A. and Claiborn, William L. (eds). *Crisis Intervention*. New York : Behavioral Publications, 1973.
- Sterba, James P. Texas police find four more bodies : the total is now 23. *New York Times*, August 14, 1973, pages 1 & 17.
- . Texas toll of boys rises to 27 in nation's biggest slaying case. *New York Times*, August 14, 1973, pages 1 & 18.
- Stewart, Elbert W. *The Troubled Land : Social Problems in Modern America*. New York : McGraw-Hill, 1972.
- Stierlin, Helm. A family perspective on adolescent runaway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1973, 29(1), 56-62.
- Stiller, Stuart and Elder, Carol. PINS — a concept in need of supervision. *The American Criminal Law Review*, 1974, 12, 33-60.
- Strickler, Martin and Allgeyer, Jean. The crisis group : a new application of crisis theory. *Social Work*, 1967, 12(3), 28-32.
- Suddick, David E. Runaways : a review of the literature. *Juvenile Justice*, 1973, 24(2), 47-54.
- Sussman, Marvin (ed). *Sourcebook in Marriage and the Family*. Boston : Houghton Mifflin Co., second edition, 1963 ; third edition, 1968.
- Taplin, Julian R. Crisis theory : critique and reformulation.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1971, 7(1), 13-23.
- Time Magazine*, August 27, 1973, page 57.
- Troll, Lillian E., Neugarten, Bernice L. and Kraines, Ruth J. Similarities in values and aother personality characteristics in college students and their parents. *Merrill-Palmer*

Quarterly, 1969, 15(4), 323-336.

United States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Intra-Departmental Committee on Runaway Youth. *Runaway Youth : A Status Report and Summary of Projects*. Washington, D. C. :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March 31, 1976, mimeographed.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 Hearings of the Subcommittee on Equal Opportunities of the Committee on Education and Labor,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and Runaway Youth*. Ninety-third Congress, second session. Washington, D. C. :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4.

United States Senate. Hearings before the Subcommittee to Investigate Juvenile Delinquency of the Committee on the Judiciary. *The Runaway Youth Act*. Washington D. C. :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January 13, 1972.

Vecsey, George. For Young urban nomads, home is the streets. *New York Times*, June 1. 1976, pages 37 & 59.

Vinter, Robert D., Downs, George and Hall, John. *Juvenile Corrections in the States : Residential Programs and Deinstitutionalization*. Ann Arbor, Michigan : National Assessment of Juvenile Corrections, University of Michigan, 1976, mineographed.

Walfish, Steven, Tulkin, Steven R., Tapp, Jack T. and Russell, Mary. Criteria for appropriate and inappropriate referrals to a crisis clinic.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1976, 12(1), 89-94.

Wein, Bibi. *The Runaway Generation*. New York : David McKay Co., 1970.

Weisman, Steven R. Cities setup efforts to aid runaway chil-

dren. *New York Times*, September 3, 1973, page 8.

Woodward, Kay. *Personal Communication*. Governor's Office for Volunteer Services, Austin, Texas, June 24, 1980. p. 1.

Youth Reporter. Newslink. September, 1974, page 2.

Zastrow, Charles and Navarre, Ralph. Help for runaways and their parents. *Social Casework*, 1975, 56(2), 74-78.

역자 후기

최근 가출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증되고 있습니다. 각종 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 중에는 가출청소년이 적지 않고, 또한 가출소녀는 “인신매매”망에 걸려서 “인간시장”에서 비인간적 처우를 받고 살아간다는 기사거리가 연일 신문의 사회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출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관심은 매우 부족했습니다. 대개 가출청소년의 삶을 르포기사로 다루거나, 일시아동보호소에 수용된 가출아동을 조사한 보고서가 주종을 이루었습니다.

가출청소년에 대한 역자의 관심은 청소년은 왜 가출하는가? 가출청소년과 가출하지 않은 청소년은 어떻게 다른가?란 의문과 청소년의 가출은 모두 비행인가에 대한 회의로 요약됩니다.

역자는 평소 모든 청소년은 가출할 개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출청소년은 비가출청소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출이 청소년 자신의 인생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가출청소년은 “비난”의 대상이 아니고, “도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자가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문헌을 수집하던 중 미국 Indiana대학교 사회사업대학 교수인 Roberts박사의 “가출청소년과 비가출청소년”(Runaways and Non-Runaways)은 많은 경험적 자료와 이론적 시사를 줌을 알았습니다.

Roberts박사는 가출청소년과 비가출청소년 각각 30명과 그들의 부모와의 면접조사를 통해서, 청소년의 가출행위는 성공적이지 못한 인간관계의 자연스런 결과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모나 교사가

청소년을 인격체로 대접하고, 청소년 각자가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Roberts박사의 “가출청소년연구”는 가출청소년에 대한 연구가 기술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의 연구풍토에 새로운 바람을 가져오고, 일선에서 가출청소년을 지도하는 사회복지사, 교사 등과 청소년을 키우고 있는 부모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되어, 역자는 번역을 시도하였습니다.

이 작은 작업에도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먼저 번역 기회를 주신 한국청소년연구원의 이윤구원장님과 최현실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바쁜 연구일정 속에서도 번역할 틈을 준 이춘화, 정병오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책은 역자가 번역을 하였지만, 이유림, 김서옥, 허혜진님이 초고를 윤독하고, 수정해주지 않았더라면 이 만큼 다듬어지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물론 번역에 잘못이 있다면 모두 역자의 책임입니다.

이 작은 책자가 이 땅의 청소년이 가출을 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고, 비록 가출했다라도 인간다운 조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1991. 9.

역자